

사도행전 이야기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

The New Exodus of the New Testament People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표지화설명] 김효숙님의 십자가상.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와 위로가 함께 하는 십자가상을 만들고 싶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상흔들을 강조하면서도 손과 발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오르는 새의 이미지로 자유와 기원을, 머리의 가시면류관은 생명이 싹트고 피어나는 모양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평화와 희망을 담으려 했다.” - 계간 『성서와 문화』, 2000년 겨울호에서 -

---

A Story of Acts of the Apostles  
**The New Exodus**  
of the New Testament People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4  
20-10 Beonyeong 8-gil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 머리말: 새 언약 백성을 위한 새 땅과 새 나라 이야기

### 주께서 주신 결말”

성서는 ‘땅’과 ‘나라’이야기이다. 구약은 지상 가나안땅과 이스라엘 나라의 출범, 발전, 쇠퇴, 희망에 관한 것이고, 신약은 하늘 가나안땅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 발전, 완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땅과 나라들을 싸고 있던 주변국들의 이야기이다. 신약은 구약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해석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인류구원에 유일한 대안인가를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와 새 여호수아서이다.

땅과 나라를 희망했던 아브라함은 아들도 낳지 못하던 떠돌이 유목민이었다. 그의 후손이 이집트에 들어가 작은 민족을 이루지만, 노예 신세가 되었다가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땅을 ‘침노’하기까지 최소한 430년(최장 645년)이 걸렸고, 절정기에 이르기까지 4백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이 영화는 1백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눈을 세계로 향하고 경계를 넘어 도전(진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는 쪼개지고, 국력은 쇠하여져 도전(진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신생 제국들에게 차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떠돌이였고,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 땅이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하였다. 그래서 땅은 그들의 ‘희망’(Ha-Tikvah)이자 ‘다가올 세상’(Olam Ha-Ba)이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간절함과 이 땅을 지켜내고자 한 절박함의 산물이 율법준수의 엄격함이었고 배타적 선민사상이었다. 가나안땅이 보존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내느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배타적

영토주의와 선민사상은 민족주의를 낳았고, 민족주의는 세계를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들었으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제사장직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았어야 했다. 야훼를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알지 말았어야 했다. 가나안땅이 그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야 했다.

유대인들은 땅을 얻고 난 때로부터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국시대 이전 사사시대 4백여 년간 피땀 흘리며 싸워야했고, 땅을 빼앗기고 나서 6백여 년을 속주민의 처지로 살아야했으며, 1948년 건국 때까지 무려 1878년간 땅과 나라가 없는 떠돌이와 노예로 살아야했다. 그렇다고 비극만이 유대인의 모든 것은 아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행동하였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아삼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시 79:13)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앗수르의 살만에셀이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로 선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로 인해서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망한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주전 609년부터 주후 1846년까지 2455년간 6미터 깊이의 토사 속에 묻혀 지냈지만, 이스라엘은 비슷한 시기에 망하고서도 무려 2534년 만인 1948년에 건국에 성공하여 작지만 막강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 하나님을 주인과 목자로 섬긴 이스라엘과 백성의 태양으로 군림한 앗수르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약 5:11)은 이토록 극명하게 달랐다.

#### **이집트, 앗수르, 바벨론의 결말**

조병호 목사는 <성경과 5대제국>에서 고대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이집트 경영의 키워드가 ‘자연,’ 즉 치수와 농업의 진흥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 제국이 만든 생산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1960년대에 하비 록

스는 <세속도시>에서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써 관리와 보존의 대상임을 강조하면서 출애굽사건을 자연의 마력, 인간의 권력, 유한한 가치를 절대시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사건이라고 하였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면, 유대인의 조상들을 노예로 부리며 문명의 피라미드를 쌓았던 이집트가 지금은 오히려 한때 자신들이 노예로 부렸던 자들의 후예들에게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에서 수모를 겪고 있다.

조병호 목사는 이집트를 무너뜨린 앗수르 경영의 키워드가 ‘경계’였다고 말한다. 앗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려 혼혈족들을 만들어 각 민족의 독특성을 말살함으로써 반란의 근원을 도려내 제국의 영화를 누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은 제국의 말발굽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복음)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의 연설에서 말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17:26-28)고 하였다. 앗수르가 취했던 정책에 반대되는 말씀이다. 비록 민족 색깔 언어 경계는 달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는 군권에 깃뻛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였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아테네가 고집한 ‘혈통’이 로마가 강조한 ‘정신’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민족주의 바벨탑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복음’으로 ‘경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정신을 통일시킨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였다.

조병호 목사는 앗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경영의 키워드가 이데올로기 ‘교육’이었다고 말한다.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정책은 유다에서 끌고 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영재들을 한곳에 모아 교육시킴으로써 세계지배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파르타식 교육과 북한의 주체사상 및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이미 실패한 것에서 보듯이, 또 칸트가 말했듯이,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이 아닌, 인간을 지배와 통치수단으로 삼는 교육은 반드시 패배한다. 또 유대인들의 율법교육은 약소민족이요 소수민족인 그들 자신을 배타적 선민사상과 민족주의로 묶는 데는 여전히 성공적이지만, 그로 인한 대가가 나라를 잃고 2천5백년이 넘는 세월을 떠돌이와 노예로 살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주께서 주신 결말”은 명백하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성별 빈부귀천 언어경계에 관계없이 값없이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류를 그리스도의 나라의 평등한 시민과 형제자매로 삼으신다는 기독교 복음에 복을 주셨다. 지난 2천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스도의 나라의 결말**

조병호 목사는 가장 너른 영토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경영의 키워드가 ‘숫자’였다고 말한다. 다리오가 그리스 원정에 30-40만 대군을 동원한 것이나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70만 대군을 동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알렉산더가 이끈 4만의 군사 앞에서 붕괴되었다. 세계대전을 겪었던 세대들이 거의 유명을 달리한 지금 우리 주변의 열강들은 패권주의경쟁에 이미 돌입하였다. 군비증강과 자본지배로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독식하려는 지배구조는 반드시 망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경영, 약자를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경영,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고귀한 권리이다.

조병호 목사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경영의 키워드가 ‘융합’이었다고 말한다.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으로 제국을 영속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앗수르가 강제 결혼방식으로

민족경계를 허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헬라는 세계동포주의로 민족경계를 해체시키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힘써 세우려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민족성별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평등한 나라, 개체가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나 부품으로 천대받는 나라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나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조병호 목사는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경영의 키워드가 ‘관용’이었다고 말한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은 화폐를 만들 때, 앞면에는 자기의 옆얼굴을 새기고, 뒷면에는 ‘관용’이라는 글자를 새기기를 좋아했다. 여기서 조병호 목사가 말하는 ‘관용’은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말한 ‘정신’의 공유와 상통하는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관용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신인 아가페사랑, 십자가사랑, 하나님사랑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로마제국을 갈릴리 어촌 출신의 예수님의 복음사상에 무너져 내리게 한 “주께서 주신 결말”에서 보듯이, 진실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답게 만들며, 안식과 행복을 주는 기독교복음이야말로 다시금 조명 받고 인정받아야 할 인류의 유산이요 가치이다.

성서는 ‘땅’과 ‘나라’이야기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역대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땅의 ‘침노’(마 11:12)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그 땅은 이 지상의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땅이다. 하나님이 아닌, 자연 지배, 혈통통합, 이데올로기교육, 숫자의존, 문화통합, 정신공유에 의지하여 영원한 제국을 꾀한 나라들은 모두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반면에 지상에서의 삶을 최종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끊임없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 ‘장차울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도전(진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이다. 제국의 황제들이 신성을 찬탈하고, “짐(朕)의 나라”임을 주장한 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형제요 일군이다. 이에 감동하여 바울은 자기결정권이 없는 노예로서

## 8 / 사도행전 이야기: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

---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섬겼다. 사도행전의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 이야기는 이 방식으로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가나안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본서가 사도행전을 조금치라도 깊이 이해하고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2014년 7월 4일

조 동 호

차례

**머리말: 새 언약 백성을 위한 새 땅과 새 나라 이야기/3**  
 주께서 주신 결말” ..... 3  
 이집트, 앗수르, 바벨론의 결말 ..... 4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스도의 나라의 결말 ..... 6

**1. 구원사역의 점진적 연속성1(눅 24:47-53, 행 1:1-5)/17**  
 하나님께 잇대어 ..... 17  
 영원에 잇대어 ..... 18  
 성전에 잇대어 ..... 20

**2. 구원사역의 점진적 연속성2(행 1:1-6)/23**  
 이스라엘에 잇대어 ..... 23  
 신명기의 고별설교에 잇대어 ..... 24  
 예언자들의 회복운동에 잇대어 ..... 26

**3. 구원사역의 점진적 연속성3(행 1:7-11)/29**  
 성령님에 잇대어 ..... 29  
 가나안땅 정복에 잇대어 ..... 30  
 에녹, 모세, 엘리야에 잇대어 ..... 32

**4. 구원사역의 점진적 연속성4(행 1:12-26)/35**  
 예수님의 기도습관에 잇대어 ..... 35  
 유대인들의 기도습관에 잇대어 ..... 37  
 성전예배와 열두지파에 잇대어 ..... 38

**5.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1(행 2:1)/41**  
 유대교 구약체결에 잇대어 ..... 41  
 유대교 유월절 사건에 잇대어 ..... 42

10 / 사도행전 이야기: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

---

유대교 오순절 날에 잇대어 .....	44
<b>6.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2(행 2:2-13)/47</b>	
새 언약 백성의 새 시내산 사건 .....	47
새 언약 백성의 새 안식일 사건 .....	48
새 언약 백성의 새 이스라엘 사건 .....	50
<b>7.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3(행 2:14-36)/53</b>	
사도행전: 여호수아서에 잇대어 .....	53
베드로: 여호수아에 잇대어 .....	54
베드로의 설교: 구약성경에 잇대어 .....	56
<b>8.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4(행 2:37-47)/59</b>	
새 언약 백성의 새 이스라엘 .....	59
새 언약 백성의 새 예배(1) .....	60
새 언약 백성의 새 공동체 정신 .....	62
<b>9.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5(행 3:1-10)/65</b>	
새 언약 백성의 새 예배(2) .....	65
새 언약 백성의 새 예배(3) .....	66
새 언약 백성의 위대한 삶 .....	68
<b>10.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6(행 3:11-26)/71</b>	
솔로몬 행각 .....	71
조상의 하나님 .....	72
최초의 신앙고백 .....	74
<b>11.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7(행 4:1-12)/77</b>	
최초의 기독교 탄압 .....	77
산헤드린 공회원들 .....	78
산헤드린 공회 청문회 .....	80
<b>12.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8(행 4:13-37)/83</b>	
새 출애굽의 희망(하티크바) .....	83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 .....	84
유평아 공동체 .....	86
<b>13.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9(행 5:1-16)/89</b>	
새 예배전통 .....	89
새 성령이해 .....	90
새 이스라엘 공동체 .....	92
<b>14.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10(행 5:17-42)/95</b>	
부활사건들의 체험 .....	95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	96
예수 운동 .....	98
<b>15.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1(행 6:1-7)/101</b>	
기독교복음의 가교(架橋) .....	101
제자와 그리스도인 .....	102
전화위복(轉禍爲福) .....	104
<b>16.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2(행 6:8-15)/107</b>	
헬라과유대인들의 충돌 .....	107
스데반,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 .....	108
유대교 예배에 잇대어 .....	110
<b>17.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3(행 7:1-60)/113</b>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1) .....	113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2) .....	114
가시나무 떨기 불꽃(burning bush) .....	116
<b>18.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4(행 8:1-13)/119</b>	
스데반의 순교 .....	119
빌립 전도자의 활동(1) .....	120
사마리아 교회 창립 .....	122
<b>19.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5(행 8:14-40)/125</b>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강림 .....	125
빌립 전도자의 활동(2) .....	126
사도행전에서의 회심체험의 과정 .....	128
<b>20.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6(행 9:1-31)/131</b>	
사울(바울)의 성장 .....	131
사울(바울)의 개종 .....	132
사울(바울)의 발탁 .....	134
<b>21.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7(행 9:32-43)/137</b>	
베드로의 순회사역의 의미 .....	137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서 .....	138
성도의 삶에 잇대어서 .....	140
<b>22.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8(행 10:1-48)/143</b>	
기도시간에 찾아오는 응답 .....	143
정(淨)한 것과 부정(不淨)한 것 .....	144
가이사랴 교회의 설립 .....	146
<b>23.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9(행 11:1-30)/149</b>	
설교시간에 찾아오는 응답 .....	149
위기는 곧 기회 .....	150
바나바의 인품과 믿음 .....	152
<b>24.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10(행 12:1-25)/155</b>	
헤롯 왕가의 인물들 .....	155
교회성장의 역설 .....	156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인 .....	158
<b>25.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1(행 13:1-12)/161</b>	
선지자들과 교사들 .....	161
모험에의 도전 및 선교전략 .....	162
제1차 선교지역(1) .....	164

<b>26.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2(행 13:13-52)/167</b>	
새 여호수아서: 새 언약 백성의 강력한 진군 .....	167
제1차 선교지역(2) .....	168
바울의 첫 설교 .....	170
<b>27.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3(행 14:1-28)/173</b>	
유대교 회당: 황금어장 .....	173
하나님 경외자들의 책무 .....	174
제1차 선교지역(3) .....	176
<b>28.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4(행 15:1-21)/179</b>	
구원의 의미: 유대교 .....	179
구원의 의미: 기독교 .....	180
율법과 복음의 갈등 .....	182
<b>29.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5(행 15:22-41)/185</b>	
사도총회의 결정 .....	185
사도총회의 판결문 .....	186
누가의 역사기록의 신뢰성 .....	188
<b>30.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6(행 16:1-10)/191</b>	
제2차 선교여행팀 .....	191
가장 위대한 유산 .....	192
강력한 진군(Forceful Advance) .....	194
<b>31.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7(행 16:11-40)/197</b>	
빌립보 교회 설립 .....	197
그리스의 3만 신들과의 전투 .....	198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 .....	200
<b>32.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8(행 17:1-15)/203</b>	
데살로니가를 향한 진군 .....	203
데살로니가교회와 베뢰아교회 설립 .....	204
데살로니가 서신들 .....	206

<b>33.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9(행 17:16-34)/209</b>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 .....	209
아테네의 학파들 .....	210
바울의 설교내용 .....	212
<b>34.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10(행 18:1-4)/215</b>	
고린도를 향한 진군 .....	215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	216
바울의 인간적인 면 .....	218
<b>35.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1(행 18:5-17)/221</b>	
고린도교회 설립 .....	221
누가의 정치적 변증 .....	222
고린도 서신들 .....	224
<b>36.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2(행 18:18-28)/227</b>	
소아시아를 향한 진군 .....	227
바울의 서원 .....	228
전도자 아볼로 .....	230
<b>37.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3(행 19:1-20)/233</b>	
에베소교회 설립 .....	233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의 개종 .....	234
바울의 도전(진군) .....	236
<b>38.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4(행 19:21-41)/239</b>	
땅 끝 선교계획과 에베소에서의 위기 .....	239
바울의 초기 서신들 .....	240
에베소 서신 .....	242
<b>39.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5(행 20:1-12)/245</b>	
에베소에서의 환란 .....	245
그리스교회들 순방 .....	246

일요일 예배와 내용 .....	248
<b>40.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6(행 20:13-38)/251</b>	
주일예배의 중요성 .....	251
장로직에 관해서 .....	252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서 .....	254
<b>41.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7(행 21:1-40)/257</b>	
거룩한 입맞춤 .....	257
예루살렘에로의 오름 .....	258
사도들의 고난의 행진 .....	260
<b>42.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8(행 22:1-21)/263</b>	
개종에 대한 바울의 진술 .....	263
예수님과의 만남 .....	264
바울의 회심체험 .....	266
<b>43.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9(행 22:22-30)/269</b>	
로마제국의 시민권 .....	269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	270
새 언약 백성의 시민권 .....	272
<b>44.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10(행 23:1-35)/275</b>	
공회에서의 진술 .....	275
단검단원들의 살해모의 .....	276
바울의 가이사라 호송 .....	278
<b>45.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1(행 24:1-27)/281</b>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 .....	281
바울에게 덮어씌워진 죄목 .....	282
바울의 변호 .....	284
<b>46.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2(행 25:1-27)/287</b>	
바울의 구금기간 .....	287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 .....	288
헤롯 아그립바 2세 앞에서의 재판 .....	290
<b>47.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3(행 26:1-32)/293</b>	
바울의 부활신앙 .....	293
바울의 열정 .....	294
바울의 거짓 없는 믿음 .....	296
<b>48.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4(행 27:1-26)/299</b>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바울 .....	299
위기를 예측한 바울 .....	300
위기에서 빛난 바울 .....	302
<b>49.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5(행 27:27-44)/305</b>	
살림의 일을 행한 바울 .....	305
살림의 생각을 했던 바울 .....	306
생명의 주를 믿었던 바울 .....	308
<b>50.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6(행 28:1-29)/311</b>	
몰타 주민에게 복이 된 바울 .....	311
로마에 도착한 바울 .....	312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	314
<b>51.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7(행 28:30-31)/317</b>	
사도행전의 기록목적 .....	317
사도행전이 제시한 과제 .....	318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 .....	320
<b>후기: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323</b>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	323

## 1. 구원사역의 점진적 연속성(눅 24:47-53, 행 1:1-5)

### 하나님께 잇대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맺은 언약에서 보듯이, 신인관계를 언약관계로 설명한다. 신인관계가 크고 작은 언약들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 언약관계는 항상 '위로부터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사랑으로 친히, 항상,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서 은혜로써, 사랑으로써, 자비로써, 맺은 언약이다. 인간에게 무슨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죄와 허물을 피하지 못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는 배신자이다.

신구약성경 모두는 인류를 두 가계로 나눈다. 이 두 가계가 걷는 길은 각기 다르다.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다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을 걷는 가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다. 반면에 멸망의 길을 걷는 가계는 세상의 자녀들로서, 가인에게서 보듯이, 하나님한테서 떠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계와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지는 세상의 자녀들의 가계를 밝히고 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창 4:6)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계에 잇대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뿌리로 잇대고 있는 야곱까지의 가계는 주로 혈통보다는 신앙에 의한 것이고, 그렇다보니까 장남이 아닌 경우가 많다. 히브리민족은 인근의 타 민족들에 비해 역사가 짧았으나 영성에서는 월등히 우월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시공간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민족의 뿌리를 하나님에 잇대었다. 이 점에서 히브리인들의 위대함이 입증되었다.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그들이 강성해서도 아니고, 다수민족이어서도 아니고, 뛰어난 문명을 이뤄서도 아니다. 인접한 국가들이 이룬 고대 문명들에 비하면 그들의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비록 그들은 출발이 많이 뒤쳐진 약소국이었고 소수민족이었으나 유일신 하나님에 잇댄 신앙만큼은 타국의 추종을 불허한 월등한 영성을 지녔으며, 토라(모세오경)를 읽고 쓰고 지키는 민족이었다.

유일신 하나님과의 언약이 민족단위로 나타난 최초의 글이 출애굽기이고, 그 언약의 말씀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 히브리민족은 국가명과 지명, 심지어 인명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 만들 정도로 신앙을 최우선시하는 민족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의 출범과 흥망성쇠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설명하였다. 그 언약이 시작된 과정을 밝힌 기록이 출애굽기이고, 그 내용이 가나안땅과 맞물려 있다.

그들은 떠돌이와 노예였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시는 대신에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로 언약하였다. 한 민족의 출현과 국토의 소유권을 유일신과의 언약으로 설명한 민족은 이스라엘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국가가 위협을 당할 때에도, 국토를 빼앗기고 떠돌이와 노예로 전락하여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의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다.

## 영원에 잇대어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역사상 하나님의 일반은혜를 가장 적게 누린 민족, 가장 불행했던 민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앙과 예배의 내용으로, 명절과 축제의 내용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연대의 끈으로, 교육의 내용

으로, 윤리와 도덕적 실천의 내용으로, 법과 질서의 내용으로까지 삶에 녹아내리게 하였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나라를 영속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이 믿음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희망의 노래로 애창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흑암과 혼돈과 죽음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빛과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으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 노예와 떠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선 주인공으로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사를 기록할 때 그들을 주인공이나 주어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 역사의 주인공과 주어로 썼다. 따라서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곧 그분의 이야기(His story)였음을 고백하였다. 예를 들면, 일반 역사가들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쓸법한 내용을 그들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고 독수리 날개에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사막을 통과케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적었다.

누가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전면에 항상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을 히브리민족의 광야생활을 이끈 구름기둥에서 확신했을 것이다. 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예시(豫示)와 예표(豫表)적 사건이었다고 보았을 것이다. 히브리민족의 출애굽사건, 광야생활, 가나안입성이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누가는 성령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져왔다는 특별한 통찰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히브리인들이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잇대어 있는 것이지, 돌연변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에 잇댄 역사관은 옳되, 영원에 잇댄 역사관에는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원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땅의 영속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영원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하늘 가나안땅에서의 영생을 말한다.

둘째, 하나님의 성령에 잇댄 역사관은 옳되, 성령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령은 인격체이신 성령하나님을 말한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에 잇댄 역사관은 옳되, 언약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완성으로 오해했고, 그로써 선민의식과 자기우상에 빠졌던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이 완성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으로 믿었다. 구약은 장차올 더 좋은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시와 예표였다.

## 성전에 잇대어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유대교의 완성이다. 이것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눅 24:53)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는 말씀의 뜻일 것이다. 누가의 지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담 이후 지속되어져왔고, 현재진행중이며, 먼 미래에까지 지속된다는 점과 바야흐로 그 패러다임이 바꿨다는 데 있다.

유다왕국이 바벨론에 패망한 주전 586년 이후 예언자들은 제2모세의 출현을 예언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제1모세시대를 옛 언약시대라고 불렀고, 제2모세시대를 새 언약시대라고 불렀다. 일부 유대인들은 오실 자 제2모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고, 십 수 년쯤 후에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행 11:26).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제2모세시대를 소수민족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시대가 아

나라, 민족성별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인류를 위한 새천년시대로 확신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렀고, 교회를 완성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땅에 잇대는 오름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새천년시대를 이끄는, 즉 하늘 가나안땅, 하늘 예루살렘, 하늘 시온 예로의 오름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역사하시는 계시와 능력 행함의 사역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땅의 소유권자임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과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임을 보증하고 인치는 중생사역의 주체이실 뿐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종말에 주어질 하늘의 참 평화를 맛보고 누리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뤄가게 하시려는 일을 하시려는 분으로 확신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임재 하시어 내주하시는 임마누엘로 확신하였다. 이 시대를 일컬어 기독교는 새천년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 복음시대, 종말론적 시대라고 부른다. 모두가 다 같은 뜻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문서로써 이 놀랍고 특별한 은총의 시대가 어떻게 출범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발전하여 갔는지, 또 그 전망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다.

이 놀랍고 특별한 새 언약시대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예배)”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증언한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회복운동의 내용이다. 제2모세의 출현에 대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로써 흑암과 혼돈과 죽음에서 회복되는 길이 회개라고 선포하였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회개가 선포되는 새 언약시대가 오순절 날,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오순절 날에 옛 언약을 체결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24:47). 이 일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신약의 출애굽기이다.

## 2. 구원사역의 점진적 연속성2(행 1:1-6)

### 이스라엘에 잇대어

사도행전 1장 1-2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누가복음에 관한 언급이다. 1절의 '데오빌로'(Theophilus)는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평범한 이름이지만, 누가가 그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데오빌로는 높은 직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출판비용을 부담한 후원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행전을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두 권의 책이 하나님의 공동체들의 출범과 발전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2모세이신 예수님은 제1모세에 잇대어 사셨다. 그러나 제1모세가 모형과 그림자 또 예시와 예표였다면, 제2모세는 제1모세의 실체와 완성이셨다. 제1모세의 중재로 구약공동체인 문자적 이스라엘이 출범하였고, 제2모세이신 예수님의 중재로 신약공동체인 영적 이스라엘이 출범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공동체들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많다.

두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구약공동체는 장차 올 더 좋은 신약공동체의 그림자, 모형, 예시, 예표였고, 신약공동체는 구약공동체의 완성과 실체이다.

두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회중이지만, 구약공동체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고, 신약공동체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같은 하나님의 회중이지만, 구약공동체는 모세의 율법(토라)을 언약의 내용으로 한, 소수 유대민족만을 위한 유대교를 신봉하고, 신약공동체는 예수님의 복음을 언약의 내용으로 한, 열방민족을 위한 기독교를 신봉한다.

두 공동체가 모두 가나안땅을 약속의 땅으로 확신하지만, 구

약공동체는 문자적인 팔레스타인 땅을 고집스럽게 희망하고, 신약공동체는 영적인 하늘 가나안땅을 소망한다.

두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안하고 불행한 지상에 속하느냐, 안전하고 행복한 하늘에 속하느냐, 그래서 문자적이냐, 영적이냐의 차이가 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에 잇대어 있다. 바뀔 말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에 잇대어 있지만, 유대교의 완성이란 점이 다르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모세가 전한 율법에 잇대어 있지만,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문자적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늘과 땅이 나타날 때까지는 광야에 세워진 잠정적인 나라요, 순례중인 나그네의 천막생활이다. 더욱이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한 육체 속에 머물기 때문에 온 우주와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불안정한 상태로 살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출애굽 후에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했듯이, 죄악의 권세로부터 탈출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성령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5절이다.

### 신명기의 고별설교에 잇대어

사도행전 1장 3-5절의 말씀은 모세가 임종직전에, 가나안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남긴 고별설교에 잇대어 있다. 임종직전에 남긴 설교와 축복이 모세와 예수님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공동체의 지도자나 족장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유훈을 기록에 남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 복음서 저자들은 모세가 신명기서에 남긴 고별설교에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잇대었다. 대표적인 저자가 요한이다. 그는 복음서 후반부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실었다. 모세와 예수님이 모두 임종직전에 설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땅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시대를 눈앞에 둔 계약 공동체들이었다. 이 두 공동체들은 막 하 지도자들을 떠나 보내야할 위기상황에 놓여있고, 임박한 투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보상의 말이 담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였다.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의 족장들은 인접한 국가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또 언약들을 어떻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과 경고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공관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서의 예수님의 고별설교는 신명기만큼 길지 않다. 그리고 이 짧은 고별설교는 3절에서 보듯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후, 승천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모세가 사망 후 부활한 사실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몽소승천을 믿었다. 죽은 후 시신을 찾지 못했으므로 승천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간은 히브리민족의 광야 40년 생활을, 승천하시고 열흘 후인 오순절 날에 이뤄진 성령님의 임재는 모두 출애굽사건에 잇대어진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출애굽사건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 모두 이들 공동체들에게 새천년시대를 여는 중대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4-5절의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히브리민족이 출애굽 직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율법(토라)을 받고,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오순절 날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새천년시대를 활짝 개방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를 바라만 보시고 들어

가지 않았으며, 이 새로운 천년시대를 개방할 자들로 제자(사도)들을 임명하셨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가나안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신명기서에 남긴 세 차례의 설교들에서 여호수아를 포함한 족장들에게 가나안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위해 새천년시대를 활짝 열 것을 명령하였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가나안땅의 족속들을 능히 물리치게 도우실 것이므로 두려워말고 떨지도 말라고 당부하였다.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과 그것을 차지한 후에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오히려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언약을 준수하라고 당부하였다. 결론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세의 이 당부를 잘 지켜내지 못했고,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공동체인 기독교를 세우셔야 했다.

### 예언자들의 회복운동에 잇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절에서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은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회복운동의 내용을 말한다. 이것들에는 세 가지가 있다. ‘메시아의 출현’, ‘성령으로서의 세례’, ‘이스라엘의 회복’(사 44:3; 겔 36:25-27; 요엘 2:28-29)이 그것들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으로,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입니까?”라고 여쭙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 세 가지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예언의 성취로 선포한 글이고, 사도행전은 남은 두 가지, 즉 ‘성령님으로서의 세례’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 글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었다. 모든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해방자)와 빼앗긴 가나안땅의 주권회복을 고대하였으나,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사건과 성령님의 임재사건을 체험한 이후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로 특징 지워진 마지막 시대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시작된 종말),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의 희망은 주의 재림의 때로 연기되었으며(미래 종말), 그 조차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5절에 언급된 '성령으로 세례'(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요 14:26-27; 15:26; 행 1:4)는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와 구별된 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말한다. 이것, 즉 성령님으로서의 세례는 내적이고, 개인적이며, 우주적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성령님의 은사는 증거적이고, 공적이며, 제한적이고, 봉사(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를 위한 것이다. 오순절 날 사도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으로서의 세례'와 '성령님의 은사'를 모두 체험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시대를 성령님의 시대로 만드는 것은 인격체이신 성령님이시지,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다. 성령님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신약시대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 속에 포함된다. 성령님의 은사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써 신약시대를 만드는 특징이 되지 못한다.

신약시대를 이끄시는 성령님은 특정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히시는 사역도 하시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땅의 소유권자임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임과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임을 보증하고 인치는 중생사역을 주요 업무로 하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종말에 주어질 천국의 평화를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면서 점진적

으로 성화를 이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입니다.

### 3. 구원사역의 점진적 연속성3(행 1:7-11)

#### 성령님에 잇대어

문자적 가나안땅시대를 개방할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신 31:23). 영적 가나안땅시대를 개방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하나님은 단수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라고 말씀하신 반면, 예수님은 복수로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뤄졌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계시와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회중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내주 동거는 없었다. 이스라엘은 회중 전체가 민족 신앙으로 대를 이어 연대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국한되었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내주 동거할 필요가 없었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 왕, 예언자와 같은 소수의 지도자들이 계시와 영감과 능력을 덧입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구약시대의 구원개념은 영혼구원이나 천국에서의 영생과 같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가나안땅에서의 복이고 육체적이고 문자적인 복이다. 이런 점에서 구약시대에 성령님의 역사는 ‘On-dwelling’의 역사였다. 여기서 ‘On-dwelling’이란 겉으로 덧입음(도구화)을 말한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로서 이교인들과 이교문화 속에서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리

스도인들 개개인에게 임재 하셔서 내주 동거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In-dwelling’ 혹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In-dwelling’이란 내주 동거를 말한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과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의 차이점이다.

이 맥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선물로써의 성령님의 In-dwelling를 말한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너희가 권능을 받고”는 성령님의 선물로써 각종 은사로써의 성령님의 On-dwelling를 말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는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구원사역, 즉 중생과 성화를 위한 성령님의 내적사역이고, 주의 일군들에게 능력과 은사들을 덧입히심은 구원사역 또는 복음사역을 하도록 도구화시키기 위한 외적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님의 내적 임재와 함께 외적 능력까지 덧입히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증인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그들에게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고, 교회를 창립하며, 신약성서를 기록하게 하였다. 그들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따른 것은 그들 개인의 내적 영적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공적으로 외적으로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 가나안땅 정복에 잇대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히브리민족의 가나안땅 정복에 잇대어져 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히브리인들이 광야시대를 끝내고, 요단강을 건

너 가나안땅에 들어갈 때, 주인이 없는 땅에 조용히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쟁취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가나안땅에 사는 부족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메뚜기 콤플렉스를 갖게 할 만큼 막강하였다. 가나안땅을 정탐했던 열두 명의 족장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면 열 명의 족장들은 그들의 견장함에 비해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하였다.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지 않았고 현실의 높은 벽에 짓눌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고,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상황이 그리스도인들한테서도 펼쳐졌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세계정복이었고, 문자적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100퍼센트 성취되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300년 동안 열 차례 정도 대 환란이라고 일컫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그 엄청난 시련을 극복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후 392년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대로마제국을 통째로 바꿔서 그리스도의 교회시대를 열었다.

이 새롭고 놀라운 새천년시대의 출범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불법종교로써 탄압을 받던 작은 신앙공동체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가톨릭’(우주적, 보편적) 교회라는 호칭을 문서에 등장시키고, 이 호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인물들이 있었다. 동시대에 태어나 같은 시기에 죽었던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 히포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 동로마제국의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그들이다. 이 시기에 교부시대가 끝나고 중세시대가 시작되었다. 기독교가 탄압을 받던 박해시대가 끝나고 국교시대가 열렸다. 이 시기에 신약성서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제국이 망하고 하나님의 도성(神國, De Civitate Dei)이 열린 종말론적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렇다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나안시대를 연 히브리인들이 배도로 인해서 주권을 상실한 것처럼, 기독교의 중세시대 또한 배도로 인해서 암흑시대가 되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대로마제국의 멸망, 영광의 탈출로 가나안시대를 연 이스라엘왕국의 붕괴, 극심한 박해를 이기고 연 중세시대의 배도에서 보듯이,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안주하는 순간부터 그 개인과 공동체는 고목처럼 속이 썩게 된다. 히브리인들의 광야시대는 가나안땅이란 종말(희망)을 바라보는 시대였다. 동시에 광야시대는 하나님의 세키나(구름기둥)가 인도하던 이동성막교회 시대였다. 가나안땅 정복을 향한 종말론적 희망과 나그네의 이동을 멈춘 개인과 공동체, 세키나의 인도를 상실한 개인과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속이 썩게 되어있다.

### 예녹, 모세, 엘리야에 잇대어

9-11절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재림이란 두 번째 임재를 말하는 것으로써 잠정적이거나 일시적인 임재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임재를 뜻한다. 그러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7절에서 보듯이, 우리의 알바가 아니다. 과거의 사건들에서 볼 때, 재림의 때와 시기를 언급한 자들치고 이단자가 아닌 경우가 없었다. 그러므로 신천지집단을 경계해야 한다. 인간이 어떻게 재림주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어떻게 144천명뿐이겠으며, 그들이 또한 대한민국 사람뿐이겠는가?

예수님의 승천사건은 예녹, 모세, 엘리야사건에 잇대어져 있다. 반면에 재림은 예수님한테서만 일어날 사건이다. 구약성서에도 승천사건이 있지만, 재림에 관한 말씀은 없다. 제2모세의 출현도 모세의 재림과는 관련이 없다. 모세는 제2모세에 대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신 18:15)란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제2엘리야의 출현도 엘리야의 재림과는 관련이 없다. 예수님은 말라기 4장 5절의 제2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씀하셨다(마

11:14). 더구나 예수님께는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없는 신성이 있었다. 하늘로부터의 재림은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혹은 “위로부터” 재림하실 것이란 믿음은 유대사상에 잇대어져 있다. 유대인들은 계시적 사건이 다 “위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에 이들 용어들이 도합 50여회 정도 나온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간 천국운동을 펼치신 것은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이후 40년간 광야를 순례했던 것에 잇대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홍해를 건넌) 후 영혼승천 때까지 순례자(제자)의 삶을 살아야한다.

승천을 희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에녹, 모세, 엘리야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져 있다. 성경에서 승천하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들이었다. 에녹은 이스라엘민족의 직접 조상은 아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영웅들이다. 히브리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여 가나안땅으로 인도한 모세는 죽은 후 시신이 승천하였다는 몽소승천설의 주인공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바알숭배에서 건져낸 엘리야는 불 수레와 불 말들 사이에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에녹처럼 산 채로 승천하였다(왕하 2:11). 반면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승천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승천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승천 후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한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모든 사람이 죽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늘 가나안땅에 들어가 왕 노릇할 것을 교훈한다. 하늘 가나안땅을 향하는 자들은 광야를 순례하는 자들이다. 순례자들은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빌 3:12)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모든 순례를

마치고 숨을 거두려는 순간뿐이다(요 19:30).

#### 4. 구원사역의 점진적 연속성4(행 1:12-26)

##### 예수님의 기도습관에 잇대어

사도행전 1장 12절의 '감람원'은 올리브나무가 심겨진 산을 말한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습관처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곳 감람산에서 노숙하셨다(눅 21:37, 22:39). 체포되시기 직전 금요일 밤에도 이곳 겐세마네 동산에서 생사를 놓고 기도하셨다(마 26:30-36).

감람산에 가기 위해서는 성전 동편의 황금문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한다(요 18:1). 기드론 골짜기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다. 메시아의 심판이 이곳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언(율 3:2, 12, cf. 왕하 23:6)되어 있고, 메시아가 황금문을 지나 승천한다는 민간설과 마호메트가 황금문에서 승천하여 코란을 받았다는 설도 있어서 유대교인,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모두가 이곳을 묘지로 쓰고 있다.

누가는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곳 감람산을 예수님의 승천장소로 밝혔는데, 이 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지트이기도 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도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누가는 그곳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에 있다고 적었다. 광야시대에 언약궤와 이스라엘 회중 사이의 간격은 2,000큐빗이었다(수 3:4). 랍비들은 이 거리를 안식일 법을 범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범위로 해석하였다. 그 거리가 900-1000미터쯤 된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걸어야할 사람들이 있었다. 사방 900-1000미터마다에 기도회장소(회당)를 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도회를 열기 위해서는 13세 이상의 남성 가장 열 명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900-1000미터쯤 걷고 난 후에 잠시

쉬었다가 또 걷도록 한 것이었다. 안식일에 거리제한을 둔 이 해석법은 수없이 많은 안식일계명의 울타리 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1:12)는 안식일에는 처소에 머물고 나오지 말라는 계명(출 16:29)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만든 울타리 법이다. 랍비들은 광야시대에 언약궤와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2천 큐빗의 간격을 띠우라는 명령에서(수 3:4)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유추하였다. 유대인들은 이 거리를 대충 960미터로 본다. 이 법에 대한 다른 해석을 보면, 자기 집으로부터 2천 큐빗이 아니라, 도성의 경계, 좀 더 정확히는 성각에서 34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부터 일직선으로 광야를 960미터 이상을 가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이 해석은 집들이 촘촘히 서있는 도시에 적용되지 않고, 2천 큐빗 반경 이내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 이 법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말한다.>

13절에 “저희가 유하는 다락”이란 말이 나온다. 예수님의 남녀 제자들이 머물던 장소를 말한다. 2천 년 전 보통 유대인들의 집 다락은 식사, 잠자리, 손님접대에 사용되었던 2층(복층)을 말한다. 과연 이 다락방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 위해 모인 장소와 동일한 곳인지, 120여명이 모여 제비뽑기로 사도를 추원했던 장소인지(15절), 오순절 날 성령강림이 있었던 곳인지(2:1),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곳인지(12:5), 무엇보다도 이 장소가 마가의 집 2층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답을 주지 않는다. 마가와 친분이 있었던 누가조차도 이곳이 마가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13-14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다른 물음, 즉 과연 이 다락방이 기도장소였는가를 묻게 한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100여개의 ‘베라카’(기도문)를 낭송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대

인들은 성전제사 대응으로 ‘쉐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라 불리는 18개의 ‘베라카’를 하루 세 번 정해진 기도시간에 낭송하였고, 기도회를 갖는 장소는 주로 회당과 성전 뜰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은 오늘날의 기도회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유대인들의 기도습관에 잇대어

14절의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다. 사도행전 1장은 아직 구약시대의 상황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오순절 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범되고서도 반세기 정도의 과도기, 유대교에서 기독교어로 넘어가는 전환기,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건너는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한쪽 발을 유대교에 담고 있었다. 하물며 아직 교회시대가 열리지 아니한 예수님 승천 직후부터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의 열흘 사이에 있었던 제자들의 행동들을 기독교의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누가는 그 시간을 ‘삼시’(오전 9시), ‘육시’(정오), ‘구시’(오후 3시)로 적고 있다. 특히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저녁 희생이 드려지는 시간이었다. 유대인들이 하루 세 번하는 기도회의 목적은 성전제사 대응으로 ‘쉐모네 에스레이’를 낭송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후 85년경에는 이 18개의 기도문에 회당에 잔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파문시키려고 “이단을 공격함”이란 제목의 기도문을 12번째에 추가시켰다. 기독교도 이에 질세라, 주기도문을 하루 세 번 암송하도록 권면하였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의 쉐모네 에스레이의 암송에 잇대어져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전혀 기도에 힘썼다.” 유대인들은 고대 때부터 ‘쉐마’(Shema)라 불리는 성구(신 6:4-9, 11:13-21, 민 15:37-41)를 매일 아침과 저녁

기도회 때에 낭송해왔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18개의 '쉐모네 에스레이' 기도문을 매일 아침과 오후와 저녁 기도회 때에 낭송해왔다. 그밖에도 먹고 마시기 전후, 새 옷을 입을 때, 손을 씻거나 촛불을 밝힐 때, 소식을 접할 때, 행사 때, 예루살렘의 축복과 재건, 메시아의 출현,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대한 찬양 등 하루에 100여개의 '베라코트'를 낭송해왔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룹기도가 원칙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들은 “나”란 단수 대신에 “우리”란 복수로 되어있다. 이런 형태의 단체기도는 서로를 위한 책임과 운명을 함께 지는 공동체란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개인 활동이기보다는 단체 활동이다. 유대인들이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최소인원은 13세 이상의 유대인 가장(家長) 10명이다. 유대인들은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을 기도문을 외우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 본다. 그래서 10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서는 기도회로 모이지 않는다. 이 기도의 정족수를 '민안'(minyan)이라고 하는데, 이 민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도회나 신앙 활동들이 수행될 수 없다. 이런 민안의 요구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기도회를 열기 위해서는 모여야 했다. 유대인들이 지난 2,600여 년간 떠돌이와 노예로 살면서 갖가지 핍박과 탄압을 받았지만,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를 이뤄 민족성을 지켜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회당중심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습관 또한 유대인들의 기도습관에 잇대어 있었다.

### 성전예배와 열두지파에 잇대어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곳을 큰 다락방으로 본다(막 14:15, 눅 22:12). 그리고 이곳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이층 방(upper room)이라고 못 박아 말한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말하는 큰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던 곳이었지, 그곳이 마가 요한

의 집이었는지, 1장 13절의 “저희가 유하는 다락”이었는지, 1장 15절의 “약 백이십 명”의 제자들이 모여 제비뽑기로 사도를 추천한 장소였는지, 2장 1절의 오순절 날 성령강림이 있었던 곳이었는지, 12장 5절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지 않는다.

마가와 친분이 있었던 누가조차도 이곳이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숙했던 다락방과는 별도로 제자들의 모임장소로 성전의 솔로몬행각을 여러 차례 지목하여 말하였다(눅 24:53; 3:11; 5:12). 이런 점에서 120여명이 모여서 제비뽑기로 사도를 추천했던 장소,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장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장소 등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3절의 유숙장소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당일의 일이었고, 15절의 120여명에 대한 언급은 “그 무렵에”(표준새번역) 즉 승천하신 당일(40일째 날)과 오순절 날(50일째 날)을 제외한 41일째와 49일째 사이의 어느 한 날이었다. 이 두 장소가 동일한 장소란 보장은 없다.

둘째, 제자들은 기도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였고, 집회장소로 성전의 솔로몬 행각을 이용하였다. 누가는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고”(눅 24:53), 오순절 당일 아침 9시 기도시간에 성전에 모였을 때 위로부터 내리는 강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으며(행 2장), 오순절 날 이후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행 2:46),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기”(행 5:21) 때문이다. 여기서 성전은 솔로몬 행각을 말한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고”(행 3:11),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행 5:12)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독교 집회가 주의 만찬 예배의 예표인 성전예배에 잇대어 있다는 증거이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언급된 '사도'란 '보냄을 받는 자'란 뜻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3:17; 6:57),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으며( 28:19-20; 행 1:8), 사도들은 주의 종들을 파송하였다. 또 이 사도전통을 계승한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22절은 사도의 기능을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을 증언하는 일로 말하고 있다. 이 사도들의 증언이 교회의 기초이고(엡 2:20), 이들의 증언과 전통이 신약성서에 담겨 계승되고 있다(고전 11:2; 살후 2:15; 3:6). 이들의 증언이 확실하고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들의 손으로 이뤄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었다(2:22; 왕상 17:24; 고후 12:12; 롬 15:18; 살후 2:9; 히 2:4). 이런 중요한 역할 때문에 제자들은 집회를 열고, 두 사람을 호 천하여 제비뽑기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맞디아를 뽑았다.

## 5.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1(행 2:1)

### 유대교 구약체결에 잇대어

오순절 날의 사건은 구약체결에 잇대어져 있다. 히브리인들이 지상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이 날은 히브리인들의 성력으로 셋째 달(시반) 6일이었다. 첫째 달(니산) 보름날(첫 유월절)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죽음을 모면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출 12장) 한 달 후에(이야르 15일) 신 광야에 당도하였다. 이곳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하였다(출 16장). 그리고 보름 후에 시내 산에 당도했는데, 이 날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45일 째가 되는 셋째 달(시반) 초하룻날이었다. 그리고 5일간의 준비 끝에 이집트탈출 50일째 되는 첫 오순절 날(시반 6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치렀다(출 24장). 이 때 지키기로 한 율법이 구약이다. 이 율법은 둘 판에 새긴 십계명을 비롯해서 총 613개에 달했다. 이것들이 기록된 책이 토라라 불리는 모세오경이다. 오경에 잇대어 실린 역사서들과 끝부분을 장식한 예언서들은 토라에 기초해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성찰한 글들이고, 역사서에 잇대어진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성문서들은 토라에 기초한 기도서와 교훈서들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경전 전체가 토라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우리는 이를 구약(옛 언약)성서라 부른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공동체를 세우신 날도 오순절 날이다. 이날 아침 9시경 기도시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고, 비슷한 시각에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였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실 자 메시아로 믿고, 회개하고, 공

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개종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범하였다. 이것이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에 최초로 체결된 새 언약식이었다. 이후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관계없이, 이 절차를 밟으면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히브리인들이 첫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민족단위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 그 후손들은 할례나 성인식과 같은 민족의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유대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주후 30년 오순절 날 첫 복음이 선포된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개별적으로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 받을 수 있고, 공개적 신앙고백이 필수조건이므로 침례식은 새 언약체결식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례식 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한 복음(케뤼그마)에 기초한다. 모세의 글에 옛 언약의 내용인 율법이 담겼듯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새 언약의 내용이고, 사복음서에 실려 있다. 사복음서에 잇대어진 나머지 글들은 이 복음에 대해설이거나 이 복음에 기초한 교회공동체의 믿음과 실천을 성찰한 글들이다. 이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들은 새 언약인 복음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신약(새 언약)성서라 부른다. 다만, 구약이 지상 가나안땅을 목표로 삼는다면, 신약은 하늘 가나안땅을 목표로 삼는다. 구약이 유한한 땅에 관한 것이라면, 신약은 영원한 땅에 관한 것이다.

### 유대교 유월절 사건에 잇대어

시내산에서 첫 오순절 날 치러진 언약식은 첫 유월절 날 희생된 어린양들의 피와 홍해를 도보로 건넌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샘물을 마셨다. 어린양들의 피와 홍해도하가 없었다면, 언약식도 없고,

만나와 반석의 샘물도 없다. 그러나 이들 사건들은 모두 장차 올 사건의 그림자와 예표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출애굽사건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 받음으로, 광야에서 먹고 마신 만나와 반석의 물을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주의 모형과 예표로 설명하였다.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에 치러진 언약식은 4월 7일 유월절 날에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피와 부활(침례)사건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사건이 없었다면, 이후의 언약식인 침례도 주의 만찬도 없다.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사건들은 모두 구약사건들의 원형이자 실체들이다. 예수님은 유월절식사를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고전 11:23-25).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마치 첫 유월절양의 희생처럼,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동굴 무덤에서 부활하십시오으로써 죽음의 바다를 건너셨다. 또 히브리인들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렀던 것처럼, 또 홍해를 건넌지 40여일(탈출 45일)만에 시내 산에 당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직후 열흘간은 교회공동체가 출범을 준비한 기간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시내 산에 당도하여 5일간 계약식을 준비했던 것과 같다. 이처럼 오순절 날은 구약과 신약이 체결되고 구약공동체와 신약공동체가 출범된 매우 뜻 깊은 날이다.

첫 오순절 날 구약공동체(이스라엘)가 탄생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친히 강림하셨듯이,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신약공동체(기독교)가 탄생되던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구약이 짐승의 피로써 맺은 언약이었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써 맺은 언약이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히 9:12). 구약의 중보자가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히 9:15). 또 구약체결(출 24:1-11)이 신약체결(고전 11:25)의 모형과 그림자였으며, 장차 올 더 좋은 것에 대한 예시와 예표였다(히 10:1).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사건에 잇대어져 있다.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히브리민족의 구원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유월절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 유대교 오순절 날에 잇대어

오순절 날은 춘분이 지난 직후의 음력 보름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일요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일요일)을 말한다(레 23:1-16). 오순절 날은 이틀간 기념하는 축일로써 칠칠절, 추수절(밀 수확), 첫 곡식절(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침), 시내산 율법기념일 등으로 불린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해의 오순절 날은 주후 30년 5월 28일이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교회가 출범하였다. 이 날이 일요일이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일요일이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인들의 안식일(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에 모이지 않고, 일요일을 ‘주님의 날,’ 곧 ‘주일’로 정하여 모여 예배드렸다(20:7; 고전 16:2; 계 1:10).

오순절은 맥추감사절이다. 이 시기 이스라엘의 들녘은 막바지 밀과 보리 수확으로 농부의 움직임이 분주한 때이다. 이 절기를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이들도 키부츠 농부들이다. 농부들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쟁반에 담아 하나님께 가져간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시작됨으로 오순절 역시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된다. 이날 유대인들은 밤을 새워 토라를 배운다. 밝아오는 아침에 하나님의 계명인 토라를 새로 받기 위해서이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날을 시내산 율법기념일로 지키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날 일찍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워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자지 않고 깨워있는 관습을 갖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주전 1312년경에 시내산 기슭에 모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순절 첫날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과 그의 토라 계명과의 언약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회당에서 룻기를 읽는다.

룻기를 읽는 이유는 오순절 날이 다윗 왕의 탄생일이자 서거일이며, 룻기가 다윗의 증조부모인 룻과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 룻기는 추수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추수 절기에 읽기에 적절할 뿐 아니라, 룻이 온 마음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인 신실한 개종자였기 때문이며, 오순절 날 모든 유대인들이 토라와 토라의 계명들을 전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개종자의 의미를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맥추감사와 율법, 즉 육신을 위한 양식과 영혼을 위한 양식을 받은 날로 엄숙하게 지킨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 유대인들과 전국의 유대인들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찾는 대 명절이다. 유대인들이 이 날 육신을 위한 양식과 영혼을 위한 양식을 주신 날로 기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위한 양식과 영혼구원을 위해 성령님과 복음을 주신 날로 기념한다. 시내산 율법으로 유대교 공동체가 세워졌다면, 복음과 성령강림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다. 히브리민족의 구원이 유월절 날 희생된 짐승의 피로써 이뤄졌다면, 그리스도인

들의 구원은 유월절 날 희생당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피로써 이뤄졌다. 구약의 목표가 지상 가나안땅이라면, 신약의 목표는 하늘 가나안땅이다. 구약이 유한한 지상의 땅에 관한 것이라면, 신약은 영원한 하늘의 땅에 관한 것이다.

## 6.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2(행 2:2-13)

### 새 언약 백성의 새 시내산 사건

사도행전 2장 2-4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의 모습을 설명한 글이다. 오순절 날 아침 기도시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 온 집에 가득했으며, 불꽃(혀)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리고 모인 자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을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로 보면, 2장의 오순절 날 사건은 새 언약 백성의 새 시내산 사건이 된다.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한지 50일째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옛 선민이 되었다. 이 옛 시내산 사건은 첫 그리스도인들이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에 성전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새 선민이 된 사건의 예표와 그림자였다. 따라서 출애굽기 24장의 옛 언약 백성의 옛 시내산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새 언약 백성의 새 시내산 사건의 예표와 예시적 사건이다. 여기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첫째, 시내산과 성전은 둘 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였다는 점에서 같다. 그렇다고 시내산과 성전이 그 자체로써 신성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곳이 신성한 때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신 때이다.

둘째,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이 오순절 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점에서 같다. 옛 언약 백성은 시내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렸고”(출 24:4-6), 새 언약 백성은 기도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으로써 제단을 쌓았다. 유대인들이 기도시간에 낭송하는 ‘쉐모네 에스레이’는 성전 제사를 대신하는 기도이다.

셋째, 언약의 내용이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같다. 옛 언약의 내용은 율법(토라)이고, 새 언약의 내용은 복음이다.

넷째, 언약 백성들이 모두 서약을 했다는 점에서 같다.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 24:7)고 했고,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3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행 2:41).

다섯째, 옛 시내산 사건과 새 시내산 사건에 피 뿌림이 있었던 점에서 같다. 옛 언약 백성은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였지만,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가 언약의 피(고전 11:25)란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여섯째, 유대인들은 할례로 언약백성의 증표를 삼고, 성인식을 거쳐 계명의 자녀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개종침례를 통해서 언약백성이 된다.

일곱째,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출 24:17),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여덟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방언을 했다는 점에서 같다. 민수기 11장 17-25절을 보면, 히브리인들의 지도자 칠십 인이 일시적으로 방언(예언)을 했고, 사도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칠십 인에게 임한 방언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듯이, 사도들에게 임한 방언도 동일한 목적 때문이었다.

### 새 언약 백성의 새 안식일 사건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달리 오순절을 성령강림주일로 지킨다. 성령강림사건은 주후 30년 5월 28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아침 9시 기도시간에 성전에서 일어났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100개 정도의 베라코트를 암송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54개는 하루 세 번 정한 기도시간에 암송하는 ‘쉐모네 에스레이’라 불리는 18개의 기도문이다. 이 기도문은 성전에서 바쳐졌던 하루 세 번의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제사가 바쳐졌던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경에 암송한다.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도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므로, 아침 9시경 기도시간에 그들의 집회 장소였던 성전 동편 뜰 솔로몬 행각에 모여 이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하고 있었을 것이다. 성전에서의 기도는 뜰이나 행각에서 이뤄졌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반면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천지 창조와 부활의 공통점은 흑암에서 생명으로의 전환과 새 생명의 출발에 있다. 그러나 안식일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 형태로서 신약시대의 주일 예배의 모형 또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유대교가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완성되었듯이, 안식일 예배는 주일 예배 속에서 완성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안식 후 첫날’ 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여 ‘주일’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새 언약 백성의 새 안식일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둘째, 일요일은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은 안식 후 첫 날인 일요일이었다(레 23:1-26). 성령강림사건이 새 언약 백성의 새 안식일 사건이었던 것이다.

셋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교회가 창립된 날인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행 20:7; 고전 16:2; 계 1:10). 초대 교회 교부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성도가 모여 예배한 시간은 주일 새벽과 밤이었

다. 새벽과 밤에 모인 이유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이전까지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신자들의 상당수가 노예나 하류층이어서 낮 시간에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후 90년경에 쓰인 <디다케>에 의하면, 주일에 성도가 모여 주의 만찬과 감사를 드렸고, 이그나티우스(97년)와 바나바(70년대)도 그들의 서신들에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고 밝혔다. 특히 순교자 저스틴은 주일을 제8일째 날로 호칭하였다. 그렇게 호칭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난지 제8일째 날에 할례를 행하는 것에서 보듯이, 일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가 제8일째 날이기 때문이고, '예수'라는 이름이 갖는 헬라이어 알파벳의 숫자 값이 완전을 뜻하는 세 겹 수 '888'이기 때문이며, 노아홍수 때 구원받은 8인과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던 것에서 보듯이, 8이 넉넉한 구원과 복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 새 언약 백성의 새 이스라엘 사건

오순절 날은 주후 30년 5월 28이었고,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었으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후, 온 집에 가득했고, 불꽃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날은 전국에서 몰려온 히브리파유대인들뿐 아니라,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해외에서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누가는, 성령님께서 만드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외국말소리가 났을 때, 이것을 당사자인 제자들과 거의 동시에 의식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디아스포라유대인들이었다고 말한다. 누가의 관심이 이들 디아스포라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때문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복음을 이방세계로 중개할 가교(架橋, bridges)였기 때

문이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울, 바나바, 스테반, 빌립 등이다.

여기서 '디아스포라'란 '흩어진'이란 뜻이고, 타의(노예)든 자의든 팔레스타인 밖에서 거주하게 된 유대인들을 말한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제국시대였지만, 여전히 헬레니즘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헬라과유대인이라고 불렀다.

성령님께서 만드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외국말소리가 낮을 때, 이것을 당사자들인 제자들과 거의 동시에 의식했던 사람들은 로마제국 전역의 16개국 이상에서 모인 디아스포라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적어도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아라비아어,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데모틱어(이집트어) 등이었다.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것을 듣는 도다”고 한 말씀에서 보듯이, 디아스포라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여러 외국어들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랐고 신기해했으며, 당황해하면서 소리가 난 곳으로 몰려들었다.

첫째, 제자들이 제 각기 외국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들”에 대해서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설교였을 것이다. 여기서 제자들이 말한 것은 분명 외국어였지, 신령한 방언이 아니었다.

둘째, 유창한 외국어로 설교하는 자들이 모두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놀랐다.

셋째, 디아스포라유대인들은 제자들의 설교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라 당황해했다. 또 이런 신기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가 궁금해졌다. 심지어는, 13절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해장술을 마시고 취한 자들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 주변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설교집회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 날의 방언이 이 설교집회를 열기위한, 즉 새 이스라엘의 출범을 위한 도구로써 나타난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16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었고, 복음을 듣고,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

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그 후폭풍이 어떠했을 지를 상상해 보라. 사도행전은 그 일부 곧 중심부에서 벌어진 일들만, 그조차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담았을 뿐이다.

## 7.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3(행 2:14-36)

### 사도행전: 여호수아서에 잇대어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로서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때부터 동행했던 선교사였다. 누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돌무덤이 터키의 고대도시 에베소에서 발견되었다. 그가 기록한 책으로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이 두 권은 같은 제목의 책 1,2권이다. 학자들은 이 두 권을 일컬어 곧잘 '누가문서'라고 부른다.

누가복음은 출애굽기에 잇대어져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제2출애굽기 또는 새 출애굽기라고 볼 수 있다. 제1모세의 실체 또는 새 모세 혹은 참 모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유월절 날의 희생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의 삶은 히브리민족의 구원자 모세의 삶에 잇대어져 있다.

사도행전도 출애굽기에 잇대어져 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라고 볼 수 있다. 히브리민족의 영광의 탈출과 가나안땅에로의 오름을 위한 광야순례에서 보듯이, 새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하늘 가나안땅에로의 오름을 위한 광야순례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이다.

또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출범과 확장이란 측면에서 여호수아서에 잇대어져 있다. 여호수아서가 칼로써 가나안땅을 정복한 역사서라면, 사도행전은 복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한 역사서이다. 여호수아서가 히브리민족의 나라를 세우려고 지상 가나안땅을 확장시켜나간 역사서라면, 사도행전은 온 인류를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확장시켜나간 역사서이다. 이런 점 때문에 사도행전은 여호수아서에 잇대어져 있다. 공통점

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호수아서가, 모세가 세운 초석위에, 여호수아를 포함한 부족장들이 이스라엘의 집을 지어간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세운 초석위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 이야기이다.

둘째, 여호수아서가 모세의 명령을 받은 그의 후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의 후계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정복한 이야기이다.

셋째, 여호수아서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이를 가로막는 가나안땅의 원주민들과 펼친 전쟁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이교문화와 정치세력들과 영적으로 펼친 전쟁 이야기이다.

넷째,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친 아간의 제거를 기록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속임으로써 교회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친 아나니아부부의 제거를 기록하였다.

다섯째,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을 인정한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과 기생 라합과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록한 것처럼, 사도행전 또한 복음을 수용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록하였다.

여섯째, 여호수아서는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국가 탄생을 기록한 반면, 사도행전은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의 나라의 탄생을 기록하였다.

일곱째,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앞세워 펼치신 구원의 역사란 점에서 서로 잇대어져 있다.

### **베드로: 여호수아에 잇대어**

베드로는 여호수아에 잇대어져 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제자로서 히브리인들의 열두 부족을 위해서 최초로 가나안땅의

시대를 열었다. 히브리인들의 가나안땅 정복은 여호수아서 1장 10-15절에 실린 여호수아의 설교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이후의 이야기는 가나안땅 정복에 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도 사도행전 2장 14-36절에 실린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영적 가나안땅의 시대를 열었다.

여호수아서 1장 10-15절이 여호수아의 최초의 설교내용이듯이, 사도행전 2장 14-36절은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내용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범을 알리는 최초의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된 것은 베드로가 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들)를 받았기 때문이고(마 16:16-19), 예수님이 놓으신 기초위에 첫 돌을 놓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자격을 얻게 된 것은 그가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이다. 그 신앙고백이 바로 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베드로의 설교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선포한 것에 불과하다. 베드로의 설교뿐 아니라, 이후에 선포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설교도 또한 이 믿음을 선포한 것이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준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담긴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오순절 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뤄진 것이었다는 점이다. 15절은 성령강림이 일어난 시간이 유대인들의 제 삼시 곧 아침 9시경이었음을 말해준다. 이곳이 성전 뜰이었음은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성령강림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몰려드는 인파로 입추의 여지가 없는 오순절 날, 아침 기도시간, 예루살렘 성전 뜰이었다는 점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효과를 거두시려고

계획하신 사건이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하루에 삼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던 예비교육을 다 마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병을 고치는 등의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집결시켜 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가 오실 자 메시아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표적이 일어났다.

넷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과 성령강림 사건(방언 말함)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었다.

다섯째,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촉구였다. 그러나 방언 말함이 수천여 명씩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한 엄청난 것이었지만, 성령을 받으라는 설교내용은 없었다. 성령님은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 베드로의 설교: 구약성경에 잇대어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성경에 잇대어져 있다. 가롯 유다의 자살 (1:15-26)이 응보란 점을 밝히기 위해서 다윗의 탄원시인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묶어서 인용하였고, 예수님의 부활 (2:25-28)과 승천(2:34-36)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즐거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는 자의 즐거움을 노래한 다윗의 찬양시편 16편 8-11절과 110편 1절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강림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뭇과 메뚜기 때로 인해서 몹시 고통을 겪던 유대민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 요엘 2장 28-32절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인용구들에 대한 랍비들의 문자적인 해석은 사도들의 영적인 해석과 많이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랍비들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모두 유대민족을 위한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반면,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누가를 빼고,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의 예언을 모두 열방민족을 위한 영적인 의미, 곧 예수님에 관한 예표와 그림자로 이해하였다.

둘째, 구약예언자들은 자기 민족에게 회개가 필요한 현재와 회복이 필요한 장래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가 전해준 구약 즉 율법에 잇대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이 전해준 신약 즉 복음에 잇대었다. 이 복음의 틀이 구약을 예표와 모형으로 보는 것이었다.

셋째,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 27절의 전반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를 다윗 당시의 문자적 상황에서 이해한다면, “내 생명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며”가 될 것이며,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보존을 말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 당시의 헬레니즘상황에서는 “생명”(soul)을 영혼으로, “음부”(Hades)를 죽음(영혼)의 세계로, 후반부의 “주의 거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님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22-36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베푸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22절)과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33절) 부어주신 오순절 날 성령강림이 그 증거란 것이다.

베드로는 17절에서 자기 시대를 “말세”로 인식하였다. “말세”란 메시아의 때, 곧 더 좋은 새 천년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이란 뜻이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이후의 시대, 곧 우상숭배의 나라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새 천년시대였듯이, 세례 요한, 예수

님, 사도들이 모두 내다봤던 새 천년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언약의 내용)을 고백하고, 침례(그리스도의 피 뿌림)를 받아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이 되는 교회시대를 말한다. 교회개혁가들이었던 16세기의 마르틴 루터, 츠빙글리, 칼빈, 19세기의 알렉산더 캠벨, 발톤 스톤 등도 새 천년시대를 바라본, 즉 자기 시대를 말세로 본 자들이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혁명을 꿈꾼 자들은 모두가 새 천년시대를 바라본, 즉 자기 시대를 말세로 본 자들이었다. 이처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광야를 순례하듯,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종말론자이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헛소리 말세론이나 종말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론을 믿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새 천년시대를 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말론자들이 되어야 한다.>

## 8.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4(행 2:37-47)

### 새 언약 백성의 새 이스라엘

사도행전 2장 37-41절은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범했는지를 보여준다.

37절은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들이 취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묻는 구절이다.

38절은 베드로의 대답이다. 베드로는 세 가지를 더 주문하였다. 죄를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표준새번역, 공동번역)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한 것이다. 38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는 어떤 오순절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만(2:38, 8:16, 10:48, 19:5)으로 침례를 베푸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에서 침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애로의 개종을 뜻한다. 그래서 이 침례를 ‘그리스도인침례’라고 부른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침례’는 세례 요한의 ‘회개침례,’ 동시대 옛세네파의 ‘정결침례,’ 유대교의 ‘개종침례’와 구별된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약속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는 유대교인과 구별된다. 그리고 성령님

의 임재와 동행의 일차적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분의 나라의 시민이며,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을 보증하는 인감과 선수금의 역할이다.

39절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총을 입는 사람의 숫자에 제한 없다는 것, 거저 주신다는 것,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신다는 뜻이다.

41절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침례 받는 이 다섯 가지 과정을 거쳐, 죄 사함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오순절 날 하루에만 3천여 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인류 최초인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의 창립멤버였다는 말씀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만 추가로 믿으면 개종침례를 받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렇더라도 이들 3천여 명이 베드로로부터 단 한 차례의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고, 하루 동안에 얻어진 결과를 말한다.

사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침례를 베풀었던 경험자들이었다(요 4:2). 사도가 아닌 제자들도 100여 명이나 있었다. 또 당대 예루살렘에는 실로암 못, 베데스다 못, 성전 산 저수조, 히스기야 못, 뱀의 못, 마미라 못, 이스라엘 못, 스트루티온 못, 비르켓 시티 미리암 못을 비롯해서 10개 이상의 큰 못이 있었다. 이밖에도 100여개의 의식용 연못이 있었는데, 발굴된 것만 48개나 된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3천여 명이 하루에 침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 새 언약 백성의 새 예배(1)

사도행전 2장 42절은 신생 새 언약 백성의 새 이스라엘이 어떤 내용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예배의 원형이며, 우리가 소위 '정경'이라고 말하는 사도전

통이다. 여기에 언급된 것은 “사도의 가르침(설교),” “교제,” “떡땀” 그리고 “기도(찬양)”이다.

새 언약 백성의 새 예배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재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예배로 표현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떡땀” 곧 주의 만찬예배로 표현된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요 1:14)는 의미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연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교회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사도의 가르침(말씀)”과 “떡땀(주의 만찬)”이 복음을 운반하는 두 가닥의 선로라면, “교제(헌금)”와 “기도(찬양)”는 선로를 떠받치는 침목들에 해당된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동일하게 중요한 동등한 요소들이다. 같은 것에 동일한 것들은 서로 같다 (Things that are equal to the same thing are equal to each other)는 기하학에 따른 것이다. 사도들이 어느 것을 더 힘쓰고 어느 것은 덜 힘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동일하고 동등하게 힘썼던 예배의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예배순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예루살렘 사역에서 완성되듯이, 말씀예배는 주의 만찬예배에서 완성된다. 이 형식의 주일 예배가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의 원형이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자주 하면 경건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의 만찬을 매주하면 너무 흔해빠진 것이 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예배를 자주 드리면 경건성이 떨어지고, 예배를 매주 드리면 너무 흔해빠진 것이 되는가? 매주일 설교하면, 매주일 헌금하면, 매주일 찬양하면, 매주일 기도하면, 매주일 봉사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고, 너무 흔해빠진 것이 되는가? 동일한 기도문을 매일 세 번하는 유대교인들의 기도는 경건성이 떨어지고, 너무 흔해빠진 것이 되는가? 주기도문을 매일 세 번 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경건성이 떨어지고, 너무 흔해빠진 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은 자주 할수록

성도에게 유익한 경건의 훈련이 된다. 오히려 주의 만찬이 예배에서 소홀히 취급되면, 그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져 카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는지 모른다.

유대인들은 회당모임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기도회라고 말한다. 성전에서 바치는 제사만이 예배인 까닭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하루 세 번 성전에서 바치던 제사를 대신할 기도문(베라코트)을 만들었다. 그것이 '쉐모네 에스레이'인데 하루 세 번 모이는 기도회 때 낭송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의 만찬이 빠진 그리스도의 교회모임은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배신학자들의 주장이다. 매주일 행하는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희생을 대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예배의 본론에 해당된다.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상황에 따라서 새벽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예배를 드렸고, 일과 후 저녁에 다시 모여 "떡 썬"예배를 드렸다. 이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자들이 참여할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는 의식이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은 입교인만이 참여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침례를 받기 위해 학습 중인 신자들은 "떡 썬"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

### 새 언약 백성의 새 공동체 정신

43절은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 또는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이 무렵에 나타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배이후,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떠나고, 바벨론제국이 침략하여 성전을 능욕함으로써 하나님의 세키나(계시, 영광)가 떠난 이후 6백년 넘게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위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므로, 오순절 날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또 교회가 이제 막 출범한 신생 공동체이므로 사람들이 박해를 두려워했다고 보긴 어렵다. 사도들이 큰 능력을 행하고 있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움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며(이 현상을 “기사”라고 한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공동체에 합류하는 자들이 많아졌을 것이다(이 결과를 “표적”이라 말한다).

44-45절은 신생 그리스도의 교회공동체가 유무상통(有無相通)했다는 기록이다. 당대 사해근처에는 콤란공동체와 옛세네공동체가 있었다. 그들은 집단생활을 했고, 모든 것을 유무상통했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사회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 허락되지 않았고, 통제와 엄격한 규율에 묶인 유대교공동체였다. 그렇지만, 교회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였고, 정상적인 일상생활 중에 기도회 시간에 모이는 공동체였다.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는 유무상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2천년의 교회사 속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영감을 받아 추진된 공동체운동이 수없이 펼쳐졌었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속성상, 욕망과 욕심에 절여진 본능의 속성상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마르크스-레닌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국가들이 혁명 이후 70여년 만에 모두 붕괴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도시대의 유무상통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에게서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가 워낙 강했고, 이를 본 사람들이 경외감, 신비감,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은 새 언약 공동체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창립과 새 언약 법인 신약성서기록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모세시대 이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의 강력한 외적 능력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던 것과 같다. 이후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권능이 나타난 것은 위기에 빠진 북왕국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유무상통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구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은 이후 체계적인 구제(자선)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46절은 솔로몬 행각에서의 기도모임과 애찬에 관한 내용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세 번 기도회 시간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뜻이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는 애찬을 통한 친교를 말한다. 이 애찬은 나중에 주님의 만찬의식으로 단순화되었다.

47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천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칭찬을 받기에 충분했으며, 이로 인해서 교회가 나날이 부흥되었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부흥의 길이 없다는 것을 교훈한다.

## 9.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5(행 3:1-10)

### 새 언약 백성의 새 예배(2)

유대교인들은 수천 년째 평일에 세 번, 보름날과 축일과 안식 일에는 4번 이상 시간을 정해 기도한다. 누가는 그 시간을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로 못 박아 말하였다. 복음서저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시간과 흑암이 엄습한 시간을 각각 오전 9시와 3시 및 정오로 기록하였다. 첫 번째 기도회가 열린 오전 9시는 성전 문이 열리는 제3시를 말한다. 해가 뜨지 3시간째란 뜻이다. 두 번째 기도회는 오후 3시, 즉 해가 뜨지 9시간째에 열렸는데 성전에서는 저녁희생이 바쳐지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이 갖는 기도시간과는 조금 다르다.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은 해가 뜨면 바로 아침기도회(Shacharit:아침)에 참석하는데, 이 기도회가 가장 길다. 오후기도회(Mincha:제물을 바침)는 해가 뜨고 지는 중간시간 즉 정오와 해가 지는 시간사이인 오후 3시경에 드려진다. 저녁기도(Ma'ariv)는 해가 저문 다음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다. 저녁기도는 오후기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녁기도를 위해서 회당에 나갈 의무는 없다고 한다. 탈무드에서는 이 저녁기도회가 희생제사와 무관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후 70년 이후에 추가되었다고 전한다.

유대교인들의 기도문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유배됨으로 인해서 성전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당기도회를 위해서 작성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주후 70년 유대-로마전쟁에 패한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이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회당기도회는 과거 2천 년간 더욱 굳어졌다.

야훼를 모신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허용되었다. 성막이나 성전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법궤)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 특권은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고, 그것도 대 속죄일 하루에만 허용되었다. 그것조차도 예루살렘봉괴와 유배당함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지자, 랍비들은 13세 이상의 유대교인 남성들에게 의무적으로 기도문을 낭송하게 하였다. 예전부터 자유로운 개인기도와 묵상기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 뼈아픈 상황은 유대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예배가 유대교예배와 많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있다. 그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대교예배에서는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예배에서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있다.

둘째, 유대교예배에서는 성전제사를 기도문으로 대신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예배에서는 성전제사를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희생을 주의 만찬으로 기념한다.

셋째, 성전제사는 주후 30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고서도 40년간 더 지속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당대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중보와 짐승으로 바치는 성전제사와 기도문만 낭송하는 회당예배에 흠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수난을 통해서 성전제사를 단번에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또 그분을 통해서 누구나 차별 없이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히 4:16) “새로운 살 길”(히 10:20)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았다.

### 새 언약 백성의 새 예배(3)

이로써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차이점은 더욱 명백해졌

다. 유대교인들의 회당예배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역할도 없고, 희생제사도 없는 단순한 기도회일 뿐이다. 유대교인들도 이 점 때문에, 비록 그들이 성전예배를 대신해서 기도문을 낭송하지만, 그들의 모임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회라고 부른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교회모임이 예배인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단 한번으로 영원히 완성시킨 희생제사, 곧 성전예배의 원형인 주의 만찬을 행하기 때문이다. 성전제사는 주의 만찬예배의 예표요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많은 예배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말씀과 기도(찬송)만 있는 기도회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ordinance)이고, 주님께서는 영으로써 예배 중에 함께 하신다.

이점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예배는 가톨릭예배와도 다르다. 가톨릭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사를 바치는 성례전(sacrament) 예배이다. 미사를 집전하는 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대리자'와 '제사장' 혹은 줄여서 '사제'라 부른다. 그리고 그들을 부제, 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으로 구별하여 부른다. 가톨릭예배가 이렇게 발전된 이유는 대외적으로 이방신전들에서처럼 제물이 없다보니까 이방인들이 신전도 없고 제물도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예배를 무신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의 만찬을 무용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런 부작용이 가톨릭예배를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제사예배로, 집례자의 성찬기도 직후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성체신학(화체설)을 만들어냈고, 평신도 장로들이었던 목회자들을 사제로 발전시켜 부제, 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으로 계급화 시켰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일컫고 있다(벧전 2:9).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신성한 이름아래 높고 낮은 계급은 없다. 모

두가 하나님의 식구이며, 일군이기에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말은 기능뿐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분(히 2:17),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히 4:14),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대제사장(히 4:15),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히 6:20),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히 7:26), “단번(단 한번)에 자기를 드려” 속죄를 이루신 분(히 7:27),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히 8:1),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단 한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신 분(히 9:11-12)이시다.

### 새 언약 백성의 위대한 삶

“나면서 못 견게 된 사람”이 견고 뛰게 된 이 엄청난 사건에서 우리는 병든 상태와 건강한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첫째, “나면서 못 견게 된 사람”은 병든 상태를, 그의 내민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견게도 하고 뛰게도 한 사도들의 건강한 상태를 보여준다.

둘째, “나면서 못 견게 된 사람”은 미문(美門)에 앉아 구걸하였다. 미문은 유대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전영내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이방인과 부정한 사람이 미문을 통과하면 사형에 처해졌다. 미문에 들어서자마자 여성의 딸이 있었고, 이 딸을 통과하면 13세 이상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스라엘의 딸이 있었다. 계명의 아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번제단과 성소를 바라

보며 기도할 수 있었다. 사도들도 이곳에서 기도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셋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신성한 영내를 출입하는 유대인들에게 구걸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를 일으켜 세워 구원시킨 것은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다.

넷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영내에 들어가 기도할 수 없는 성(聖)과 속(俗)의 경계에 놓인 사람이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분명 유대인이었지만, 장애인이자 죄인이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지만, 이 사건을 영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무지’라는 족쇄에 묶여 어둠 속에 갇힌 죄인에 비교된다. 반면에 사도들은 그를 어둠에서 끌어낸 지혜에 해당된다. 장애인은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했지만, 율법에 매인 유대인들은 그에게 동전 몇 닢을 던져 주었을 뿐, 그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 그의 문제를 해결한 이들은 정작 은과 금을 갖지 못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장애인도 손을 내밀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도 손을 내밀었지만, 목적이 달랐고, 내민 손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달랐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애인의 내민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장애인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7-8절).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으며, 성령님 때문에 아직도 광야 길을 순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는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복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희망의 증거가 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삶의 목적을 찾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며, 온 힘으로 일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제의 추억이 있고, 오늘의 행복이 있으며, 내일의 희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향기 가득한 온기가 있고, 자비 가득한 은총이 있으며, 행복 가득한 미소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위대성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유이다. 빛과 생명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살림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위대한 이유이다.

## 10.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6(행 3:11-26)

## 솔로몬 행각

성서에서 말하는 '이사'(異事) 혹은 '기사'(奇事)란 놀람이란 뜻이다. 앓은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11절에서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달려 나온 곳은 여성의 딸과 이스라엘의 딸에 있던 유대인들이다. 이 기적을 관측한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누가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쏠려 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다. 솔로몬 행각은 미문과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이방인의 뜰 동쪽 끝자락 헤롯 성벽위에 세워졌으며,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회랑이었다. 솔로몬 행각에서 기도한 골짜기를 내려다보거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겐세마네 동산과 승천하셨던 감람산을 조망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 행각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각별한 장소였다.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었다. 이름의 유래는 솔로몬이 이곳에 큰 홀을 짓고(장 22.5미터, 폭 13.5미터), 그곳에서 재판관을 한테서 비롯되었다. 이곳은 율법사들이 모여 문답을 하던 곳이었다. 누가는 이미 복음서 2장 46절에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고 소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솔로몬 행각을 말한 것일 수 있다. 또 요한은 복음서 10장 23-38절에서 성탄절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에 닿는 그러나 서로 맞물려 있는 유대인들의 빛의 축제(수전절) 때 예수님이 이곳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설전을 펼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더욱이 누가는 본문 11절에 더해서 5장

12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적고 있다.

누가가 이처럼 솔로몬 행각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앞에서 언급된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솔로몬 행각을 언급할 때 초대교회 당시 지배적 철학이었던 ‘스토아’(stoa)가 연상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스토아’란 ‘주랑’ 또는 돌기둥을 뜻하는 말로써 강렬한 햇살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회랑 또는 행각을 말하며, 주로 이런 회랑에서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문답교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참고로 스토아철학은 자연을 세계의 정신으로 보는 범신론이자, 제우스까지도 운명에 지배된다고 믿었던 숙명론이다.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유교의 칠정(七情)에서처럼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에 무감정 무관심할 것과 불교에서처럼 욕심을 버려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12절부터 26절까지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내용이다. 앓은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놀랜(기사)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집회가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효과가 있었다. 유대인들은 ‘위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기다렸기 때문에 표적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신약성서에 “하늘로부터”란 말이 39번이나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절호의 기회를 예수님을 높이는데 활용하였다. 앓은뱅이가 일어선 것은 사람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계시적 사건이라고 담대히 밝혔다.

### 조상의 하나님

13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유대인들의 신앙고백적인 표현으로써 이방인 누가의 사도행전기록에 신뢰성을 높이는 표현이다. 또 “그의 종 예수”에서 ‘종’은 노예란 뜻이 아니라 예언자란 뜻이다.

모세오경에 '조상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12회 정도 나온다. 그만큼 '조상의 하나님'은 유대민족의식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다. 하나님은 급조되었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신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이란 뜻이다. 아버지가 믿었고, 할아버지가 믿었고, 증조부가 믿었고, 증조부의 할아버지가 믿었고,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믿었고, 믿었고, 믿었고, 믿었고.... 이렇게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이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오직 유대민족의 신이란 뜻을 담고 있다. 선민이란 그런 배타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대인들이 타민족을 이방인이라 부른 이유는 타민족에게는 신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널린 게 신이었고, 그 숫자가 3만이 넘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뛰어난 유대인들의 영성이 발현되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극복해야만할 위험한 배타적 사상이었다.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베드로의 설교에 담긴 메시지가 바로 그들의 신사상이었다. 율법이란 족쇄에 묶여 참 빛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두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다. 바야흐로 하나님이 새 언약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언,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선언, 그래서 새 언약백성이 되는 데는 민족성별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다는 선언, 이 위대한 선언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담겨 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신앙과 전통은 새 언약백성인 우리 기독교인이 세워나가야 할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이요 힘겨운 과제라는 점, 우리가 어떻게 이 유산을 자손대대에까지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담겨 있다.

사도행전은 이 위대한 유산의 지평을 넓혀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이 오랜 역사와 완고한 전통 속에 있던 유대교를 뛰어넘어 어떻게 기독교시대라는 새천년 시대를 열었

능가를 보여준 이야기이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유대인의 구원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지평을 넓혀간 이야기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고 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라고도 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라고도 했다. 일찍이 유대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파격적인 선언이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말한 내용이라고 했다.

### 최초의 신앙고백

베드로의 설교는 신앙고백이었다. 13-15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이,” “생명의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로 고백되고 있다. 2장 22-36절의 첫 설교에서도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분, “부활”하신 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으로 고백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 재림주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도들은 고백된 내용의 목격자(증인)들이었다(2:32, 3:15). 목격자로서의 증언은 사도들의 직무였다(1:8,22).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의 설교는 증언이었다. 따라서 설교는 신약성서에 실린 사도들의 증언을 전달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둘째, 앳은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

로, “그 이름” 때문에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16절) 때문이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구원 또는 구세주란 뜻이 아니던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다.

셋째, “회개하고 돌이켜...죄 없이 함을 받아야...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19절), 그 때까지, 곧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21절)고 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 곧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보좌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19-21절이 후천년설을 암시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회개와 죄 사함이 먼저 있고난 다음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재림과 함께 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을 목격한 5세기 초의 어거스틴과 역으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 신대륙에서 신앙의 자유를 바탕으로 새천년시대를 기대했던 19세기 초반의 알렉산더 캠벨이 이 후천년설을 복음전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들은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때가 임할 것이다(사 11:9)라고 믿었다.

다섯째, 22-23절은 신명기 18장 15-19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제2모세 즉 그리스도시오,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하셨다고 믿었다. 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24절)는 말씀은 초대교회가 구약 성서를 예수님 중심의 영적인 해석 또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했다는 증거이다.

여섯째, 25절은 유대인이 “언약의 자손”인 것은 확실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한테까

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26절은 모든 족속이 복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종”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옛 언약시대를 닫고 새 언약시대를 여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새 언약백성이 되는 절차를 새로 받으라는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는 예수님의 설교와 같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사상을 담는 새 부대가 되는 방법이다.>

## 11.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행 4:1-12)

### 최초의 기독교 탄압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최초의 기독교 탄압을 언급하면서 곧바로 믿는 자의 수를 계명의 아들들을 기준으로 오천 명이나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 기술은 하나님의 섭리가 기독교복음전파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보여주려는 누가의 역사기술방법이다. 누가는 탄압이, 1장 8절의 주제대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몰아가는 물리적 추진력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의 첫 언급 장소가 4장이다. 이후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히브리파(국내파) 유대인 기독교에 관한 기술이며, 박해도 동족인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받는다.

복음의 발전이 탄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실제로 인류사의 발전도 시련이 가져온 결과였다. 인류는 늘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그것은 오로지 시련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따라서 꿈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겪어야 할 시련이 남아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스로마 신화가 보여주는 헤라클레스와 제이슨 같은 영웅들의 삶이 그랬고,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이 그랬으며,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사도들의 삶이 또한 그러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솔로몬 행각은 앓은뱅이가 고침을 받은 미문과 마주한 성전 뜰 동쪽 끝자락에 있었지만, 성전 뜰 남쪽 끝자락에 건립된 왕의 행각과 직각(⌋) 형태로 붙어있었다. 그리고 왕의 행각의 오른쪽 코너에 산헤드린공회당이 있었다. 성전에는 치안을 담당한 레위인 군졸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내 공회에 보고되었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보고를 듣고 달려온 담당 직원들이었다.

여기에 언급된 제사장들은, 당번 때만 와서 봉사하고 돌아가는 일반 제사장들이 아니라 성전에 상주하는 직원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유대지방은 로마총독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나 군대가 없었다. 따라서 유대인 최고위직은 정치인이 아닌 종교인인 대제사장이었다. 당연히 그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 다만, 로마는 유대인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성전치안만큼은 레위인들이 맡도록 허락하였다. 군졸이 400명쯤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대의 책임자가 ‘성전 맡은 자’였고,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벼슬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앞에 언급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를 모두 포함한 정치종교집단이다.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집권세력이었고, 헬라주의자들이었다.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여 문자적으로 읽었다. 따라서 오경에 실린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제사의식,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반면, 오경에 없는 내세, 부활, 영적세계, 천사와 마귀 등의 존재는 믿지 않았다. 또 이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이것이 최초의 탄압이었다. 그러나 탄압은 복음의 불씨를 흩어뜨려 불이 번지게 하는 효과,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는, 그래서 전 로마제국으로 번져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불은 로마라는 통일제국, 헬라어라는 공용어, 알렉산더와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와 항만과 항해술의 발달이라는 준비된 환경 속에서 지중해연안 세계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갔다.

## 산헤드린 공회원들

얏은뱅이가 고침을 받은 시간은, 3장 1절에 의하면, “제 구 시기도 시간”이었다. “제 구 시”는 해가 뜬지 9시간 쯤, 대략 오

후 3시경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경 해가 진후부터 새 날이 시작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을 때, “날이 이미 저물었고,” 그 날의 공무가 종료되었으며, 새 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공회의 심문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것은 앓은뱅이가 고침을 받고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3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이유는 2절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지, 앓은뱅이가 고침을 받아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앓은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부활증언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만들었다.

밤 시간이 지나고 낮 시간에 산헤드린공회가 소집되었다. 이들은, 5-6절에 의하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었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법정으로써 ‘산헤드린’(Sanhedrin)이라 불렸다. 구성은 70-72명으로 이뤄졌고, 모세의 70인 장로에서 유래하였다. 의장은 대제사장이었다.

대제사장의 권한은 일 년에 하루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산헤드린 의장을 맡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당국이 임명한 꼭두각시였다. 대제사장이 한 명뿐이어야 하는데도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언급된 것은 로마가 합법적으로 임명된 안나스를 끌어내리고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꼭두각시로 앉혔기 때문이었다.

이들 공회원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모세오경뿐 아니라, 구약성서 전체와 랍비들이 만들어 지키게 한 각종 율타리 법을 동일하게 정경으로 받아드리고 있었고, 신구약 중간기를 지배한 헬라시대의 영향을 받아 예정과 자유의지, 영혼 불멸, 몸의 부활, 영혼의 존재, 천사와 마귀의 존재, 사후 상벌, 성경의 영감설, 죽은 자의 미래, 인간의 평등을 믿었으며, 주로 원리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 치중하여 민중 속에 파고들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모든 정파와 종파들은 사라졌지만, 바리새파는 살아남아 오늘날의 유대교로 발전되었다.

공회원들 가운데는 대학자 가말리엘 1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유명한 율법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로서 예수님 공생애와 예루살렘교회 창립 초기인 주후 25-50년경에 활약했다. 그가 사도들에게 우호적인 변호를 했다는 사실이 5장 33-40절에 실려 있다. 그에게 동료내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과 요하난 벤자카이 및 가말리엘 2세였다. 이 가운데 바울은 유대교 기독교의 족쇄, 즉 율법주의자들의 지배에 매어있던 교회를 해방시켜 오늘의 이방인 교회로 발전시킨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사도가 되었고, 요하난 벤자카이와 가말리엘 2세는 예루살렘 멸망 직후, 로마의 허가를 받아 율바 남동쪽 20킬로미터 지점, 지중해 동쪽 6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야브네'(Japheth) 혹은 '얌니아'(Jamnia)란 소도시에 율법학교를 세워 성전을 대신할 율법중심의 유대교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생존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더 이상 탄압할 수 없게 되었다.

### 산헤드린 공회 청문회

얏은벱이 사건은 산헤드린 공회를 들썩거리게 만든 큰 사건이었다.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은 이 사건이 공회를 소집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불과 두어 달 전에 메시아 사칭, 신성모독, 성전모독, 혹세무민의 죄로 십자가에 처형했던 인물이 아닌가? 게다가 그들이 미문을 지날 때마다 보아오던 40대 얏은벱이 남성이 버젓이 걷고 있지 않는가? 불안하고 당혹스런 일이었다.

드디어 청문회가 열렸다. 그들은, 7절에서처럼, 물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흥분이 고조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예전의 어부가

아니었다. 예전의 약해빠진 겁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해 있었다. 반석(베드로)처럼 굳건한 믿음위에 서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거칠게 없었다. 8-12절은 베드로의 세 번째 공개설교 내용이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불구자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하는 경위에 관해서 심문을 하는데, 불구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예수는 집짓는 사람들 곧 여러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공동번역).

이 설교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고백이 담겨있다. 이 앓은뱅이가 누구의 힘으로 고침을 받았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집 모퉁이 돌로 쓰셨다. 그러므로 “이분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고침을 받은 앓은뱅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므로 앓은뱅이 사건은 오순절 날 방언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천국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돌을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건물의 모퉁이 돌

로 삼으셨다는 뜻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건축은 모퉁이 돌이 방향과 각도를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머릿돌보다는 커다란 주춧돌에 가까운 돌이다. 이 돌은 다름 아닌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말한다. 베드로가 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포한 내용을 뜻한다. 이 반석위에 자기를 세우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마 7:24-25).

## 12.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8(행 4:13-37)

### 새 출애굽의 희망(하티크바)

당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성들로 구성된 70인 공회에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심문을 받기 위해 섰다. 갈릴리 촌놈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은, 언감생심,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고, 말에 거침이 없었다. 앓은뱅이가 일어선 기적에 놀랐던 공회원들은 무식쟁이로 알았던 그들의 거침없는 언변에 또 한 번 더 놀랐다. 그들은, 14절에서 보듯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고” 또 일어난 표적을 부인할 방법도 없었다. 그들을 그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굳이 있다면, 18절의 말씀처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하는 정도였다. 공회원들이 앓은뱅이가 일어선 사건을 반길 수 없었던 것은 그 같은 희망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건은 그들이 누리는 세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고 한 말씀이 이를 증명한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시(세키나 영광)를 보지 못했다. 바벨론 유배이후 6백 년째 피압박 민족의 설움을 온몸으로 받으며 살았다. 그들 모두는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40년 세월을 앓은뱅이로 살았던 그 불쌍했던 사람의 신세와 같았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다.”는 말씀이 그런 정황을 말해준다.

앓은뱅이가 일어선 사건은 눈물과 한숨으로 고난과 역경의 세

월을 살아야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었다. 남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 버려졌던 ‘아세셀’을 위한 염소처럼, 조상들의 잘못을 온몸에 짊어지고 사막생활처럼 고달픈 삶을 살아야했던, 그래서 앓은뱅이처럼 제 힘으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일어설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으며, 뛸 수도 있다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티크바’(희망)를 보게 해준 사건이 바로 이 앓은뱅이 사건이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는 구절 속에 이런 암시가 숨어있다. 마태복음 1장의 40세대 족보에 숨어있는 암시와 같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는 이스라엘왕국의 출범과 절정기까지를 말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는 왕국의 쇠퇴기와 멸망까지를 말한다. 마태는 인간의 오랜 고독과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천년시대를 여셨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 속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것은 인간왕국이 멸망한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왕국의 개벽이었다. 그것은 노예와 떠돌이였던 유대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쟁취한 가나안 땅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지만, 다 빼앗긴 후 또 다시 예전의 노예와 떠돌이의 신세로 돌아간 다음에, 그들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짝 여신 그리스도왕국의 출범이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범이었다. 이것이 앓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이다.

###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

19-20절에서 보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응수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비단 그들만의 것이 아니

라, 새천년시대를 꿈꾼 모든 사람들의 담대함이기도 하였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교황청 대사 카예탄 추기경의 심문을 받는 자리에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문에 내건 면죄부 남용을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하였다. 목숨을 담보한 투쟁이었다. 1518년 10월 12-15일의 이 심문에서 추기경은 루터에게 면죄부를 승인한 교황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루터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위는 교황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로부터 3백년 후인 1807년 10월 27일, 토마스 캠벨은 "신조들과 신앙고백서들의 권위는 인위적이다."라고 가르친다는 비난을 장로회로부터 받고 1808년 2월 9일, 이렇게 해명했다. "믿음의 주제는 사람의 영혼이고, 믿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믿음의 규칙과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시며, 믿음의 목적은 용서와 수용과 도움과 은혜와 영광이다." 1808년 9월 18일 장로회를 탈퇴한 후에 토마스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Where the Bible speaks, we speak;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

이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 땅에서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다. 이 박해로 일가족이 순교를 당한 가문이 있었다. 이 집안이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네였다. 조카인 정하상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변증서인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작성하였는데, 그는 이런 변증을 하고 있다.

지위에는 높낮음이 있고 일에는 중하고 가벼운 것이 있으니 집안의 아버지가 가장 중하나 집안의 아버지보다 높은 이가 나라의 임금이요, 나라 안에서 임금이 가장 중하나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이는 천지의 큰 임금입니다. 집안의 아버지의 명을 듣고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아니 하면 그 죄가 무겁습니다.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고 천지대군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 죄는 더욱 커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주를 받들어 섬김이

임금의 명령을 일부러 어기려는 것이 아니요 부득이 한데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들어 부모와 임금을 업신여긴다 함이 옳은 말이옵니까?

모세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것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명령을 거부한 것도, 다니엘이 황제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던”(6장:10) 것도 다 같은 맥락, 즉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5:29)는 개혁가들의 일관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4:19)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다.

### 유토피아 공동체

32-37절은 가장 이상적인 신앙공동체, 그러나 지속될 수 없는 유토피아에 관한 말씀이다. 그것이 지속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이어지는 5장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행하는 큰 권능으로 인해서 32절에서처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1971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시골에서 농사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관제 잡지였던 <새 농민>을 틈틈이 읽었던 기억이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협동조합의 창시자였던 로버트 오웬의 삶을 다룬 짧은 전기였다. 유년기에 오웬이 집을 떠나 고생했던 이야기며, 협동조합을 만든 과정 등에 매료됐었다. 그 덕분에 오웬은 내 의식 속에 살아남게 되었다. 10여년 후 미국에서 환원운동을 공부하던 중에 그가 19세기 종교개혁가 알렉산더 캠벨과 만나 토론을 펼쳤던 도시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무신론자요,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씩씩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유년기에 부모와 사회로

부터 버림을 당했던 한 “외로운 이리”가 무신론의 대부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이 “외로운 이리”는 내 의식에 살아남아 늘 나에게 “외로운 이리”처럼 씩씩하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무신론자였고, 환경결정론자와 사회주의자였던 것에 작은 파동이 내 마음에 일었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오웬은 1825년에 미국으로 건너와 인디애나 주 뉴하모니(New Harmony)에 유토피아 공동체를 세워 성공시킨 후에 전 세계를 세속 국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다. 그가 꿈꿨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통제된 인간사회였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므로 철저하게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고, 아이들을 종교적 미신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공동체 실험은 2년도 지나지 않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오웬과 오웬과 운동의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방어해볼 테면, 한번 방어해 보라는 식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래서 당대의 뛰어난 지성이요 토론자였던 알렉산더 캠벨이 오웬과 미국 오하오 주 신시내티에서 1829년에 만나 주일을 뺀 8일간의 격론을 펼쳤다. 그러나 오웬은 캠벨의 반론에 답변을 하지 못한 채, 환경결정론을 지지하는 12개의 “인간 본성의 기본법들”만을 반복해서 설명할 뿐이었다. 결국 캠벨은 신의 존재를 존재론적 방법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1200여명의 방청객 가운데서 오직 세 명만 뺀 나머지 모두의 지지를 받아냈고, 이로써 그의 명성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식 인간 공동체는, 그것이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삼는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지적한바와 같이 인간의 연약함, 육체의 약함, 육체의 죄의 성질, 본능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나마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창립 초기에 있었던 강한 성령님의 역사, 즉 사도들의 손으로 행해지는 놀라운 능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일시적인 현상은 제2,3의 바나바와 같은 사

람들에게 자선단체의 필요성을 일깨웠고, 심지어 국가의 복지정책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 13.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9(행 5:1-16)

#### 새 예배전통

사도행전 4장 32-35절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고” 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배고픈 사람이 없었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 된 경위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주후 30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창립되고 100년쯤 지난 때에 사마리아에 저스틴이란 사람이 태어났다.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로마에서 교회교사로 섬기다가 주후 168년 경에 순교하였다. 그는 150년경에 로마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변증서>를 써서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하였다. 이 글 67장에 헌금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 소개한다.

재물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의향대로 그가 원하는 것을 내고, 모아진 것을 집례자에게 갖다 줍니다. 집례자는 이 헌물을 고아와 과부와 병이나 다른 이유들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나 나그네들에게도 나누어줍니다. 한마디로 집전자는 모든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 글은 사도행전에서의 유무상통이 100년쯤 후에는 주일 헌금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사도들을 대신해서는 집례자(장로나 감독)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변증서>에 따르면, 성서봉독, 설교, 기도로 이어지는 제1부

말씀의 예배가 있었고, 이어서 인사(평화의 입맞춤), 봉헌(빵과 물이 희석된 포도주), 성만찬기도, 응답(아멘), 분병과 분잔, 헌금으로 마치는 제2부 주의 만찬 예배가 있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방식과 별 차이가 없고, 이 예배 전통이 2천년 동안 지켜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36-37절과 5장 1-11절의 말씀은 예배의 두 가지 형태, 즉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혹은 병든 상태와 건강한 상태를 보여준다. 바나바의 경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벨의 예배, 건강한 상태로 소개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가인의 예배, 병든 상태로 소개되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려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금을 내는 사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 18세기 말의 유명한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마음의 끌림(감동)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고마워서 하는 행동보다는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에 나타난 문제점은 끌림 동기 때문도 아니고, 의무동기 때문도 아닌,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 때문이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아니한 헌금을 굳이 무리하게 행한 것은 명예욕과 경쟁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나바는 모든 것을 다 바친 후에 교회의 일군이 되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바쳐버리고 나면 생존에 위협이 따를 것으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숨겼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제 뭇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다.

## 새 성령이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모형은 아간의 사건에 있다.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이스라엘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친 아간의 제거를 기록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속임으로써 교회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친 아나니아부부의 제

거를 기록하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성령이해에 대한 중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 때문에 성령님의 인성이나 메시아의 신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도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여호와증인들은 성령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있고, 메시아의 신성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이 사도들 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을 자칭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첫째, 3절 “성령을 속이고”는 성령님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과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며 느끼시고 교제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9절 “주의 영”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세 가지 성령님이해는 유대교의 성령이해와 확연히 다른 내용이였다. 유대인들이 성령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 또는 힘으로만 알았던 것에 비하면, 엄청 달라진 내용이였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교회를 속인 것은 성령님을 속인 것이며, 성령을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며 꾸짖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훼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2장 31-32절에서 경고하셨다. 히브리서 저자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지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경고하였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보건대, 성령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초월적인 신이시다.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영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시다. 시작된 때가 없고 만들어진 때가 없으며, 영원 전부터 영존 하시는 영이시다. 그러나 다른 영들, 이를테면,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들은 시작된 때가 있고, 만들어진 때가 있는 영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하지 못하며, 제 위치를 지키지 않았던 마귀의 영들은 멸망 받게 된다.

성령님은 인간처럼 인성을 가진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다. 성령님은 지적인 활동, 감성적인 활동, 의지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랐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다. 성령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 새 이스라엘 공동체

5장 12-16절에 의하면,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상적이고 부흥하는 공동체였다. 거기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깨끗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보듯이, 악한 누룩이 기생할 틈이 없었다. 둘째, 푹푹 뭉쳤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회소인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힘썼다. 셋째, 유무상통했기 때문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4:32-35). 넷째,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다섯째,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돌봄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다.

2014년 초에 방영된 KBS 역사드라마 <정도전>은 여러 면에서 새 천년시대를 확장시켜가는 사도행전에 실린 역사드라마와 닮아 있다. 그러나 이상사회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 달랐다.

첫째, 민중의 눈물을 닦아줄 메시아가 필요했다. 14세기 후반 고려의 권력은 백성을 수탈하는 도구였고, 왕실은 간신들의 독무대였다. 외침으로 백성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했다. 이 상

황에서 고려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렸고, 장차올 더 좋은 세상을 희망하였다.

둘째, 난세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새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 공생애 때는 이미 6백년간 나라를 빼앗긴 채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지새우던 구약시대 말, 신약시대 초였다.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새 천년시대를 꿈꾸는 자들이 있었다.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초를 살았던 고려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중에는 이상사회를 실현시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정도전 같은 이들이 있었다.

셋째, 백성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실천으로 인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2:47, 5:13). 당연한 결과로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2:47).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배반하게 된다”(得其民心則服之, 不得其心則去之).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공은 백성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지만,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더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마 26:52)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혁명은 또 다른 혁명에게 자리를 내 주게 된다. 개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려고 한 정몽주는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혁명가의 칼에 살해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이상적 왕도정치를 표방하던 정도전은 강력한 왕권에 바탕을 둔 왕조국가를 만들려 한 이방원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정권을 손에 쥔 다음 이방원은 죽은 지 13년이 지난 정몽주에게 1405년에 영의정에 추증하고 익양부원군에 추봉하면서 문충(文忠)이란 시호를 내린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혁명이 완수되고 왕권을 공고히 한 시점에서 또 다른 혁명가나 이상가가 아닌 정몽주 같은 충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점에서 사랑과 평등의 복음으로 새 세상을 펼치려했던 예수님과 그분

의 제자들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 14.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10(행 5:17-42)

### 부활사건들의 체험

구약성서의 기반은 창조신앙이다. 히브리인들의 창조신앙 그 자체는 하나의 신비요, 뛰어난 영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히 11:3)고 말하였듯이, 믿음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20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신약성서의 기반은 부활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약성서의 기초이다. 특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란 토대에서 시작되었다. 사도행전을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면, 그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다. 이 기초위에서 잇따라 일어난 부활사건들이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된 사건이며, 16절의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 나음을 입은 사건이고, 19절의 옥문이 열린 사건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을 반복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의 자격도 부활을 상징하는 교회의식인 침례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활의 식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록 부활에 의한, 부활의, 부활을 위한 삶일지라도, 17-18절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시기를 받기도 하고, 매순간 뭔가에 묶이고 갇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옳음이 그릇에 갇히는 느낌, 양화가 악화에 밀려나듯이, 악한 세력에 밀려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19-20절에서 보듯이, 옥문이 열리는 부활사건체험이다.

부활사건들의 체험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에서 비롯된다. 부활 사건들의 체험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부활사건들의 체험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 이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신념에서 비롯된다. 이 점을 노래한 시가 구상의 ‘부활송’이다.

죽어 썩은 것 같은 매화의 등결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써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사건, 오순절 성령강림사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서 걷고 뛰게 된 사건, 옥문이 열린 사건은 우리가 바라고 믿고 참고 인내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17절에서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게”

된 원인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온통 사도들에게 쏠리면서 기독교 보수에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병고침의 능력과 부활신앙이란 측면에서 사도들의 권위는 상승한 반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의 권위는 추락하고 있었고, 민중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 점을 암시하는 말씀이 12-14절이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특별 방법의 역사와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방법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 역사란 통치, 기적, 계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반 역사란 조절, 섭리, 영감을 말한다. 통치, 기적,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것으로써, 천지창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성육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며,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 어떤 일의 발생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조절, 섭리, 영감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것으로써, 의사나 약의 도움에 의한 치유, 친구나 모르는 사람을 통한 기도의 응답과 같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아니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

성서가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세 단어를 함께 쓰고 있고(행 2:22; 고후 12:12; 살후 2:9; 히 2:4; 롬 15:18), 반드시 기적의 목적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큰 권능’(power)은 기적의 근원 즉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말한다. 예수님의 부활승천사건, 오순절 성령강림사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된 사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 나음을 입은 사건, 옥문이 열린 사건이 큰 권능에 해당된다.

‘기사’(wonders)는, 12절에서처럼(miraculous signs and wonders), 표적과 함께 쓰이고 언제나 복수형이다. 기적의 결과 즉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결과들, 예를 들면, 놀람, 경악, 기이함 등을 말한다.

그리고 표적(signs)은 확증, 입증을 의미한다. 기적이 일어난 목적을 말한다. 기적이 말씀(계시)을 전하는 자와 전해진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 증거, 확증하기 위한 것이란 뜻이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에서 보듯이 기적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며, 선포된 그 말씀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성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모세의 기적은 이스라엘 국가 형성을 위한 것이었고, 엘리야의 기적은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왕상 17:24).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 행함은 그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의 방언과 능력 행함은 새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과 신약성서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 예수 운동

공회원 가말리엘의 충고는 사도들을 변호한 듯이 보여도, 실상은 예수 운동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예수란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사람들의 인기가 이 이름에 쏠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였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예수 운동에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가말리엘이 반란의 주동자들이었던 ‘드다’와 ‘유다’를 언급한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2세기의 혁명가 밧 코크바와 17세기 중반의 샤베타이 제비를 비롯해서 출현한 거짓 메시아가 무려 30명이 넘었다고 믿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드다와 유다는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려한 혁명가들이었을 것이다. 가말리

엘이 이들 전사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요하난 벤자카이가 믿었던 것처럼, 로마제국의 군사력 앞에서는 그 어떤 혁명도 성공할 수 없고, 혁명가들의 무모한 반란은 결국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멸절을 가져올 뿐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말리엘이나 요하난 벤자카이는 군권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생각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던 바리새인들이었다. 군사혁명만 민중에게 피를 흘리게 할뿐, 그들이 원하는 빵과 명예와 주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보았다. 요하난 벤자카이는 긴 안목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유대교에 있다고 보았고, 혁명군의 감시망을 뚫고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허락을 받아 암니아(Jamnia 혹은 Japheth)란 곳에서 유대교학교를 시작한 것은 선견지명에서 비롯된 지극히 옳은 판단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벤자카이와 그의 후계자 가말리엘 2세가 살려낸 유대교의 불씨가 조국 땅이 사라진 과거 1878년간 유대인들의 정신적 영적 문화적 종교적 구심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무력혁명을 원하는 민중의 요구를 뿌리친 것이나 사도들이 펼친 예수 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게다가 예수 운동은 요하난 벤자카이나 가말리엘 2세의 유대교 운동보다 월등히 위대했다. 유대교 운동은 소수 유대민족에게 국한되었던 반면, 예수 운동은 온 인류에게 확대된 범세계적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공로가 가장 컸다.

이스라엘이 약소국이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없었을 것이란 생각은 옳은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선민사상이 있었고, 메시아신앙도 있었다. 여건만 갖춰졌다면, 주변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스, 로마도 이룬 대제국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루지 못하란 법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 년 전 예수님시대의 로마제국은 너무나 완벽했다. 유대인들이 무너뜨리기엔 너무나 강성했다. 그런데 그 로마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칼의 힘이나 군권이 아니라, 기독

교신앙이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암시했듯이, 로마제국이 망한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기독교가 해낸 것이다. 이후 기독교는 1500년 이상 유럽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41-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15.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1(행 6:1-7)

### 기독교복음의 가교(架橋)

유대인들은 인류를 두 민족으로 나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민족과 버림을 당한 이방민족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3만이 넘는 신들을 믿었던 그리스-로마사회는 문명사회였던 반면,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나라들의 노예와 떠돌이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 창조주 개념으로 이해한 것과 그 하나님 야훼를 자기 민족의 신으로 선점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영성만큼은 타민족의 추종을 불허했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들이 그토록 희망했던 땅은 빼앗기고 없었지만, 종교에서만큼은 세계를 정복한 민족이었다. 따라서 유일신 종교와 엄격한 율법에 기반을 둔 유대인들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삶은 온갖 미신과 환락과 잔인함이 지배했던 타민족들에게는 선망(羨望)의 대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회당을 많은 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후원자들로 채울 수가 있었다. 나중에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였다.

유대인들은 두 부류가 있었다. 한 부류는 히브리파유대인들로서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부터 근동지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배타적 민족주의자 유대인들이었다. 모국에 돌아와 거주했으나 6백여 년째 속주민의 처지를 벗지 못하고 있어서 민족주의와 적대적 배타주의가 강했다. 주후 70년과 135년의 유대-로마전쟁의 참패로 속주의 권한조차 빼앗긴 채 흩어졌다.

또 한 부류는 헬라파유대인들로서, 오순절 날 사건에서 보듯

이, 대략 16개국들에 흩어져 사는 해외교포들이었다. 이 사람들의 일부가 성령 강림직후 제자들이 구사한 방언들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이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외국에 얹혀살면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구사하고, 헬라어성경을 읽었던 외국문화에 친숙한 사람들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헬라인들 중에는 유대교회당에 출입하는 하나님 경외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헬라과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할례와 개종침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할례와 개종침례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 경외자들을 ‘문의개종자’라 불렀고, 비록 소수였지만, 할례와 개종침례까지 받은 완전개종자를 ‘의의 개종자’라 불렀다. 반면에 히브리과유대인 회당들에게는 하나님 경외자들이 많지 않았다. 모국어이어서 외국인이 많지 않았던 점도 있지만, 민족주의와 적대적 배타주의가 강해서 외국인에게 전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에서의 누가의 관심은 헬라과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의개종자들에게 집중되어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복음을 이방세계로 중개할 가교(架橋)였기 때문이다.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교회가 지도자로 뽑아 안수한(5절) 일곱인 가운데 여섯 사람, 즉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가 모두 헬라과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콜라는 의의개종자였고, 에티오피아 내시, 가버나움의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고린도인 디도 유스도, 빌립보인 자주옷감장사 루디아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의개종자들이었다. 이들 유대교개종자들은 모두 기독교로 재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 제자와 그리스도인

6장 1-2절에 “제자”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한다. 제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일컬어 부른 자의식에서 비롯된 호칭이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이고, 스승의 삶을 본받아 그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

와 엘리사,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의 사이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 타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컬어 부른 외부적 호칭이다. 이사야 62장 2절, “너는 여호와와 입을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은 외적 수동적 호칭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제자들은 시리아 북부의 대도시 안디옥사람들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일컬음을 받다”로 번역된 동사, ‘크레마티조’는 공공에 비추진 인물이나 어떤 이름이나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쓰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에 종사한다면, 그는 비즈니스맨으로 불리고, 의술에 종사한다면, 의사, 송사를 맡아 변호한다면, 변호사, 목회에 종사한다면, 목사로 불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을 뜻한다. 옛 언약백성이 ‘여호와와 증인’이었다면, 새 언약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마땅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전파하는 ‘여호와와 증인’임을 자처하여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관심이 헬라파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의개종자들에게 집중되는 것과 또 6장에서 헬라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긴 갈등이 언급된 것 모두가 히브리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적 율법적 유대교적 그리스도

인들이어서 기독교복음을 이방세계로 증개할만한 가교(架橋)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외국문화에 포용적이었던 헬라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로 재개종한 이방인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옮겨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주후 30년 베드로가 세운 예루살렘교회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수장으로 한 유대교적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오실자로 예언된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인들(Messianic Jews)이었다. 이들은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유대교에 속한 나사렛파(Notzrim)에 가까웠다. 기독교 복음이 그들의 수중에서 벗어나 바나바, 바울, 스테반, 빌립과 헬라파유대인들에 의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때문이었다.

### 전화위복(轉禍爲福)

예루살렘교회가 일시에 커지고 질서를 유지할만한 제도가 전무한데다가 문화와 언어가 다른 히브리파유대인들과 헬라파유대인들이 뒤섞인 데서 갈등이 드러났다. 이 갈등은 “헬라파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사람을 원망”한데서 비롯되었다. “원망”의 근원은 헬라파유대인들에게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일곱을 택하여” 헬라파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이 때 뽑힌 일곱 사람은 모두가 헬라파유대인들이었다. 두 부류의 유대인들 사이에 파생된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구제 때문이었지만, 근원적으로는 언어, 문화, 이념, 사상과 신앙에서 큰 차이를 보인 두 이질적 문화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때 뽑힌 칠 인을 집사로 생각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들은 헬라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지, 집사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 때 뽑힌 빌립의 전도와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복음은 편협한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 영토주

의 및 율법주의에 찌든 히브리파유대인들의 손과 국경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뺏어나갔다. 이들 헬라파유대인들은 세계선교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질서와 민족성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훌쩍 뛰어넘는 특별한 것임을 히브리파유대인들보다 훨씬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 헬라파유대인들을 택하여 일하실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이 위기에서 마련되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다.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유대인들이었다. 이 갈등은 나중에 '율법과 은혜'라는 교리문제로까지 확대되지만 결국 은혜를 강조한 헬라파유대인들의 주장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정통성의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도들의 승인을 받게 된다(15장).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히브리파유대인들은 편협한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인 영토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헬레니즘 문명권에 동화되지도 못했고 세계화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헬라문화와 언어 및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였고, 해외에서 자랐거나 공부한 경험이 없었으며, 해외에 친지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계선교에 기여할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들이었던 헬라파사람들의 포용적이고 열린 복음적 사고와 헬라이어 구사능력과 문화수준을 세계선교를 위해 쓰신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었다.

베드로와 바울은 피차에 다른 문화와 다른 성향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일군으로 쓰셨고 통합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셨고, 정통성의 가부를 결정짓는 열쇠의 역할, 심지어는 바울이 세운 선교교회들조차 정통성의 가부를 결정짓는 역할까지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그렇지만, 교회를 세계로 뺏어나가게 하는 데는 바울을 사용하셨다. 이 두 사람은 그릇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쓰임이 달랐다.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소중하고 쓸모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다. 사도행전은 전화위복의 사례를 모은 책이다.

## 16.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2(행 6:8-15)

### 헬라파유대인들의 충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베푸는 능력은 사도들이 베푸는 것보다는 많이 약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과 사도들이 베푸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능력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사도들은 누구의 안수도 없이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일곱 사람은 사도들의 안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능력의 차이가 명백히 드러난 곳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성이었다(8장).

오늘날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를 통틀어 1400만 명 정도이다. 그 가운데 60퍼센트인 840만 명 정도가 해외교포들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에 45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84퍼센트인 380만 명이 해외교포들이었다. 이들 380여만 명은 근동, 북아프리카, 유럽과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았다. 유대인들이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312년 프톨레미 라구스에 의해서, 주전 63년 폼페이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이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때 그 일부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다.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러나 9절에서 말하는 ‘자유민들’은 프톨레미 라구스에 의해서 이집트와 폼페이에 의해서 로마로 끌려간 노예들의 후손들이다. 여기서 ‘자유민’은 해방노예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히브리어

회당에 합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이주해온 동족을 돌봐줄 목적으로 자신들만의 회당을 건립했을 것으로 본다. 예루살렘에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회당과 길리기아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 각각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지만, 누가는 9절에서 이들을 모두 통합한 단수의 회당만을 언급하고 있다.

9절,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 새”란 말은 헬라파유대인이었던 스테반이 헬라파유대인 회당에 참석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들과 논쟁이 붙었으며, 그 자리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울(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헬라파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었고, 사울로부터 박해가 시작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3-4장에서 박해는 집권세력인 사두개파들에 의해서 히브리파유대인 사도들에게 가해진 가벼운 박해였다. 이 박해로 인해서 히브리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흩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스테반의 사건은 헬라파유대인들 사이에서 펼쳐질 대대적인 박해의 신호탄이었다. 이로 인해서 헬라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둘러 해외의 고향집으로 피신하였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서 파생된 가벼운 갈등이 헬라파지도자들을 뿔뿔로 했고, 그들의 활동으로, 헬라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인 헬라파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흩어지면서 기독교 복음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것이다.

### 스테반,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

스테반의 삶은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져 있었다. 사도행전 6장 8-15절과 7장 54-60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 8절,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것; 둘째, 9절,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난 것; 셋째, 10절, “스테반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 것; 넷째, 11절, 사람을 매수하여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것; 다섯째, 12절, 스테반을 체포하여 공회에서 심문한 것; 여섯째, 13-14절,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테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들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 일곱째, 7장 54절, 유대인들이 스테반의 증언에 분노를 참지 못한 것; 여덟째, 7장 55-56절, 인자의 영광에 관해서 언급한 것; 아홉째, 7장 57-58절, 스테반을 공개처형한 것; 열째, 7장 59-60절, 스테반이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열 가지가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들이다.

여기에 담긴 교훈은 이렇다. 첫째,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 신앙이 그렇듯이, 신앙은 대를 이어 잇대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릴레이 경주와 같다. 선두 주자가 힘껏 달리듯이, 그의 바통을 받아 달리는 사람도 힘껏 달린 후에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긴다. 누가가 성찰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앙의 바통을 받아 이어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란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이미 선임자가 행했고 걸었던 것이고, 그도 또한 그의 선임자의 것을 따랐던 것이다. 스테반은 예수님의 삶과 발자취를 고스란히 밟아갔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과 스테반의 순교는 교회성장에 밀거름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해진 박해는 박해자들의 의도와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만일 박해자들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오래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박해는 풀무질을 받은 불길처럼, 박해의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번져나갔고, 기어이 대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가져왔다. 전화위복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다.

셋째, 히브리파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저질렀던 동일한 수법을 헬라파유대인들이 스테반에게도 저질렀다는 점이다. 나중에 사울(바울)은 그와 그의 동족이 스테반에게 저질렀던 이 비겁하고 잔인한 수법 그대로 동족인 헬라파유대인들로부터 몇 배나 더 깊은 박해를 받는다.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죽음에 버금가는 박해를 동족으로부터 셀 수 없이 받았다.

넷째, 박해가 임무교대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성전의 붕괴가 회당으로 발전되었듯이, 예루살렘의 붕괴는 기독교의 발전을 가져왔다. 예루살렘의 붕괴로 아람어를 쓰던 히브리파가 뒤로 물러서고,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가 앞장을 서게 하였고, 헬라어란 그릇에 담긴 기독교 복음은 헬라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유대교 개종자들에게와 이방세계로 번져나갔다.

## 유대교 예배에 잇대어

회당 기도회는 성전제사를 대신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는 회당의 기도회와 성전제사를 통합한 형식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가 유대교 예배에 잇대어져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다.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예배의 적소라고 믿었고, 남쪽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적소라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영으로(in spirit) 진리(in truth)로 드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의 토대가 되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으나 유대왕 힐카누스에 의해서 주전 128년에 붕괴되었다. 남쪽 유대인들은 성전은 예루살렘 한곳에만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경계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기독교를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실현된 것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붕괴되면서부터였다.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주전 586년과 주후 70년에 각각 있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붕괴는 곧 이스라엘의 붕괴와 같았다. 그러나 성전의 붕괴는 유대교의 발전을 가져왔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란 것을 모른 것은 아니었지만, 성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지성소에 갇히시게 되었다. 반면에 성전의 붕괴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고, 회당기도회로 발전되었다.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성전에서 회당으로 바뀐 것이다. 회당은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있던 성전과는 달리, 힘의 중심이 중앙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회당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후 성전제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생긴 비성서적인 제도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허한 것도 아니었던 만큼, 하나님이 묵인한 제도였다.

회당은 “함께 모이는 곳”이란 뜻이다. 그래서 회당은 13세 이상의 계명의 아들 10명 이상이 모여야 성립되는 곳이다. 그만큼 모임의 성격이 강조된 집회소이다. 또 회당은 공동체의 기도회 장소일 뿐 아니라, 학교와 지방의회 및 법정이었다.

예배당의 구조와 예배 형식은 기독교의 것과 대체로 비슷하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목회자가 없었고, 회당장(장로)이 주재하였으며, 성서는 일주일에 세 번 그 주의 분량을 낭독하였는데, 성서낭독 후에는 누구나 지명을 받거나 자원하면 설교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스테반, 바울에게 회당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잘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같은 뿌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접붙임을 입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였다. 우리 모두가 선배 신앙인들의 믿음의 행로를 쫓아가되,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당도하는데 문제

가 없을 것이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자(새찬송가 336장).

## 17.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3(행 7:1-60)

###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1)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져 있었던 스테반은 예수님께서 겐세마 네동산에서 체포되신 그 밤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에서 심문을 받으셨던 것처럼, 공회에서 심문을 받았다. 매수당한 사람들이 나서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 하였고, 성전과 율법을 폄훼하였으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다”(6:14)고 거짓 증언하였다. 7장 1절은 이 증언들이 사실인가고 스테반에게 묻는 대제사장의 심문내용이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2절부터 53절까지이다. 이 답변에서 스테반은 아브라함의 출현으로부터 출애굽사건과 가나안땅 입성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장황하게 되짚었다. 그렇게 한 까닭은 스테반이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하게 꿰고 있다는 것과 그의 신사상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율법과 역사의 성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웅변한 것이다.

스데반의 장황한 설교를 정리해 보면, 그 내용이 대략 열다섯 가지 정도가 된다.

첫째, 가나안땅에 대한 희망을 최초로 품었던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할 당시에 영광의 하나님을 뵈었고,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따라 이동하였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노예지 이집트와 유배지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땅으로 이주한 사건들의 예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의 대에는 물론, 이삭과 야곱의 대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이집트 고센에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이뤄졌다. 이 모두가 위기가 기회로 바뀐 사건들이었다. 유배지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대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계토를 이뤄 힘을 키웠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명을 익혔으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나안땅으로 이주를 단행하였다. 유대인들은 이 '이주'를 '알리야'(aliyah)라고 부르며, 역대기사관과 결합하여 '시온에로의 오름'(ascension to Zion)이라 부른다.

둘째, 아브라함은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임시 거주하였다. 그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땅으로 이주하였다. 그것은 히브리인 우상숭배자들이 40년간 광야사막에서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땅에 입성한 사건의 예표일 수 있다.

셋째,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땅에 입성하였지만, 그의 희망이 아직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희망은 먼 후대에 그의 후손들에게 이뤄질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의 희망은 수백 년 앞을 내다본 웅대한 꿈이었다.

넷째, 아브라함은 모든 자손이 낳은 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의 희망이자, 하나님의 언약인 가나안땅의 꿈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집단무의식을 자손대대에 심었다.

다섯째, 아브라함의 장차 올 나라에 대한 희망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미 수백 년 전에 믿음으로 된 것이었다. 모세의 율법은 가나안땅의 지속여부를 위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언약일 뿐,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궁극적 희망은 지상 가나안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가나안땅이었다.

##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2)

여섯째, 요셉이 형들에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요셉이 팔린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비롯되었고, 전화위복의 사건이었다. 또 요셉은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일곱째, 18-19절에서 보듯이, 이집트의 왕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암시한 사건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였다.

여덟째, 하나님은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메시아로 택하셨으나,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거절하였다. 모세는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났으나 바로의 딸의 손에서 성장했으며, 이집트의 문물을 배워 익혀 말과 일에 출중하였다. 나이 40세에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겨 실행에 옮겼고, 25절에서 보듯이, 그는 자기 동족이 자기를 구세주로 믿고 따라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27절에서 보듯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며 모세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에 모세는 동족을 돕기 위해 이집트인을 살해한 것이 탈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였다. 거기서 모세는 이집트왕궁에서 호의호식했던 40년 세월만큼, 모래바람 이는 광야사막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 생활과 민중의 애환을 뗏속 깊이 새기며 40년의 수행기간을 보냈다. 양치기 소녀와 결혼하여 아이들도 낳았다. 이로써 그는 음양의 조화를 갖춘 히브리민족의 지도자로 다듬어졌다. 고통과 회한의 세월이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아홉째, 때가 무르익자,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셨다. 30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히브리민족을 구원할 자로 세워 이집트로 보내셨다.

열째, 모세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며 거절하던 그들이 생각나서 가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의 메시아로 보내셨고, 히브리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흥해 건너편 광야로 이끌어내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또 다른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였다.

열한째,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

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하였고, 18절에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두 번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는데, 첫 번째 모세는 이 두 번째 모세인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표와 그림자였으며, 예수님은 오실 자 참 메시아시었다.

열둘째, 히브리인들이 제1모세를 40세 때와 80세 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척하고 거절하였다. 마찬가지로 제2모세이신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시고 거절당하시어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열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였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이 세대도 그 때와 마찬가지로 주후 70년에 멸망당할 것이 예정되었다.

### 가시나무 떨기 불꽃(burning bush)

열넷째,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제조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였지만, 48절에서 보듯이, 무소부재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였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사고였다.

열다섯째,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고” 스테반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의 정점이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 유대인들은 성전중심의 다윗왕국의 회복을 희망하였다. 이 대업을 성취할 자가 제2모세 즉 메시아였다. 그가 와서 성취할 종말세계를 ‘올람 하바,’ 곧 ‘다가올 세상’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성전을 폄훼하는 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는 모독이었다.

유대인들은 성막 혹은 성전을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믿는다. 지성소는 보좌가 있는 방이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요, 말씀이다. 성소는 에덴동산을 상징한다. 이 구도는 회당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성소)에도 오랫동안 적용되었다. 성소에는 등대(메노라), 분향단, 떡상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에서의 완벽한 삶을 상징한다. 등대는 칠일 창조를 상기시킨다. 등잔을 매일 정리하는 것은 빛으로 시작되는 창조의 과정이 지속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떡상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을 상기시킨다. 떡상의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놓는 것은 항구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상기시킨다. 분향단의 향기는 살아 있는 꽃들의 향기, 특히 에덴의 향기를 상기시킨다.

성소의 등대가 스테반이 30절에서 언급한 모세가 호렘산에서 본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다. 등대와 가시나무 떨기 불꽃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유대인 랍비들의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교회에 십자가 장식이 일반적이듯이, 미국 유대교회당의 경우 등대와 가시나무 떨기 불꽃 장식이 일반적이다. 한 가지 예로, 미국 유대교 신학대학원은 출애굽기 3장 2절,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글과 함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그림을 학교의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유대교는 등대와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중요한 상징으로 취급한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계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에너지, 신성한 빛, 생명의 빛이고, 모세로 대표되는 인간에게는 흠숭과 경외의 대상이다. 동방교회는 이 불꽃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에너지 혹은 영광으로 보았고, 그것이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은 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계시적 사건이었다.

동방교회는 이 신적 에너지를 그리스도인이 장차 받게 될 구

원의 모습으로 본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본질에는 통합되지 못해도, 이 영원한 에너지에 통합된다고 본다. 따라서 모세가 호렘산에서 뵈웠던 불꽃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뵈웠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베드로가 산에서 뵈웠던 세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광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신을 벗었듯이, 제사장들이 경외감으로 성소에 입장하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겸손히 설 수 있어야한다.

## 18.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4(행 8:1-13)

## 스데반의 순교

사울(바울)이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1절) 율법 때문이었다. 스테반이 신성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생각했고, 율법은 그런 자들을 돌로 치도록 명하였다(레 24:16). 돌로 치라는 율법은 신성모독, 우상숭배, 안식일위반 등 무려 17가지에 해당되었다. 형 집행 때 죄인을 성 밖으로 끌어내는 관습은 조선시대에도 같았다. 대표적인 처형장소가 도성 안의 시체를 밖으로 내가는 출구였던 서소문 밖 네거리였다.

예루살렘교회에 “큰 박해”(1절)가 일어난 것은 사울이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위임받아 행한 것이었다(26:12). 당시에 그리스도 인임을 표시하는 무슨 상징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십자가는 물론, 유대인그리스도인들의 상징물인 성소등대의 받침과 물고기 꼬리를 포개서 메시아별이 되게 한 상징물(Messianic Seal)도 아직 없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떠난 것도 아니었다. 스테반에게서 보듯이, 그들은 성전이나 회당기도회 모임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낼 수 있었는가? 아마도 고발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박해가 시작되면 고소고발이 많아진다.

사울의 박해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1절). 5세기의 베자사본(D)에는 이 구절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란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사도들을 포함한 다수의 히브리과유대인들이 이 말에 해당될 수 있다. “흩어졌다”와 연관된 흩어짐을 뜻하는 헬라어 디아스포라는 본래 헬라과유대인들에게 쓰이는 말이며, 그들은 이 디아스포라를 유배라 부르면서 자신들을 떠돌이(신 26:5)로 간주한다. 사울의 박해

로 히브리파유대인들이 흠어졌더라도, 그 현상은 일시적이었을 것이고, 지속적인 흠어짐은 헬라파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사도행전의 관심도 히브리파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유대인들의 활동에 집중되고 있다. 사울이 유대인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향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박해의 칼날은 헬라파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의 권한이 헬라파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외국에서 나서 자란 헬라파유대인들에게는 고향에 가족 친지 또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이 흠어졌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주 예수를 전한”(11:19-21)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도행전에서 “경건한”이란 말이 8번 사용되었다. 유대교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쓰였다. 이 점에서 스테반을 장사지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스테반을 위해 온 것을 보면, 스테반이 “칭찬 듣는 사람”(6:3)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삶은 스테반의 삶에 잇대어졌다. 10년 후에 바울은 스테반처럼 복음을 전할 때 헬라파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끊임 없이 이동했어야 했고,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졌었으며(14:19),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결국엔 순교하였다. 스테반의 순교는 바울에게 한평생 복음에 빛진 자로서(롬 1:14, 8:12) 살게 한 좋은 의미의 족쇄가 되었다.

### 빌립 전도자의 활동(1)

빌립도 스테반처럼 헬라파유대인이었다. 빌립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갔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크게 환영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더 갈급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4장에 실린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동네사람

들의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는 점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성이었던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 청하는 것만으로도 감격하여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어서 성서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이어진 대화에서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을 알고, 예배할 장소가 그리심 산이 옳은지, 시온 산이 옳은지를 물었고, 이어서 메시아도래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전했고,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이토록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의 전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 당시의 상황을 빌립에게 직접 청취한 누가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적었다( 6-8절).

사마리아인들은 혈통과 신앙 모두에서 정통성을 잃은 혼혈인들이었다. 그들은 주전 722년 앗수르왕 사르곤 2세에게 왕국이 멸망할 당시 노예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가난하고 못 배운 북 이스라엘왕국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의 조상들은 생존 때문에 앗수르제국이 강제로 이주시킨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써 혈통도 신앙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성산인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워 그들 나름의 야훼신앙을 이어가길 원했다(요 4:20). 한편 남왕국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한 후에도 혈통과 신앙을 지켜냈고, 예루살렘의 시온 산을 그들의 성산으로 여겼다. 이런 민족적 종교적 우월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여 개 취급하며 상종하려하지 않았고, 탄압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히브리파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가져간 것은 헬라파유대인 “전도자 빌립”(행 21:8)의 공로였다. 빌립은 유대총독부가 설치되었던 항구도시, 그래서 이방인의 출입이 잦았던, 예루살렘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방인과의 접촉을 당연시하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런 성품 때문에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유대지방은 물론이고,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에티오피아인 흑인 내시에게까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 사마리아 교회 창립

빌립은 사마리아교회의 창립자란 영광을 차지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 성장을 주도했던 사도들조차 예루살렘성문 밖으로 복음을 가져갈 생각을 못하고 있던 때였다. 빌립의 전도여행은 사울의 박해가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그는 박해를 피해 가족이 있는 북서쪽 가이사랴로 향하지 않고, 흠어짐을 전도여행의 기회로 삼아 북쪽 사마리아로 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빌립 뿐 아니라, 사울의 박해로 흠어졌던 모든 헬라파유대인들이 흠어짐을 전도여행의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빌립의 활동범위는 제한적이었다. 11장 19-20절을 보면,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흠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란 말씀에서 보듯이, 복음을 해외로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헬라파유대인들이 이 먼 곳까지 갔던 것은 그곳에 친인척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빌립은 해외로까지 활동범위를 확장시키지

않았다. 빌립은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지방을 커버했다. 그 이유는 그의 가족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빌립의 전도활동에 큰 성과가 따랐다. 사마리아성에 “마술을 행하여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9절)로 칭하던 시몬 까지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침례를 받았으며,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랄”(13절) 정도였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말씀은, 1장 8절의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갔는가를 보여준 말씀이다. 이 말씀은 11장 19-20절,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헬라파유대인 사울의 기독교탄압과 또 사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이름을 바꾼 후에 헬라파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음으로써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역사였음을 보여준다.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의 박해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히브라파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다면, 6장에서 8장까지의 박해는 바리새파 헬라파유대인 사울에 의해서 헬라파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다. 이 박해라는 위기는 기독교복음의 발전이라는 기회로 작용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가? 헬라어를 말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박해로 흩어진 빌립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에게 내려가 복음을 전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성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른 것이다.

<(1)헬라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열린 사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란 신사고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짧은 시간에 로마제국의 국교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열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민족주의적 배타적 선민사상은 인류평화에 바람직하지 않다. (2)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빛과 생명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처럼 빛의 일, 생명의 일, 살림의 일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 말할 수 있다.>

## 19.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5(행 8:14-40)

###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강림

사마리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파송된 목적은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보다는 교회를 승인하려는 것이었다. 사도들은 교회의 열쇠를 쥔 승인권자들이었다. 사마리아교회(8장)뿐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교회(10-11장),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이방인교회들(15장)이 모두 사도들의 승인을 받았다.

빌립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지 않았으나 사도들은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였다. 15-17절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고 하였다. 마술사 시몬은 이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다가 경을 칠 뻔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2장 38절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이 말씀대로라면, 빌립의 설교를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마리아인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죄 사함과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야 옳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기까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한 말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이 내리신 사도행전에서의 사례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빌립은 사도들의 안수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나(6:5) 큰 능력을 행한 일이 없었다. 반면에 안수를 받은 후로는 큰 능력을 행하였으나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지는 않았다.

둘째, 위로부터 내린 '성령세례'는 오순절 날 사도들과 고넬료의 권속들에게만 있었고, 최초의 유대인교회와 이방인교회 설립과 관련되어있다.

셋째, '성령 충만'의 언급은 오순절 날 사도들과 사울(바울)에게만 있었고, 이들은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충만)을 받게 하였다.

넷째, '다른 방언'의 언급은 오순절 날 사도들과 고넬료의 권속과 에베소의 열두제자에게 있었고, 모두 교회설립을 위한 외적증거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사마리아인들도 방언을 말했을 것이다.

다섯째, '성령 임재'의 언급은 사마리아인들과 고넬료의 권속과 에베소의 열두제자에게 있었고, 평범한 신자들에게 나타났다.

여섯째, 침례 받기 전에 성령이 내리신 경우는 사도들과 고넬료의 권속과 사울이며, '성령세례'나 '성령 충만'이 언급되었다.

일곱째, 침례 받은 후에 안수를 통해 성령이 내린 경우는 사마리아인들과 에베소의 열두제자이며, '성령의 임재'와 '다른 방언'이 언급되었다.

여덟째, '위로부터 내린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과 '성령 임재'는 모두 '다른 방언'과 '예언' 혹은 '능력 행함'과 같은 외적증거와 관련되어 있다. 다만, 안수능력을 동반하는 '위로부터 내린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은 종종 안수에 의한 '성령'과 '성령 임재'와는 크게 차별 된다.

## 빌립 전도자의 활동(2)

그러나 사도행전뿐 아니라, 신약성서에서 누구도 성령받기를 위해 간구하지 않았다. 인격신이신 성령님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으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간구하거나 안수를 통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는 구원(약속)의 보증과 인침과 선취를 위한 선물이다. 이런 점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았으나 그 성령님의 선물인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외적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후에는 그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도들과 빌립처럼 귀신을 내쫓거나 병든 자를 치유할 정도의 능력을 받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안수능력을 동반하는 '위로부터 내린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은 안수에 의한 '성령'과 '성령 임재'와는 크게 차별되기 때문이다. 또 사도행전에서의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권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과도 차별된다. 후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성도의 삶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빌립이 사마리아성에서의 사역을 마쳤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유대광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였다(26절). 여기서 "사자"란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강조할 때 사용된 말로써 천사를 의미한다. 누가복음에 8번, 사도행전에 6번, 총 14번 사용되었다. 축지법을 쓰듯 빌립의 이동은 매우 신속했다. 천사의 현현은 빌립의 이동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천사의 현현은 주로 특정인에게 나타나 말로 지시하거나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벗기는 등의 행동이 수반될 때이다. 빌립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광야 길에서 찾은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한 에티오피아인 내시로서 "여왕 간다게(Candace)"의 재정담당 관리였다(27절). 그는 예루살렘순례를 마치고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지시하셨다. 26절에서의 "주의 사자"가 29절에서는 "성령"으로 바꿨다.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의

은사만 있고, 성령님의 내주 동거가 없었다. 은사는 방언과 예언처럼 외적 공적증거이면서 비인격적이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신이시다. 말씀하시고, 듣고, 보고, 판단하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하나님의 영이시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인격신으로서의 성령님이 사람의 심령에 내주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열방민족의 구원을 위한 신약시대의 선물로 남겨진 특별한 것이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특정인에게 말씀하시거나 도움을 주실 때 천사를 보내셨다. 종종 하나님은 친히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이셨다. 천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거나 동거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처럼 피조물이다. 천사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특수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을 수행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인간사에 개입한다.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이사야 53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재개종하기위해서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았다(36절). 내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본국으로 향했고,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 유대지방 여러 성읍들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랴의 집으로 돌아갔다.

### 사도행전에서의 회심체험의 과정

사도행전 2장 38-39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첫 설교의 후반부 내용으로써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을 때 그들에게 준 답변이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해 보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회심의 과정이다.

사도행전에 회심과 관련된 사건들이 무려 30번이 넘게 실려 있다. 이것들 가운데 8번의 사건들은 회심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의 다섯 단계에서 듣고, 믿고, 침례 받고는 모든 사례들의 공통내용이다. 그리고 회개가 첨가된 사례들은 오순절 날의 유대인들, 사울과 빌립보의 간수 세 곳이고, 신앙고백이 첨가된 사례는 에티오피아인 내시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표적인 여덟 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순절 날 유대인들(2:1-41):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둘째, 사마리아인들(8:5-13): 듣고, 믿고, 침례 받고;

셋째, 에티오피아인 내시(8:26-40): 듣고, 믿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넷째, 사울(바울, 9:1-18): 듣고, 믿고, 회개(식음 전폐)하고, 침례 받고;

다섯째, 고넬료의 권속(10:1-48): 듣고, 믿고, 침례 받고;

여섯째, 옷감장사 루디아(16:12-15): 듣고, 믿고, 침례 받고;

일곱째, 빌립보의 간수(16:25-34):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여덟째,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18:8): 듣고, 믿고, 침례 받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열두 명의 유대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세례 요한의 제자였든지, 아니면, 아볼로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19:2)고 물었고,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침례를 베풀었고, 안수를 하여 그들이 성령님의 은

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19:6).

여기서 바울의 두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와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를 2장 38-39절의 베드로의 설교와 연결시키면, 침수세례와 성령세례가 회심의 과정 속에 있음과 그 과정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죄 사함과 구원(의롭다하심과 초기성화)과 성령님을 은혜와 선물로 값없이 받고,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에 구성원으로 더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2:41).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은 이 과정에 상관없이 앞뒤 어느 때든지 필요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전 12:11).

<성령님의 외적능력은 문명이 미개할수록, 시련과 환란이 극심할수록 나타날 확률이 커지는 반면, 성령님의 내적능력은 문명이 개화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나타나야할 부분이다. 문명이 미개하거나 환란이 큰 경우는 내적인 고통보다는 신체적 고통이 크기 때문일 것이고, 문명이 개화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정신적, 영적, 심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성령님의 외적능력보다는 내적능력이다. 성령님의 인도, 교제, 사귀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반드시 큰 복이 따른다.>

## 20.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6(행 9:1-31)

## 사울(바울)의 성장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리새인의 아들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시민권자로 출생하였다(23:3,26, 22:28). 다소는 주전 64년 이후 로마의 자유시가 되었다. 다소는 학문의 명소로써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곳이었다. 헬라학교 교사들은 주로 소요학파로써 헬라철학을 강의하였다. 소요학파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리케움(Lyceum) 동산을 거닐면서 문화생들을 가르친 데서 연유되었다. 학생들은 긴 행각이나 시장 또는 거리를 거닐면서 공부하였다.

유대인의 교육은 회당에서 이루어졌다. 6살 때부터 모세오경, 쓰기,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10살에는 미쉬나를 배웠다. 미쉬나는 바울 당시 구전의 형태였다. 교육 방법은 암기위주였다. “훌륭한 학생은 새지 않는 샘과 같다”고 한 랍비는 말하였다. 15살이 되면, 가마라를 공부하였다. 유대인들은 또 자녀들에게 무역(상업)을 가르쳤다(18:3).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파는 직업훈련을 받았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학교에서 공부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농부, 목자, 포도밭과 같은 전원생활과 관련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반면, 바울은 경주, 전투, 군사용어, 건축가, 채무자, 노예, 시 등을 인용하였다(17:28; 고전 15:53; 딤후 1:12).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공부하였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다. 볼레스(Boles)에 의하면, 유대인의 부모들은 12살이 되면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고 한다. 따라서 바울도 12살에 예루살렘에 유학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점으로 보아 청소년시절 8-10년간 예루

살렘에서 공부한 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다소에 돌아갔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때의 나이가 대략 30여세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기반으로 연대를 작성해 본다면, 주후 4년경에 출생해서 16년경에 가말리엘 문하생이 되었고, 예수님이 공적활동을 시작했던 26년경에 고향 다소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교회가 창립되고 3-4년이 지난 34년경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것이다(22:3; 26:4).

스데반 순교이후 사울(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영장을 지참하고 도보로(22:16)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개종하게 되었다. 이때가 주후 34년경이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2km 정도 떨어진 고대 시리아의 수도였다. 폼페이에 의해서 주전 64년에 점령을 당하였다. 유대인이 약 4만 명, 회당이 약 30-40개 정도 있었다고 전한다. 주후 66년 네로황제 때에는 1만 명의 유대인이 체육장에 갇혀 한 시간 내에 살육을 당하였으며, 만 팔천 명의 그들의 가족들도 살육을 당하였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개종함으로써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한테서 직접 받은 계시라고 주장하였다(갈 1:12이하).

### 사울(바울)의 개종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운명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었다. 이후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 즉 자기운명의 결정권이 없는 자로 불렀다. 그러나 그의 개종으로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 수가 더 많아졌다”(31절).

바울은 개종직후 아라비아사막으로 내려가 일정기간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갈 1:17-18).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메섹

으로 돌아온 즉시 복음 전도자로 나섰다. 이를 지켜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하였고, 바울은 다메섹을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의 개종사실을 교회에 알렸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2-33절에서 자신이 다메섹을 탈출할 당시에 다메섹이 아레타스4세(Aretas, 9BC-AD40)의 통치권 아래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다메섹은 주전 64년에 로마에 점령되었지만, 이 지역에서 발굴된 주후 34-62년 사이의 주화들에서 로마황제 네로의 옆얼굴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바울의 증언에 비춰볼 때, 나바테아(요르단)의 왕 아레타스4세가 로마황제 티벨리우스 사후(AD37) 다메섹을 통치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 스테반의 순교와 바울의 개종 및 개종직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주후 34-40년 무렵에 발생한 것이 된다.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부인이 아레타스4세의 공주였다. 안디바가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하자, 본처는 나바테아로 도주하였고, 이에 격분한 아레타스4세는 예수님의 공생애기간이었던 주후 29년 이후 몇 차례 헤롯 안디바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초기 기독교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은 바울의 등장과 기독교 탄압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욱 큰 위기는 역설적이지만, 바울이란 인물도 없고 아무런 탄압이나 박해가 없는 것이었다. 그랬더라면, 기독교는 아마 유대교 안에서 발생한 한 작은 메시아 운동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고, 사두개파와 에세네파처럼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있어서, 바울의 탄압으로 인해서, 교회에 몰아닥친 위기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팔레스타인 바깥세상으로 흩어지게 되고 예수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됨으로써 기독교가 대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고, 온 유럽의 국교가 되었으며, 중국에는 세계인의 종교가 되어 인류에게 인간다움의 회복과 중생의 기쁨을 안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탄압만으로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된 것은 아니다. 그의 극적인 개종과 이

방인 선교를 향한 도전과 모험과 영웅성과 천재성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인물이, 또 그런 인물의 발탁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행운을 가져다주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크든 작든 자리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릇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예욕과 권세욕과 물욕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며 들이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다. 크고 작은 수많은 공동체들이 와해되고 쇠퇴되고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옳은 인물의 선택, 준비된 그릇의 발탁이야말로 공동체들의 발전과 구성원들의 행복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하다.

### 사울(바울)의 발탁

바울이 개종 후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도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지만(26-31절, 갈 1:18-19), 아무도 바울을 만나 주려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였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도와 사도들을 만나게 해 주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의 개종을 증오하는 사람들의 살해음모를 알고 피신하여 고향 다소로 돌아가 칩거하였다(22:17-21). 10여년 후 바울을 안디옥교회로 불러낸 사람도 바나바였다. 바나바는 바울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본 사람이었다. 인재의 발굴과 등용보다 인간집단에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도 마찬가지였다. 주후 374년 30대 후반의 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집정관에게 칩례를 베푼 후 일주일 만에 밀라노교회의 주교로 임명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탁월함 그 자체였다. 칩례를 받고 일주일 만에 밀라노의 주교로 임명된 자의 이름이 암브로시우스인데, 그는 본래 삼위일체파와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아리우스파 사이의 중재관이였다. 밀라노의 주교가 공석이 되자 삼위일체파와 아리우스파가 각각 주교직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하였는데, 이 두 파가 극적으로 합의하여 암브로시우스를 주교로 추대하기로 결정하였던 것

이다. 암브로시우스는 주교로 재임한 20여 년간 정치 종교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어거스틴을 발굴하여 히포의 주교가 되게 하였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무릎 꿇게 만든 영웅이었다. 이 황제가 바로 392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인물이었다. 바울과 암브로시우스에게서 보듯이, 올바른 인재가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반대로 그릇된 인물이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인간 공동체에 더 큰 재앙은 없다.

하나님이 예정하여 택하시고, 바나바가 눈여겨보고 이끌어 주었던 바울의 영웅성과 천재성은 탁월함 그 자체였다.

바울은 신념의 사나이였다. 신념에 살고 신념에 죽는 강단이 구단이었던 인물이었다. 그가 기독교를 탄압한 것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신념 때문이었고, 그가 기독교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도 그것이 옳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있는 인물은 아마 하나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메섹 인근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도전 정신, 모험 정신, 불굴의 투지, 목숨을 건 선교열정,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그리스도를 섬긴 봉사정신 등은 가히 영웅적이었다. 그가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다름 아닌 자신보다 3백여 년 전에 칼로써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환상을 보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복음으로써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영웅정신이 솟아난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바울은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기독교신학이 전무한 상태에서 13편의 주옥같은 신학과 실천에 관한 서신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쓴 것으로밖에는 달리 설명될 수 없는 천재적인 작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바울과 같은 영웅적인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되어 바울과 같은 인재를 발탁하고 후원하는 일로써 하나님의 일, 살림의 일, 빛의 일, 생명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21.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행 9:32-43)

### 베드로의 순회사역의 의미

예루살렘교회는 주후 30년 5월 28일에 세워졌다. 그로부터 4년쯤 후에 스테반의 순교사건이 터졌고, 헬라파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기서 사방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말한다. 2천 년 전 당시의 세계는 지중해연안의 나라들, 즉 남유럽과 근동과 북아프리카를 말하였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땅 끝은 바울의 최종 선교지역이었던 스페인쯤이 된다. 이 드넓은 지역에 누가 선교했는가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충분한 암시를 남겼다.

첫째,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시온에로의 오름'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다. 이 '오름'을 '알리야(aliyah)라고 부른다. 주후 30년 오순절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헬라파유대인들은 15개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이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시작한 교회들이 있었다. 로마교회가 그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주후 34년경에 발생한 사울의 탄압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헬라파유대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향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들을 시작하였다. 이 중의 하나가 안디옥교회였다.

셋째,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빌립이 고향으로 향하던 길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고, 유대지방 남서쪽으로 내려가 에티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에티오피아인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예루살렘에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유대총독부가 주재해 있고, 가족이 있는 가이사라를

향해 오르면서 여러 성읍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베드로의 유대지방 순회전도는 이 빌립이 복음을 전파한 곳에서 진행된 것이고, 예루살렘교회가 세워진지 대략 10년, 빌립이 복음을 전파한지 대략 5년이 흐른 때였다. 베드로의 순회사역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

첫째, 빌립을 비롯해서 헬라파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들을 인준 또는 승인하는 의미가 있었다. 사마리아교회를 인준했던 베드로는 연이어 빌립사역의 새로운 열매인 팔레스타인 서부지역(32-43절)의 교회들은 인준하였다.

둘째,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운 것을 전달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을 확증하는 의미가 있었다.

셋째, 위로부터 물 붓듯 부음 받은 성령의 충만함과 큰 능력 행함을 통해서 곤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의미가 있었다.

베드로의 교회인준에 무슨 형식이나 증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표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도의 정통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러면 빌립의 사역에는 정통성이 결여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빌립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고,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안수를 받아 임명된 사역자였기 때문에 빌립의 사역은 사도들의 인준이나 승인이 없더라도 사도의 정통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순회사역에는 빌립의 사역을 확증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점은 바울의 선교지역들을 순회했던 베드로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서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져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철저히 본받고 실천하였다. 그 몇 가지 사례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직후 성

령님의 임재, 보증, 인침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것의 모형은 다윗과 사울이 사무엘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신의 은사를 받아 왕이 된 것에 있다. 예수님의 경우, 안수가 침례로 바뀐 것이다. 이 의식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침례의식과 견진 의식이 유래되었다. 3세기 초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을 보면, 침례의식 직후에 견진의식으로 기름을 이마에 발랐으며, 주의 만찬에 참여토록 하였다. 여기서 기름 바름은 성령님의 임재, 보증, 인침의 상징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 보증, 인침으로 공적생애를 시작하였다. 베드로가 침례를 언제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한 그의 첫 설교 역시 예수님의 생애에 잇대어져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2:38).

둘째, 예수님은 나사렛회당에서의 첫 설교와 배척당함으로써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다. 베드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첫 설교와 배척당함으로써 공적 생애를 시작하였다.

셋째, 예수님은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 베드로도 룻다에서 8년간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던 애니아를 고쳤다. 애니아는 헬라 이름이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서쪽으로 약 42KM에 위치하고 있었다.

넷째, 예수님은 나인 성읍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베드로도 읍바 성읍 과부들 중 죽은 도르가를 살렸다. 도르가의 아랍어 이름은 다비다였다. 그 뜻은 '영양'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쓰신 '달리다굼'(Talitha Cumi/막 5:41)과 같은 아랍어 '다비다굼'("다비다야 일어나라, Tabitha Cumi)을 사용했다. 읍바 성읍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룻다에서 서해안 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섯째, 예수님은 유대교에 입교한 백부장의 초청을 받으셨다. 베드로도 유대교에 입교한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다.

여섯째, 죄를 지은 한 여성이 옥합에 향유를 담아가시고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과 접촉하였다. 이 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다. 베드로도 이 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식탁 교제한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교회의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베드로의 공적활동은 다방면에서 예수님의 공적활동에 잇대어져 있다. 이것은 누가의 역사기술방법의 하나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일치된 믿음과 실천 속에서 이뤄졌고, 이뤄지고 있으며, 이뤄질 일임을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에 잇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삶조차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삶에 잇대어져 있다는 것이 누가의 예리한 통찰이었다.

### 성도의 삶에 잇대어서

베드로의 '다비다꿈'(Tabitha Cumi), 이 한 마디 말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베드로의 능력에 의존한 것이기보다는 그 은혜를 입을만한 다비다 자신의 그리스인다운 삶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례들을 살펴보면,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병든 자들 자신이 주님의 자비를 입을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과 귀와 혀와 살을 만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안심하라." "일어나 걸으라." "네 소원대로 되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다. 그렇다면, 다비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녀의 삶은 성도의 삶에 잇대어져 있었다. 그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비다는 빌립이 주후 34년경이후에 세운 율바교회의

그리스도의 여제자였다.

둘째, 다비다는 욥바교회의 실제적이고 희생적인 봉사자였으며, 손수 재단하고 바느질한 옷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

셋째, 다비다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함으로써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녀의 죽음은 도움을 입었던 과부들에게 커다란 슬픔이자 충격이었다.

넷째, 성도들은 베드로가 근처 룻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욥바로 와줄 것을 간청하였다.

다섯째, 다비다는 제2의 삶을 얻었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

다비다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한 것은 바느질이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히브리민족의 구세주로 이집트에 보내고자하셨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히브리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의적이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고 대답하였다(출 4:2). 유목민에게 지팡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떼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내는 무기요, 의지의 수단이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나이다.”고 노래한 것처럼, 또 무거운 갑옷과 칼을 던져버리고, 물땀들을 챙겨들고 골리앗에 맞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봉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다비다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면, 그녀는 필경, “바늘입니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바느질은 다비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재능이었고, 생존의 수단이며, 의지였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였다. 우리도 다비다의 삶에 잇대어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고,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성도가 될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

## 22.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8(행 10:1-48)

## 기도시간에 찾아오는 응답

누가는 복음서에서 자식이 없어 고통을 겪던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고 있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기별을 받았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말한다. 분향은 기도의 상징이다(시 141:2, 계 5:8, 8:3-4). 누가는 기도가 응답의 도구요, 기도시간이 문제해결의 시간임을 밝혀준다. 같은 맥락에서 천사가 기도응답을 들고 고넬료를 찾아온 시간도,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전달된 시간도 모두 기도시간이었다.

“가이사랴”는 로마황제의 칭호를 붙인 도시명이며, 유대총독부와 천부장이 지휘하는 로마군대가 주둔한 곳이었다. 헤롯은 수심이 낮은 이곳 해안에 배를 댈 수 있도록 도크를 만들고, 갈멜산의 물을 끌어올 수로(수도교)를 건설하였다. 주민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반씩이었는데, 이들의 충돌로 주후 66년에 유대-로마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달리아대”란 이탈리아인들로 구성된 800여명의 대대(Cohort)를 말하며, 이들 가운데 백부장 고넬료는 60-80여명의 백인대(Centuria)나 2개의 백인대(Maniple)를 통솔했을 것으로 본다. 오늘날의 중대장 급이지만, 그 권한은 월등히 컸다.

고넬료는 ‘하나님 경외자’(God-fearer)였다. 유대교 입교자는 ‘문의(절반) 개종자’와 ‘의의(완전) 개종자’로 나뉘었는데, 문의 개종자를 하나님 경외자로 불렀다. 헬라과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극히 일부만 요구함으로써(15:20) 다수의 문의 개종자와 소수의 의의 개종자들을 얻고 있었다. 콜로새 인근의 아프로디시아에서 발굴된 유대인회당건립비에 의하면, 2세기의 이

회당에서 이방인이 차지한 비율은 45퍼센트에 달했다.

고넬료는 문의 개종자치고는 “의인”이란 칭찬을 들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었다. 하루 세 번 기도하였고, 구제에도 힘썼다. 천사가 찾아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4-5절)는 메시지를 전달한 시간은 오후 3시 기도시간이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50Km로써 도보로 10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고넬료는 두 명의 하인과 또 한 명의 경건한 호위 병사를 욥바로 보냈는데, 그들은 아마 시원한 밤에 길을 나섰을 것이다. 그들이 욥바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 날 정오 무렵이었다. 그들이 욥바에 도달할 무렵에 베드로는 정오 기도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도 고넬료처럼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이처럼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의 기도시간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바치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시간과 오후 3시경에 기도회를 연다. 저녁기도는 해진 후에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오후기도와 겹치기 때문에 회당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탈무드는 이 저녁기도회가 희생제사와 무관하게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에 추가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누가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언급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성전제사와 회당기도회 시간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들 기도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다.

### 정(淨)한 것과 부정(不淨)한 것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던 중에 본 환상은 짐승들이었다. 점심시간 때라 시장하던 참이었는데, 하늘에서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긴 그릇이 내려왔고, 그것들을 “잡아먹어라”(13절)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에

따라 안식일법, 음식조리법, 그릇씻기법, 손씻기법 등을 지키고 있었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15절)는 소리가 들렸고, 세 번 반복된 후에 환상이 끝났다. 같은 환상을 세 번 보여주신 것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不淨)한 것, 정(淨)한 것, 거룩한 것으로 나뉘고, 부정한 것(treyf)을 멀리하고, 정한 것(kosher)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한(kodesh) 삶이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진 네 발 가진 짐승, 새김질하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말한다. 따라서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육식하는 조류, 기는 조류, 곤충, 파충류 등은 부정한 짐승에 속하였다. “잡아먹어라”는 하늘의 소리에 베드로가 거부한 것은 그가 본 것들이 다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14-15절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과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대조시키고 있다. 여기서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 갖는 편견이고,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은 2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 경외자”를 말한다. 비록 유대인은 하나님 경외자라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무엇을 만지거나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된다. 하나님 경외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은 유대인이 지키는 음식조리법, 그릇씻기법, 손씻기법 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하고 있었다. 이들 규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방인과의 교제를 차단하려는 것들이었다. 이방인들을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자들로 속단하고 교제 자체를 차단시켰을 뿐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겠는가? 이것

이 히브리파유대인들의 의식의 한계였고, 예루살렘교회 창립 이후 십여 년째 복음전도활동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이유였다. 이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꿀 시기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깨우침을 주셨다.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가나안땅에 이방인교회를 세우길 원하셨고, 그 일의 승인권자인 베드로를 보내기를 원하셨다. 그러자면 이방인이 부정하다는 베드로의 편견부터 고칠 필요가 있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조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다.

### 가이사랴 교회의 설립

베드로에 의해서 가나안땅에 이방인교회가 들어선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11장을 보면, 예루살렘교회는 이 사건을 충격으로 받아드렸다.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들어섰을 때 이를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승인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다. 사마리아인들도 이스라엘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넬료는, 비록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을지라도, 여전히 부정한 이방인이었다. 만일 히브리파유대인들의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원간에 세워질 안디옥교회가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도 먼저 가나안땅에 이방인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의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필연적으로 한바탕 소동이 빚어 져야했다. 더 큰 위기를 막고 더 큰 기회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히브리파유대인들의 완고하고 편협하며 배타적인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점진적인 방법을 취하셨다. 먼저 히브리파유대인 베드로에 의해서 완전 유대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하셨고, 헬라파유대인 빌립으로 하여금 절반 유대인들

의 교회가 사마리아에 들어서게 하셨으며, 다시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 하나님 경외자들의 교회가 가이사랴에 들어서게 하셨다. 곧이어 박해로 흩어진 헬라파유대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들어서게 하셨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신성한 이름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안디옥교회를 전진기지로 삼아 로마제국 전역에 이방인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사도들이 승인토록 하셨다. 그 후 20여년쯤 지난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히브리파유대인들의 기득권도 소멸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교회들이 사도전통 위에서 신약교회로써 발전되어가도록 하셨다. 민족성별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죄 사함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구원을 보증 받고 인침 받게 하셨으며,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히브리파유대인들의 인식을 바꿔놓으시려고 오순절 때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11:17). 이 같은 강한 역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넬료 권속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날 때와 마찬가지로 침례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임한 것으로써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인 다른 방언을 받아 하나님을 높인 것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침례를 받고 죄 사함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구원의 보증과 인침을 받게 되었다.

가이사랴에 세워진 이방인교회는 기도의 열매였다. 기도시간에 천사가 응답을 갖고 왔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세워진 교회가 공유했던 신사상은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담겨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

둘째,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민족성별 빈부귀천을 차별치 않으신다.

넷째,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다섯째,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섯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 23.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9(행 11:1-30)

## 설교시간에 찾아오는 응답

가이사라에 이방인교회가 들어선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11장은 예루살렘교회가 이 사건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한다. 이방인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지라도,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계명과 율타리 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교회가 세워진지 10여년이 흐른 이때까지도 히브리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인들' 또는 사람들이 '나사렛파'(Notzrim)로 부르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루살렘교회의 이러한 소동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빛과 생명이 되기 위한 불가피한 과도적 현상이었다.

베드로는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이사라 행적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17절이 그 내용이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해명을 듣고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서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누가문서는 기도시간과 설교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임을 강조한다. 기도시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천사가 응답을 갖고 왔으며, 환상이 보였고, 옥문이 열렸다. 설교시간에

고넬료와 그 권속이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세례를 받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앓은뱅이가 고침을 받게 된다(14:8-10). 사도들이 6장 4절에서 “오로지 기도와 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주의 만찬과 침례가 그것들이다. 이 가운데 설교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고, 보이는 말씀인 주의 만찬과 침례는 듣고, 보고, 맛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2장 42절을 보면, 예배의 4대 요소인 설교, 교제, 떡 떼, 기도 가운데서 설교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리스도께서 설교하는 것”이고, “설교 중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설교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을 수 있다. 종교개혁자 칼뱅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였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제자 불링거도 1566년의 <제2헬베티아 신앙고백서>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적었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기도시간과 함께 설교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은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한 말씀에서도 입증된다.

## 위기는 곧 기회

19-21절은 사울의 박해로 흩어진 헬라파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시리아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던 것이다.

흘어진 헬라과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구브로 섬 출신과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로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부정한 백성들로 생각하는 이방나라에 그 부정한 사람들로 이뤄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발전이 배척과 탄압의 위기에서 이뤄졌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박해라는 위기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헬라과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누가의 보도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순에 따른 것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몇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지방과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따라서, 그 주역이 본토출생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들로 바뀌어 갔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의 히브리파에서 점차 스테반, 빌립, 바나바, 바울 등의 헬라과유대인들로 주역이 바꿨다.

둘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지방과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하나님 경외자와 완전 이방인에게로 확대되었다.

셋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지방과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따라서, 초기에는 히브리과유대인 통치권자들의 가벼운 박해로 시작하여 점차 사울과 같은 헬라과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는 복음이 한 곳에 정체되는 것을 막고 지속적으로 흩어지게 하였다.

넷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지방과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 약간의 갈등

과 소동이 있었다. 최초의 갈등은 외국태생의 헬라파유대인 과부들을 소홀히 대접한데서 생겨났다. 이 갈등은 헬라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 일곱 사람이 뽑히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또 베드로의 가이사라 행적의 결과로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의 이방인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벼운 소동이 일어났다. 이 소동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결과를 낳았다.

다섯째, 사도들의 권위와 승인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교회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미 주후 40년대부터 안디옥교회가 세계선교의 전진기지로 세워지고 있었다. 선민사상에 기초한 민족주의적 배타주의보다는 만민구원에 기초한 세계주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바나바의 인품과 믿음

시리아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사도들에게 전해졌다. 이 소문을 듣고 사도들은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유대인들과 동향인이었다.

바나바는 헬라파지도자 일곱 사람에 들지는 못했지만, 인품과 믿음만큼은 그들보다 뛰어났다. 그 때문에 누가는 바나바를 일곱 사람보다 훨씬 앞서 소개하였다. 게다가 24절은 일곱 사람에게 사용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6:3)과 비슷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11:24)고 칭송하였다. 차이점은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란 말 대신에 “착한 사람”과 “믿음이 충만한 자”란 표현을 쓴 것이다. 미묘한 차이지만, 일곱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인 반면, 바나바는 지혜와 높은 평판은 없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세간의 평판보다는 인품이 선하고 믿음이 듬직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파송된 이후로 안디옥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졌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예루살렘교회에 부조금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부흥하였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가까운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 언제 왔는지, 성전봉사에 참여했는지, 처분한 땅이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려진 것은 없지만, 땅을 처분한 돈을 성전이나 회당에 바치지 않고, 교회에 바쳤다는 점이 주목되는 점이다(4:37). 이후 사울의 박해 때 그는 구브로를 거쳐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동향인들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알려진 것은 없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4:36)이란 뜻으로 붙여준 별명으로써 본명은 요셉이었다. 바나바에 대한 사도행전의 평가는 칭찬일색이다.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11:24), 화목케 하는 사람(11:27), 긍정적인 사람(9:26-27), 행동하는 사람(9:27), 인정받는 사람(4:36, 11:22,25), 협동하는 사람(11:25-26),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11:24), 기도하는 사람(13:1-2), 순종하는 사람(11:22, 13:2-4), 신령한 사람(11:23, 13:2), 헌신하는 사람(4:37),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11:26)이었다는 것이다.

바나바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바울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대면을 꺼려하는 사도들에게 면담을 적극 주선하였다. 또 바나바는 터키 남단에 위치한 고향 다소에 돌아가 칩거하던 바울을 찾아내 데려와서 안디옥교회를 맡겼으며, 자신은 오히려 그를 조력하고 돕는 자로 자세를 낮췄다. 바나바는 기꺼이 기득권을 버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바울을 주연으로 내세웠으며, 자신은 조연으로 내려앉은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불세출의 인물, 바울을 키워냈다. 이 두 사람은 합심해서 일 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또 함께 선교여행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26절). 27-30절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임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로부터 부조금을 받아야할

정도까지 상황이 역전되고 판도가 바뀔음을 보여준다. 결국 하나님의 일의 성패까지도 인간의 인품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 24. 새 언약 백성의 위기와 기회10(행 12:1-25)

### 헤롯 왕가의 인물들

헤롯 왕가의 인물들은 실존인물이기 때문에 연대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1절의 헤롯왕은 아그립바1세로서 54세 때인 주후 44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연도와 베드로가 탈옥 후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된 지 14년 만인 주후 44년에 생긴 일이다.

헤롯 왕가는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로마제국의 꼭두각시로써 팔레스타인을 통치하였다. 시조는 '안티파테르'로서 예서의 후손인 이두매인(에돔)이었으며, 할례를 받고 개종한 자였다. 신약성서에 실린 안티파테르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출생 때 아기들을 살해한 헤롯 대왕, 세례 요한을 죽인 안디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아그립바1세, 바울을 심문한 아그립바2세가 있다. 여성들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헤로디아는 삼촌 빌립1세와 삼촌 안디바의 아내가 되었고, 아그립바1세의 딸들 가운데 두루실라는 바울을 주후 58년에 가이사라의 옥에 가둔 로마총독 벨릭스의 아내였으며, 바울이 심문받을 때 오빠인 아그립바2세 옆에 앉았던 버니게는 미인으로써 삼촌인 칼시스의 헤롯왕과 길리기아의 왕 폴레몬2세의 부인이 되었다가 나중에 로마황제 티투스의 정부가 되었다. 버니게는 오빠 아그립바2세와의 관계를 늘 의심받고 있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인 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뒀던 아그립바1세는 폭군 칼리굴라와 로마에서 동문수학한 자였다. 칼리굴라는 아그립바1세에게 왕의 칭호와 함께 역대 헤롯 왕들이 통치했던 대부분의 영토를 통치토록 하였다. 그의 할머니가 유

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도 역시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고자 힘썼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야고보의 살해와 베드로의 투옥이었다. 그는 주후 44년에 급사하였다. 당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와 누가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아그립바1세가 황제의 안녕을 비는 축제(8월1일) 때,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와 연설을 했고, 아침 햇살에 그의 옷이 반짝거리자 참석자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22절)고 아침을 했으며, 그가 갑작스럽게 죽은 것은 이 불경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것이다(23절).

사도 야고보의 순교는 스테반의 순교가 있는지 10년 만에 일이었다. <교회사>를 남긴 4세기의 유세비우스 감독은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한 군인이 야고보를 재판자리까지 인도했는데, 야고보의 증언에 감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여 야고보와 함께 참수를 당했다고 전한다.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는 이후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이즈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교회의 수장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톨릭교회는 베드로가 이때에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초대 감독이 되었으며,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로마교회의 감독(교황)들은 베드로의 계승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베드로는 이때쯤 안디옥교회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고(갈 2:11), 51년경에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다(15:7).

## 교회성장의 역설

12절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 구절 때문에 주후 30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지나친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예루살렘교회가 시작된 지 14년이 지난 이 무렵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유대인들이 평소 드리던 '베라코트'였는지, 또는 자유로운 개인기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군사들의 감시가 철저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석방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은 인지상정이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전후반부가 매우 분명하다. 사도행전의 경우 12장까지가 전반부인데, 베드로의 행적을 주로 적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즉 복음이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전파된 전도이야기이다. 13장부터 28장까지가 후반부인데, 바울의 행적을 주로 적고 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즉 복음이 지중해 연안 세계에 전파된 선교이야기이다. 그런데 누가는 전반부에 3개, 후반부에 3개 총 6개의 중요한 문구를 적고 있다. 전반부 3개의 문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져가고,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으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다. 후반부 3개의 문구는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지고, 세력이 커졌으며, 복음전파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6개의 중요한 문구는 모두 위기를 극복한 결과에서 비롯된 열매임을 밝힌 것들이다.

첫 번째가 6장 7절인데, 헬라파에서 일곱 사람의 지도자를 뽑아 세움으로써 히브리파와의 갈등을 해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가 9장 31절인데, 교회를 탄압하던 사울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세 번째가 12장 24절인데,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욕에 가뒀던 박해자 아그립바1세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16장 5절인데, 이방인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키로 하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교리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승인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선교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가 19장 20절인데, 에베소를 거점으로 한 소아시아 선교 때 여러 형태의 위기들을 극복했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28:31), 비록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2년간 감금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는 “제자”란 말이 30회 이상 사용되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도행전에 2회, 신약성서 전체에 3회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 자신들을 일컬어 부른 자의식에서 비롯된 호칭인 반면, 비록 사용 횟수는 적지만,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 타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컬어 부른 외부적 호칭이었다. 이사야 62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은 외적 수동적 호칭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15년 정도 걸렸으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외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제자들이 다름 아닌 시리아 북부의 대도시 안디옥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헤롯 아그립바2세(26:28)와 베드로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베드로는 남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 4:16)고 권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일컬음을 받다”로 번역된 동사, ‘크레마티조’는 공공에 비추진 인물이나 어떤 이름이나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쓰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에 종사한다면, 그는 비즈니스맨으로 불리고, 의술에 종사한다면, 의사, 송사를 맡아 변호한다면, 변호사, 목회에 종사한다면, 목회자로 불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8세기말부터 신약성서교회를 회복하려고 힘썼던 미주의 개혁가들은 그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불렀다. 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운동을 펼쳤다. 첫째는 이사야 62장 2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에 입각하여 그 어떤 다른 인위적인 이름들의 사용을 거부하고,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이 신성하고 단순한 이름 안에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꾀하였다. 그래서 그들 자신들의 호칭을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로 불렀고, 총회조직을 갖추고 전국교회연합(NCC)과 세계교회연합(WCC) 등에서 활동하기를 원했던 다른 줄기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혹은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등으로 호칭하였다. 이런 이름들의 교회들과 교인들은 전 세계에 대략 십만 교회와 천만 성도에 달한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교회에 부조금을 보낸 때는 주후 46년경이었다. 당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 20장 5절에 의하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유대 지방의 기근은 주후 45년에 있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금 선교로 얻은 결과는 짧은 일군 마가를 안디옥에 데려온 것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얻게 하시며, 결코 실패

가 없으시다.

## 25.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1(행 13:1-12)

### 선지자들과 교사들

사도행전 13-28장까지의 후반부는 주후 46년부터 63년까지 대략 18년간 바울을 중심으로 펼쳐진 “땅 끝까지” 선교이야기이다. 1-12장까지의 전반부는 주후 30년부터 45년까지 대략 16년간 베드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이야기이다. 이 무렵 안디옥교회에는 아직 불박이 목회자인 장로가 없었던 것 같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안수한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도들처럼 1세기 말엽까지 떠돌이 전도자로 활동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사도적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성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대한 훈계를 빼놓지 않고 있다. 새 언약 백성의 옳고 그름의 잣대는 모세의 율법이나 헬라인들의 지혜(철학)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의 전통이었다. 이 기준을 통과한 글들이 정경 신약성서 27권이다.

선교교회들에 최초로 장로를 뽑아 목회자로 세운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었다(14:23). 사도, 선지자, 교사와 같은 떠돌이 전도자시대가 완전히 끝난 2세기부터는 지역교회들이 전적으로 장로(감독)들의 사목을 받았다. 주후 392년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성체성사(Mass)의 영향으로 장로들이 ‘사제’(제사장)로 불렸고, 사제(장로) 밑에 부제(집사), 사제 위에 주교(감독), 주교 위에 대주교, 그 위에 추기경과 교황이란 직제가 생겼다.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는 ‘사제’를 ‘목사’(목자, 장로)로 고쳐 부름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녹스가 개신교에 평신도 장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 장로교회이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한 사람인 ‘니게르’(Niger)는 라틴어로 ‘검은’이라는 뜻이다. 리비아 남쪽에 붙은 나라, ‘니제르’의 이름이기도 하다. 니게르가 흑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의 이름이 ‘시므온’인 것을 보면, 헬라파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만일 유대인이었다면, 니제르 출신이었거나 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검었을 가능성이 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옛 해안 도시 ‘구레네’ 사람이었다. ‘루기오’(Lucius)는 라틴어로 ‘밝은’이란 뜻이다. ‘니게르’하고는 정 반대의 뜻이다. ‘구레네’는 리비아의 옛 해안 도시이다. 사도행전에 ‘구레네’가 4번 언급되었다.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2:10), 회당에서 스테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6:9), 사울의 박해 때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11:20)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헬라파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마나엔’(Manaen)은 히브리어로 ‘므나헴’의 헬라식 이름이며, “위로 자”란 뜻으로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나바와 비교가 된다. ‘마나엔’은 유년시절 헤롯 궁에서 안디바와 함께 지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나엔’의 선조는 에센파 소속으로 헤롯 대왕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한 집안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살해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피부가 검은 사람, 하얀 사람, 귀족, 평민, 유대인, 이방인 등으로 고르게 구성되었다.

### 모험에의 도전 및 선교전략

헬라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사고는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피부가 검은 희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이란 열린 사고였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배타적 폐쇄적 선민사상을 과감히 버리고, 민족성별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고, 값이 없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새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이 열린 새로운 복음적 사고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짧은 시간으로 로마제국의 국교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또 헬라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섰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빛과 생명의 창조자이셨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빛의 일, 생명의 일, 살림의 일을 하기 위한 모험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열린 사고와 도전정신이 세상을 평등사회로 바꾼 원동력이었다.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 이 일은 바울이 개종한지 10여년 만에 이뤄진 일이며, 이 일은 바울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속되었다. 13-14장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와 함께 한 제1차 선교(46-48년)로써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인 선교전략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이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13:2).

둘째, 기도와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13:3).

셋째, 누구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였다(13:4-5).

넷째, 고향과 그 인근 지역을 먼저 찾아갔다(13:4).

다섯째, 지역의 유력한 인사를 먼저 찾아갔다(13:7).

여섯째, 사람이 많은 중심지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제자들을 훈련하여 자신이 가지 못하는 주변지역에 파송하였다(13:5-6,14).

일곱째,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였다. 일행은 먼저 유대인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13:5,14,43,46).

여덟째, 교회를 세운 후에는 장로를 뽑아 목회자로 세웠다(14:22-23).

아홉째,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 선교보고를 하였고(14:26-27), 안식년을 보냈다(14:28).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의 선교정책은 자급자족, 자치, 자선(自宣) 즉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는 토착교회로 훈련하는 것이었다. 토착의 의미는 침투한 곳에 뿌리를 내려 성장하고 번성하여 가는 것을 말한다.

바울 일행의 제1차 선교여행은 수리아 안디옥(터키 최남단)에서 출발하여 25KM 정도 떨어진 항구도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208KM 떨어진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동쪽 도시 살라미에 상륙하여 160KM에 이르는 섬을 도보로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기까지 전도하였고, 다시 배타고 터키로 올라가 벵가를 통과하여 비시디아 도(道)에 이르러 여러 도시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지에서 전도하였다.

### 제1차 선교지역(1)

지상에 교회가 출범된 지 16여년 만에 교회차원의 선교가 최초로 이뤄졌다. 안디옥교회의 파송선교사들이었던 바울은 40대 초반, 마가는 30대 중반이었다. 바나바는 마가의 사촌이나 삼촌이었기 때문에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당대의 기대수명이 50세 미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바울의 연령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마가는 그중 젊은 사람으로서 수행원에 불과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며 '망치'란 뜻이다. 흔한 이름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에 나라를 빼앗긴지 422년 만에, 그리고 1948년 국가를 재건하기까지, 나라 잃은 2,534년 기간에 유일하게 100년간 주권을 되찾게 해준 영웅 유다 마카비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볼 때, 그도 바나바와 바울과 마찬가지로 헬라파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고향이 바나바와 같은

구브로 섬이었는지도 모른다. 마가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으로써 요나와 같다. 그는 침례를 베풀고, 짐을 지거나 숙식을 정하는 잔일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로 파송된 이들 선교사들이 향한 곳은 팀장인 바나바의 친인척이 거주하는 구브로 섬이었다. 이 섬은 주전 57년에 로마에 합병되었고, 구리광산이 있어서 다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에 구브로 섬의 주신(主神)은 아프로디테(비너스)였다. 이 여신이 이 섬 앞바다에서 태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아프로디테 신전들은 성창들의 난잡한 의식과 매춘으로 악명이 높았다.

선교사들이 섬의 행정수도인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이 터졌다. 구브로의 로마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다. 그는 네로 황제의 개인교사였던 세네카의 형제였다. 총독의 종교고문직을 맡고 있는 유대인 바예수가 있었다. '바예수'란 '예수(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행이었다. 바예수는 마술사(엘루마)였다. 총독이 그에게 종교고문직을 맡긴 것을 보면, 그가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거나 입교한 하나님 경외자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총독이 바울의 복음전도에 관심을 보이자, 바예수는 총독의 신임을 잃게 될까봐 선교사들의 전도노력을 훼방하였다. 이 때 바울은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들어 물러서게 만들었다.

누가는 로마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때로부터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라틴어로 '작은 자'란 뜻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큰 자란 뜻의 사울이었을 때에는 바나바의 주도권 아래 있었지만, 작은 자란 바울로 개명한 이후로는 오히려 바나바가 바울의 주도권아래 놓였다는 점이다. 바나바로서는 마술사를 소경으로 만들고 로마총독을 개종시킨 바울의 카리스마를 부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름을 바꾼 바울은, 추측하건데, 계획에 없던 비시디아 지역 선교를 밀어붙

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변화, 즉 주도권 변경과 계획에 없던 연장 원정에 대해서 마가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고 반발했을 것이고, 바나바는 바울을 홀로 떠가게 할 수가 없어서 동행을 결심했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그들은 곳곳에 매복된 위기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그 위기 뒤에는 언제나 기회가 그들을 반겼다.

## 26.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2(행 13:13-52)

## 새 여호수아서: 새 언약 백성의 강력한 진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새 출애굽기와 새 여호수아서에 해당된다. 탈버트(Talbert)와 같은 신학자들은 이 두 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연결되어 등장하는 연속전기 형태로 보지만, 그 유형이 당대의 전기문학형식에 가까운 면도 있지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가 옛 언약 백성의 문자적 가나안땅 입성기인 반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새 언약 백성의 하늘 가나안땅 입성기인 동시에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와 새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힌 후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아니란 점,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실 때,” 곧 죽음의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그동안 비밀에 부쳐왔던 당신의 정체성, 곧 메시아인 사실을 공개하고, 인류의 죄 대속과 하늘 가나안땅을 향한 새 출애굽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야한다는 점, 그리고 요한의 때로부터 이 하늘 가나안땅을 향한 “침노” 즉 강력한 진군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다.

민중이 고대하던 새 세상은 지상 가나안땅의 회복이었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새 세상은 하늘 가나안땅이었으며, 이 하늘 가나안땅은 “침노”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었다. 여기서 “침노”는 폭력(violence)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나안땅 점령을 위한 강력한 진군(forceful advance)을 의미한다. 이 “침노”

는 여호수아가 주도한 히브리민족의 가나안땅 점령에 그 예표가 있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제자들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에 있다. 따라서 “침노”는 복음전도예의 도전, 그에 따른 위기, 위기 뒤에 오는 교회성장의 기회를 말한다. 옛 언약 백성인 히브리민족이 가나안땅을 정복한 것은 주인 없는 땅을 쉽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메뚜기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을 상대하여 당당히 쟁취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도전을 통해서, 모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강력히 진군함으로써, 그 위기 뒤에 오는 기회를 쟁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침노”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와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에 연결되며, 그 예표가 여호수아서 1장 1-9절에 있다. “...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 제1차 선교지역(2)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를 제압하고, 로마총독 서기오 바울을 개종시킨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계획에 없던 비시디아

지역 선교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기울었고, 이에 반발한 마가는 배로 버가까지만 동행한 후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나바는 바울과 동행하였다. 이유야 어떻든 그들의 도전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침노” 또는 강력한 진군에 해당되었다. 진군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그 첫 희생이 수행원이었던 마가를 떠나보낸 아픔이었고, 적들의 반격과 공격을 막아내야 했다. 그러나 위기 뒤에는 언제나 기회가 그들을 반겼으므로, 가는 곳마다에 교회들이 들어섰다.

13-14절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는 이 짧은 두 구절 속에는 선교여행의 위험과 고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다. 여기서 생략된 이야기는 10여년 후 기록된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수록되어 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구브로(키프러스)에서 터키 남단의 버가까지는 뱃길로 대략 160KM 정도이다. 버가에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다. 다이아나 여신은 숲을 감독하고 사냥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역임을 암시한다. 바나바의 묘지가 이곳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약 200KM이며, 세바스테 길(Via Sebaste)이라 불리는 도로가 뚫려있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자면, 버가에서 80KM 지점에 해발 3천 미터 이상 높이 솟은 토로스(타우루스)라 불리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이 산중에 호모나데스(Homonadesians)라 불리는 강도들이 창궐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길이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10여년 후 바울은 자신의 선교여정들을 회상하면서 강

도의 위험을 언급하였다. 그나마 다행했던 점은 이 산 중에 아다다(Adada)라 불리는 도시가 있었고, 여행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대상들의 집(Caravan Saray)이 있었다. 이 아다다에 교회가 세워졌던 흔적이 남아 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곳에 등장한다. 실제로는 안디옥이란 지명이 16개나 된다고 한다. 안디옥이란 지명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의 네 명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인 셀류쿠스가 알렉산더 사후에 자신의 왕조를 세우고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 내에 16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모두 안디옥으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남 갈라디아 지방의 수도였다. 구브로 섬의 로마총독 서기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이었다고 한다. 이 지역에 강제로 이주당한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고, 바울의 선교전략 가운데 한 가지는 유대교 회당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유대교 회당이 있던 자리에 주후 325년에 세워진 바울 기념 예배당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 바울의 첫 설교

15절에서 보듯이, 회당장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더러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한 것은 오늘날과는 달리 당대의 유대교 회당에는 목회자가 없었고, 장로들이 주재하였으며, 성서는 일주일에 세 번,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아침기도회 때에 그 주간의 분량을 낭독하였는데, 성서낭독 후에는 누구나 지명을 받거나 자원하면 설교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회당은 복음을 위한 준비된 도구였고, 바울은 이것을 십분 활용하였다. 아마 바울은 바리새인의 복장을, 바나바는 레위인의 복장을 하고 있어서 설교할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기도회 때 두 곳,

모세오경과 그 밖의 책들에서 성경을 낭독했던 것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매년 모세오경을 완독하였고, 그 밖의 구약성서의 글도 함께 읽었다. 이 전통을 따라 기독교도 십 수 세기 동안 예배 때 세 곳, 구약과 복음서와 그 밖의 신약성서의 글에서 읽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토라)에 특별한 예를 갖췄던 것같이 기독교는 사복음서에 예를 갖췄다.

설교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16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청중들 가운데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13장에서만 이들 헬라인들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16절),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43절), “경건한 귀부인들”(50절)로 표현되었다. 에베소와 골로새의 중간쯤에서 조금 남쪽에 여신 아프로디테를 주신으로 섬겼던 또 로마가 사랑했던 도시 아프로디시아스에서 1977년에 발굴된 2세기경 회당건립 후원자 명단이 새겨진 기념비에는 유대인 가장이 69명, 하나님 경외자의 가장이 54명이나 되었고, 완전개종자도 3명이나 있었다. 이들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들은 기독교복음을 세계로 뻗어가게 하는 징검다리였다.

16-41절은 바울의 첫 설교내용이다. 하나님은 떠돌이와 노예였던 한 백성을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건지셨고,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그 후 사사들과 왕을 주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흠족해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후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전하였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시민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대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늘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롭다하심을 얻게 못하는 모세의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하심을 입으라고 설교하였다.

이 설교를 듣고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따랐으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탄압함으로 이방인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반면에 이방인들 중에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창립멤버가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다른 도시로 피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또 다른 도전과 기회를 안겨주었다.

## 27.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3(행 14:1-28)

### 유대교 회당: 황금어장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제일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파한 것은, 첫째로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회당에는 따로 목회자나 설교자가 없었고, 안식일 아침기도회 때 성서를 낭독한 후에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가 설교할 수 있는 제도 때문이었다. 둘째는 회당기도회 때 유대인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들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대의 회당기도회 제도와 이들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들은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들이었다. 특히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의 손님들 즉 문의 개종자(문안의 객)인 절반개종자들이어서 기독교복음을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바울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였다.

터키의 고대 도시인 에베소와 골로새의 중간쯤에서 조금 남쪽에 여신 아프로디테를 주신으로 섬겼던 도시 아프로디시아스에서 1977년에 발굴된 2세기경의 회당건립 기념비에 유대인 가장 69명, 문의(절반) 개종자 가장 54명, 의의(완전)개종자 가장 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전체 이름에서 이방인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45퍼센트에 달했다. 이 자료가 증명하듯이, 하나님 경외자들에 대한 증거는 성서 안은 물론이고, 밖에도 많다.

첫째, 사도행전에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자'로 소개되었다. 유대교개종자 안디옥 사람 니콜라(6:5), 이디오피아 내시(8:27), 로마백부장 고넬료(10:1-2),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회당의 헬라인들(13:16,43), 이고니온의 유대인회당의 헬라인들(14:1), 빌립보의 루디아(16:14), 데살로니가의 유대인회당의 헬라

인들(17:1-9), 베뢰아의 유대인회당의 헬라인들(17:12), 그리고 고린도의 유스도(18:7)가 그들이다. 복음서에도 갈릴리 가버나움의 백부장(막 8:5)이 하나님 경외자로 소개되었고, 신학자 헝겔은 누가도 그의 해박한 구약성서와 유대교관련 지식을 미뤄볼 때 ‘하나님 경외자’였음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

둘째, 성서외적인 증거들도 적지 않다. 네로의 아내 폼페이 사비나(Poppaea Sabina)가 하나님 경외자였다. 로마황제 안토니누스도 하나님 경외자로 꼽히고 있다. 예루살렘 탈무드(Megillah 3.2.74d)에 따르면, 그는 유대교회당에 메노라(등대)를 기증하였다. 히브리대학교의 쉬무엘 사프라이(Shmuel Safrai) 교수는 소아시아에서 발견된 다수의 비문들에서 유대교회당에 기부금을 낸 ‘하나님 경외자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시아 중부 브리기아 아크모니아(Akmonia)의 회당에서 발견된 1세기의 비문에는 ‘줄리아 세베라(Julia Severa)라는 여인에 의해서 회당이 건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여인은 네로시대 때 황제숭배 제사를 주관한 고위직 여사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여인이 ‘하나님 경외자’라는 명시적 증거는 없어도 유대교회당에 기부금을 내고, 유대인들과 유대관계를 맺었던 이방인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소아시아 사데(Sardis)에서도 유대교회당이 발굴되었다. 본관에 있었던 명판에는 “사데의 시민이요 하나님 경외자인 아우레리오스 헬모게네스(Aurelios Hermogenes)인 본인은 신께서 내리신 재능들을 가지고 일곱 줄기로 된 메노라(등대)를 만들었다(혹은 기부하였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 하나님 경외자들의 책무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부과된 책무는 무겁지 않았다. 1세기 헬라파유대인사회에서는 “만약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실현되었다면 할례의 외적 의식이 생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대의 헬라파유대인과 히브리파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견해차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실려

있다. 헬라파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스(Ananias)는 주후 40년경 아디아벤(Adiabene)의 왕인 이자테스(Izates)의 교사이자 상인이었다. 그는 왕이 유대인에게 지배받는다든 백성의 반발을 우려하여 할례받기를 주저하자, 왕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유대인의 종교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충고하였다. 반면에 히브리파유대인이었던 엘레아자르(Eleazar)는 나중에 이자테스 왕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은 불경죄라고 충고하였다. 그러자 왕은 즉각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

팔레스타인에서든 외국에서든 지역을 불문하고 엘레아자르와 같은 보수적 인물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전체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 경외자들'이라 할지라도, 2급 시민에 불과하였고, 유대교도들의 묘지에 묻힐 수 없었으며, 여전히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경외자들에게는 613개의 계명과 율타리 법들을 포함한 율법 전체의 준수가 요구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노아의 일곱 개의 율법이 요구되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외자들을 '노아의 자녀들'(B'nai Noah)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대인들은 이 일곱 개의 율법이 최초의 하나님 경외자였던 아담과 노아에게 주어졌던 것이며, 지금도 다가올 세상(올람하바)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유효하다고 믿고 있다. 이들 일곱 개의 노아의 율법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둘째,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 셋째, 간음하지 말라; 넷째, 살인하지 말라; 다섯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섯째, 동물의 살코기를 산채로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일곱째, 사법체계를(공의의 재판정을) 만들라 이다. 사도행전 15장에 소개된 사도총회에서 결정된 네 가지 금지사항들, 즉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금하라는 야고보의 절충 제안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는 헬라파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청중들 역시

헬라과유대인들과 그들의 회당에 출입하는 헬라인들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고향의 회당들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을 만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극심한 박해를 무릅쓰고 끈질기게 유대교회당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는가? 유대교회당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어장이었기 때문이다.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은 한 분 참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영원한 삶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들과 지역 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자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고문헌과 고고학 발굴로 확인이 되었고, 누가문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해 주었다.

### 제1차 선교지역(3)

터키는 광활한 나라로써 뜨겁고 건조한 여름과 비가 내리는 온화한 겨울의 지중해성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버가에서 비디시아 안디옥(Yalvac)까지 200KM,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Konya)까지 96KM,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Hatunsaray)까지 64KM,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가 36KM이었다. 이처럼 도시에서 도시까지의 거리가 수십 혹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해서 이동에 며칠씩 걸렸다. 당대에는 하룻길인 30KM마다에 여행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대상들의 집(Caravan Saray)이 있었다고 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주하여 이고니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3일 이상이었을 것이다. 2세기에 저술된 <바울행전>에 의하면, 이고니온의 주민 오네시보로가 이고니온으로 오고 있던 바울을 마중 나간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책에 의하면, 바울은 “작은 체구에, 맞닿은 양미간, 코는 좀 길고, 대머리에 다리는 휘었으며, 단단한 체격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다.

이고니온에서의 선교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세

력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고, 부득이 또 도주하여 이틀거리인 루스드라로 향하였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견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표적이 일어났다. 이에 주민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착각하였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전의 주신(主神)이며,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마이아(아틀라스의 딸)사이에서 태어난 신들의 전령이다. 소문을 듣고,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13절). 이에 바울은 무리를 말리며 말하기를,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우상숭배를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우매한 행위들을 허용하고는 계시지만,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며,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복을 주고 계시다고 설득하여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고 갔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 앞에서 깨어나 하루 쉬고 이튿날 하룻길인 더베로 떠났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생사를 오가며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아마 디모데와 그의 가족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딤후1:5)의 개종이었을 것이다.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하였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22절) 라고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23절) 목회자와 감독자로 세웠다(20:28).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2,000KM 이상을 도보와 해상여행을 하였다. 목숨을 건 전도의 결과로 많은 수의 이방인교회들이 세워졌다. 파송교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성취한 업적을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

고 전하였고, 셀 수 없는 도전(진군)들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기회)의 문을 여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 28.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4(행 15:1-21)

## 구원의 의미: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가나안땅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그 땅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낙원, 엘뤼시온(샬렐리제), 신천신지, 도솔천, 용화세계, 에덴동산, 유토피아, 무릉도원, 아르카디아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실제로 가나안땅의 상당부분은 척박한 광야 곧 사막에 가까운 땅이었고 에덴과는 거리가 멀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떠돌이였고, 노예였다. 따라서 땅은 그들이 수천년간 꿈꿔왔던 '하티크바'(Ha-Tikvah, 희망)였고, '올람하바'(Olam Ha-Ba, 다가올 세상)였다. 이 땅을 처음 꿈꾼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꿈은 최소 430년(최고 645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뤄졌다. 그리고 그 땅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 최고 684년을 넘기지 못하고 앗수리아에 넘어갔고, 남왕국 유다의 경우, 최고 820년을 넘기지 못하고 바벨론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리고 주후 70년까지 유다 마카비가 이끈 유다-헬라 전투의 승리로 단 한번 100년간 왕권을 회복하였으나 총 556년간을 속주민으로 살아야했으며, 유다-로마전쟁의 패배로 주후 1948년 극적인 국가재건 때까지 1878년간을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땅이 없는 떠돌이 소수민족으로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야했다. 이 긴 2534년간 주권이 없거나 땅이 없는 상태로 살아온 유대인들이 꿈꾸고 희망했던 나라,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희망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이 바로 '올람하바'(Olam Ha-Ba, 다가올 세상)이다.

유대인들의 땅에 대한 절박함은 율법준수의 엄격함으로 발전

되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지 50일째 되는 첫 오순절 날 시내 산기슭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고, 계명이며, 토라이다. 첫 오순절 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십계명이었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다. 그 후 하나님의 계명은 총 613개로 늘어났고, 늘어난 계명의 상당 부분이 땅과 성전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게다가 후대의 랍비들은 수많은 율타리 법들을 만들어 사람들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타리법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 골자였지만(마 22:40), 땅을 지켜내고자 한 저들의 절박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가나안땅이 보존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내느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예언자들의 냉정한 판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배신한데 따른 응보였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 살아남는 비결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뿐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만 하는가? 헬라나 로마가 처음부터 강대국이어서 제국이 된 것은 아니었다. 마케도니아나 로마가 이스라엘보다 나라가 컸던 것은 아니었다. 제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제 힘을 키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하고, 도전정신과 위기극복의 지혜를 얻게 한다. 무엇보다 제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장착시킨다.

### 구원의 의미: 기독교

유대인들의 하나님이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유대인들의 땅 중심의 민족적, 배타적, 선민사상의 옳고 나쁨을 떠나서, 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나긴 압박의 세월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하며, 세계통치의 숨은 권력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들이 믿는 하

나눔신앙, 곧 유대교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민족 중심으로 잘못 믿었어도 이 정도인데, 기독교신앙을 바르게 갖고 실천한다면, 그 폭발력이 어떻겠는가?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 가톨릭지배의 암흑기를 거쳐 온 유럽의 질은 그들에게도 불구하고, 유럽이 문명의 상징이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신앙의 긍정적인 면 때문이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영적으로 하늘 가나안땅에서 누리는 참 안식이다. 그 땅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낙원, 엘뤼시온(상젤리제), 도솔천, 신천신지, 용화세계, 에덴동산, 유토피아, 무릉도원, 아르카디아와 같은 곳이다. 그렇다고 현실 세계를 포기하거나 절망적으로 살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을 말세론 또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성서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왜곡한 데서 비롯된다. 오히려 성서는 세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붙이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인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의하고 불평등한 인간의 나라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도록 하신다. 다만,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종국적이고 영원한 삶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 '장차올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소망하고 추구하는 '장차올 더 좋은 것'은 영원하고 참되며 세계적인 것인데 반해,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올람하바'(다가올 세계)는 현세적이고 일시적이며 민족적인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히6:9), '좋은 소망'(히7:19), '더 좋은 언약'(히7:22), '더 좋은 약속'(히8:6), '장차 나타날 좋은 것'(히10:1)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히브리인들도 '더 좋은 것을 사모'하였지만, 그것은 지상의 것이었지, 영원한 하늘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세우신 '더 좋은 계획'에 따라(히11:40)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자들을

위한 ‘한 도시’ 곧 하늘 가나안땅에 새 예루살렘을 마련해 놓으셨다(히11:16)고 밝혔다.

바울도 ‘장차올 좋은 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였다(엡 1:21).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는 말씀이 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성령님은 ‘장차올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의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설명되었다. 광야사막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확실하게 인도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 율법과 복음의 갈등

어떤 히브리파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교회에 율법과 복음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히브리파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중대한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권위와 이방인교회들에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이에 안디옥교회는 시비를 갈려줄 예루살렘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보고도할 겸,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까지 15일 정도 걸리는 먼 길(480KM)을 여행하는 동안, 교회들을 방문하여 이방인 선교결과를 전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4절) 보고하였다. 이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5절)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오랜 시간 토론하였다.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였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7-11절)고 호의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 선교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말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일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가 문의 개종자들에게 요구하는 노아의 법들을 지키도록 권하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20)는 말로 회의를 종결시켰다.

이때가 예루살렘교회가 세워지고 20여년이 지난 주후 50년경이었다. 교회의 승인을 가진 사도들이 기독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오픈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줌으로써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선교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힘입어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과 같은 복음의 정수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지상 가나안땅의 보존에 필요하고, 할례는 그 가나안땅 약속에 대한 증표에 유효하지만, 즉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땅을 약속받고 그 효력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치 않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삶과 윤리적 삶에 도움이 되지만, 하늘 가나안땅에 들어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민

족성별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으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가족의 식구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 29.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5(행 15:22-41)

## 사도총회의 결정

예루살렘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결한 네 가지 금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문의 개종자들, 일명 '노아의 자녀들'(B'nai Noah)에게 요구했던 일곱 개의 율법을 함축한 것들이었다.

노아의 율법들에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있었는데, 이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혹은 경박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둘째,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의 제1-2계명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사도총회가 결정한 “우상의 더러운 것”(20절) 또는 “우상의 제물”(29절)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사도 바울은 후일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숭배를 구별하였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숭배로 보지 않고 양심의 문제로 보았다(고전 10:27-28).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롬 14:20).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후 4:3-5).

노아의 율법 세 번째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는 십계명의 제7계명으로써 사도총회가 결정한 “음행”(20,29절)이 여기에 포함된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로마시대에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 근친상간, 동성애, 매춘이 성행하였고, 아프로디테 신전들에서의 성창들의 난잡한 의식과 매춘 및 바쿠스(디오니소스)축제에서의 원초적인 광란의 제전은 악명이 높았다.

노아의 율법 네 번째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는 십계

명의 제6계명으로써 사도총회가 결정한 “피와 목매어 죽인 것”(20,29절)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스-로마시대에 보통사람들은 죽음, 질병, 전쟁, 폭력, 살인, 납치, 강간, 착취 및 끔찍하고 잔인한 법집행의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살아야 했다.

노아의 율법 다섯 번째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는 십계명의 제8계명에 해당된다.

여섯 번째가 “동물의 살코기를 산채로(피와 함께) 먹지 말라”이고, 일곱 번째가 “사법체계를(공의의 재판정을) 만들라”이다. “동물의 살코기를 산채로(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사도총회가 결정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유대인들의 음식법 ‘카샤룻’에서는 피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지 못하게 한다.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도살을 종교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인 ‘쇼헬’(shochet)이 ‘쉐히타’(shechitah) 방법으로 도살하지 아니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다. ‘쉐히타’의 방식이란 짧은 순간에 피를 완전히 빼내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총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십계명 1,2,6,7계명들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하신 십계명 전체를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사도총회의 판결문

23-29절은 사도총회의 판결문이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선지자들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의 손에 붙여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요셉 바사바(1:23)와 인척일 가능성이 있고, “실라”는 “실루아노”(살전 1:1)라는 로마식 이름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에 팀원으로 누가와 디모데와 함께 참여하였다. 판결문

또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사도총회가 결정한 판결문의 가치는 매우 높다. 사도들은 교회의 열쇠를 권 승인권자들일뿐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이 곧 옳고 그름의 잣대였기 때문이다. 주후 100년경에 시리아에서 쓰인 소책자의 제목이 <열두제자들의 가르침>인 것이나, 3세기 초에 로마의 감독 히폴리투스가 쓴 책의 제목이 <사도전승>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6세기경에 완성된 신조에 ‘사도신경’이라 이름을 붙인 것도 같은 이유, 즉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이 옳고 그름의 잣대였기 때문이었다. 이뿐 아니라, 사도전통은 신약성서 27권이 정경으로 선정되는데 필요한 최우선적인 필요조건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돌아가 사도총회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목회에 전념하다가 이듬해인 주후 51년경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36절)고 제안하였다. 이에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려가겠다고 했고, 바울은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였다. 이것이 제2차 선교여행의 시작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훌륭한 단짝이었다. 그런 그들이 사소한 견해차이로 심하게 다투고,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은 채, 끝내 갈라선 것은, 단면만 본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보면, 능력이 출중한 두 사람이 언제까지나 함께 붙어 다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에 큰 손실이 되었을 것이다. 두 팀으로 선교 팀이 나뉜 것은 재정지원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복음의 확산이 두 배로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파유대인과 헬라파유대인 사이의 갈등으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뽑혔고, 사울의 박해로 복음이 확산되었으며, 율법과 복음의 갈등이 교리의 발전을 가져왔고,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이 복음전도를 배가 시킨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비롯된 것이며, 위기가 기회가 되고, 도전이 기회가 되게 한 것들이었다.

### 누가의 역사기록의 신뢰성

누가문서의 역사기록의 신뢰성은 고고학적 고문학적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베드로, 스테반, 빌립, 바울 등의 역사적 인물들의 설교 또는 연설 내용들도, 오늘날의 신문방송의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증인들의 인터뷰 또는 직접 목격한 것들을 그의 역사적 관점에 맞춰 기록한 신앙적 신학적 해석적 글이다. 그 목적은, 복음서의 기록목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누가문서의 신뢰성을 증명할만한 고고학적 고문학적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시민권에 관한 언급이다. 로마시민이 되면 속주세 면제를 비롯해서 로마법이 정한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다. 그 대신 로마법을 따라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다수는 시민권을 갖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둘째,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는 황제의 군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에게 바치는 충성서약은 곧 우상숭배였기 때문이다.

셋째, 로마는 반골의 근본이 되는 유대교를 합법종교로 인정하였다.

넷째, 로마는 국내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세 징수를 허용하였다.

다섯째, 우상숭배를 금하는 유대교를 고려하여 황제의 옆얼굴을 넣지 않은 유대인만의 통화제조를 허용하였다.

여섯째, 이방인들이 성전 영내에 진입하면 처형하도록 허가하고, 이를 위해 4백여 명의 성전군대를 허용하였다.

일곱째, 로마측이 예루살렘에 보관하던 대체사장의 제의복을 유대측에 돌려주었다.

여덟째, 사형이외의 법집행이 국내의 유대인들에게 가능토록 허용하였다.

아홉째, 반골인 유대인들을 고려하여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가이사랴에 주둔시켰다.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출동해야할 경우에는 황제의 기발을 성안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총독직에서 해임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열째, 타민족에게 없는 안식일 준수를 허용하였다.

열한째, 병역을 비롯한 공직을 면제하였다. 공직자나 군인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금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희망자는 누구라도 군인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었다.

열두째, 그리스인과 동등한 상업적 권리를 헬라파유대인에게 부여하였다.

이 모든 혜택들은, 그러나, 그들의 투철한 반골정신이 만들어 낸 두 차례의 유대-로마전쟁들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었고, 6백여 년간 점령국들의 속주로써 그 명맥을 유지해왔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곳에서의 추방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전쟁의 실패가 준 대가는 너무나 컸다. 60만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노예로 팔렸거나 광산에 보내졌으며, 검투사로 등록되었다. 땅은 황폐해졌고 경작인은 사라졌다. 공회(산헤드린)는 해산되었고, 정치적 자율권마저 빼앗겼다. 예루살렘에

내던 성전세를 로마의 주피터 신전에 바쳐야 했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토지세와 주둔군의 재정까지 부담해야 했다. 유대인들은 깨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졌으며 1948년 5월 14일 건국 때까지 1878년간 모국을 갖지 못하였다.

## 30.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6(행 16:1-10)

### 제2차 선교여행팀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은 주후 51년 혹은 52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출범한지 20여년이 지난 때였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날 때는 동행자가 실라 한 사람 뿐이었다. 두 사람은 도바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 제1차 선교여행 때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당도하였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 깨어난 곳이었다. 이 도시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 여성 로이스와 그녀의 딸 유니게 및 외손자 디모데가 있었다(딤후 1:5).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젊은이였다. 바울은 그를 선교팀에 합류시켜 목회자로 키우고 싶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하였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루스드라에 머물렀을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구원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공격적인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치른 외과시술에 불과하였다. 지역교회의 권유도 있었을 것이다. 성서시대에는 부계혈통이 유대인 여부를 결정했지만, 오늘날에는 모계혈통만이 유대인 여부를 결정한다. 2천년 가까운 유배생활로 부계혈통을 신뢰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이방인일지라도 유대교에 개종하여 할례 받고 개종침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다. 디모데는 유대교인이 되려고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군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할례의 고통을 기

꺼이 감수한 것이다. 교회의 장로들도 유능한 젊은이를 안수하여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였을 것이다 (딤후전 4:14).

젊은 디모데의 합류로 선교팀원은 이제 세 사람이 되었고,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전 4:12)는 말씀처럼 선교팀이 강화되었다. 이들 세 사람이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면서 교회들을 방문하여 예루살렘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판결문을 읽어주고, 유대 교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 일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5절). 도전과 진군에 항상 위기가 따라붙었지만, 위기는 언제나 또 다른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바울의 계획은 터키 서부 아시아의 거점도시에 선교부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여 인근 도시들로 파송하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선교는 제3차 선교여행 때로 미뤄졌다. 성령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가로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시아 북부 무시아 지방 앞에 이르러 흑해에 맞닿은 터키 최북단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힘썼으나 그조차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바울 일행은 할 수 없이 북서방향으로 진행하여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본서의 저자이자 의사인 누가가 팀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팀원은 4명으로 늘었다. 5세기의 베자사본(D)에는 10절의 “우리가”란 말이 11장 27절과 14장 22절에도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누가가 안디옥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 가장 위대한 유산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을 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 환상을 하나님의 지시로 믿고 바울 일행

은 마케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이때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본 사람은 자신보다 350여 년 전에 태어난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알렉산더는 광대한 페르시아제국을 정복했던 영웅이다. 당시 페르시아제국은 오늘날의 그리스 일부,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까지 통치하고 있었다. 바울은 칼이 아닌 복음으로 로마제국을 정복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6년 20살에 왕위에 올랐고, 13년 후 33살의 나이로 죽었다. 알렉산더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정복한 영토가 아니라, 그리스문화를 동방문화와 결합한 헬레니즘을 꽃피우게 한 것이었다. 헬레니즘은 기독교복음의 농장으로써 350여 년간 준비된 것이었다. 신약성서가 헬라어로 쓰인 것,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의 그림자나 모형으로 본 것, 구약을 신약의 예표로 본 것 등은 헬레니즘이 복음의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헬레니즘은 부분적으로 1453년까지 비잔티움제국의 동방정교회 문화 속에 살아남아 있었다.

헬레니즘이란 기름진 토양에 복음이란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헬라파유대인들이었다. 이 복음의 씨앗은 서로마라는 토양에서 긴 세월동안 가톨릭교회로 변질되었고, 동로마라는 토양에서 역시 긴 세월동안 동방정교회로 변질되었다. 원형의 보존은 그나마 동방정교회가 서방 가톨릭교회보다 좀 나은 편이다.

칼이 아닌 평화의 복음으로 예수님과 바울이 세계에 끼친 정신과 문화는 알렉산더가 끼친 헬레니즘을 훨씬 능가한다. 이 성과에 대해서 18세기 영국인 에드워드 깁본(Edward Gibbon)은 <로마제국의 몰락사>(1776-88)란 책에서 다섯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일신교 신앙을 단호하게 지켜냈다는 점; 둘째, 신자들에게 사후의 세계를 보장했다는 점; 셋째, 수많은 기적들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점; 넷째, 신자들이 깨끗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점; 다섯째, 그리스도인공동체들이 일치단결해서 로마제국 내에 독립된 사회를 구성했다는 점을 들

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1965년에 영국인 에릭 도즈(Eric R. Dodds)가 <불안의 시대 안에서의 이교도와 기독교도>란 책을 냈고, 로마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을 네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절대적 배타성이 불안의 시대를 살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되었다는 점; 둘째,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어떤 차별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데 성공했다는 점; 넷째, 일체감이 강한 그리스도인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면 의식주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민족색깔의 차별을 두지 않았던 기독교의 위대한 평등주의, 즉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기독교복음은 인류가 누려온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 강력한 진군(Forceful Advance)

알렉산더는 주전 334년에 기병 5천명과 군함 160척을 포함하여 마케도니아 군과 그리스 동맹군을 합쳐 약 4만여 명을 이끌고, 페르시아 정복을 위해 강력히 진군하였다. 원정군에는 측량사, 기술자, 건축가, 과학자, 궁정관리, 역사가들이 포함되었다.

알렉산더는 가장 먼저 페르시아의 지배아래 있던 그리스 도시들을 해방시켰고, 다르다넬스해협을 건넜다. 원정 초기 5년간은 주로 바다를 낀 서해안을 따라 오늘날의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공략하여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후에는 메소포타미아로 진군하여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엑바타나 등의 여러 도시들을 장악하였다. 알렉산더는 여기서 마케도니아군(軍)과 그리스군(軍) 가운데서 지원자만을 거느리고 다시 동쪽으로 원정하여 이란 고원을 정복한 뒤 인도의 인더스강(江)에 이르렀다. 그러나 군사 중에 열병이 퍼지고 장마가 계속되었으므로, 군대를 돌려 원정 10년차인 주전 324년에 페르세

폴리스로 회군하였다. 다음 해인 주전 323년 바빌론으로 돌아와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에 열병으로 33세에 사망하였다.

바울의 1,2,3차까지의 선교기간은 대략 11년간으로써 알렉산더의 정복기간과 거의 맞먹는다.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을 46년경에 시작하여 제3차 선교여행을 57년 말경에 마쳤다. 물론 바울은 그 후로도 계속 살아남아 67년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34년경에 개종하여 67년경에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일생에 맞먹는 33년간 전도자의 일생을 살았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실제 일생은 35년 정도로 추정되긴 하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33살이란 숫자가 알렉산더와 예수님 그리고 바울의 공적 생애와도 같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칼도 창도 방패도 없었다. 제2차 선교여행 때에는 군사라고 해봐야 고작 자신을 포함해 4명뿐이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취한 전신갑주는 14-17절에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였다. 이런 무기로 무장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는 그리스 공략을 위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알렉산더가 동방원정 때 건넌던 다르다넬스해협 남쪽 초입에 있는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압볼리로 건너갔다. 복음으로 무장한 강력한 진군이였다.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위해서 마케도니아에서 다르다넬스해협을 건너 터키로 향했다면, 바울 일행은 거꾸로 그리스 원정을 위해서 다르다넬스해협 남쪽 초입의 에게해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갔다.

바울 일행은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제국과 그 헬라제국을 붕괴시킨 로마제국이 닦아놓은 통일된 언어와 훌륭한 도로와 항로와 헬레니즘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강력히 진군하였고, 그리스의 알렉산더와 로마의 시저와 폼페이아가 거둔 승전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헬라제국과 로마제

국을 각각 대표하는 그리스와 로마는 오늘날까지도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다.

## 31.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7(행 16:11-40)

## 빌립보 교회 설립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일행의 그리스 선교이야기의 시작이며,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의 이야기이다. 바울 일행은 오늘날의 터키 북서해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알렉산더가 동방원정 때 건넌던 다르다넬스해협 남쪽 초입에 있는 해발 1,650M의 높은 산봉우리를 가진 사모드라게 섬으로 직행하여 이튿날 마케도니아의 네압볼리(Neopolis)에 도착하였다. 복음으로 무장한 강력한 진군이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위해서 마케도니아에서 다르다넬스해협을 건너 오늘날의 터키 서안의 아시아로 진군했다면, 바울 일행은 거꾸로 그리스 원정을 위해서 다르다넬스해협 남쪽 초입의 에게해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다.

‘네압볼리’(11절)는 ‘네오폴리스’ 즉 신도시라는 뜻이다. 빌립보의 외항이며, 19KM 떨어져 있었다. 네압볼리는, 주전 146년에 건설된 총 길이 784KM, 서울부산왕복거리에 해당되는 ‘에그나티아’(Egnatia) 대로가 시작되는 동부지역 출발점이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까지 이 도로를 도보로 이용하였다.

빌립보(12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이며, 금광과 은광이 많은 곳이었다. 빌립보는 주전 42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군대가 율리우스 시저를 암살한 공화정과 브루투스과 카시우스의 군대를 무찌른 곳이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속주지에서 로마의 이주지로 승격시켰다. 이주지 주민들에게는 자치권이 주어지고,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 면제되는 등 이태리인들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졌다.

유대인들이 회당기도회를 가지려면 가장의 숫자가 열 명이 넘

어야 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주후 49년에 로마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사실이 있었다. 크레스투스(Chrestus)라는 사람이 일으킨 소동 때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사회에서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소요가 있었던 것이다. 황제의 칙령은 이주지인 빌립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1-2년 전에 이 도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여 며칠 쉬는 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들이 안식일에 성문 밖으로 나가 기도처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 나섰던 것은 빌립보에 유대인회당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유대인회당은 없었으나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 일행은 거기에 참석하여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가 있었다. 루디아는 터키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의 개종자였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드리게 하셨다.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셨다. 참고로 루디아의 집은 강가에 있었고, 그곳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 그리스의 3만 신들과의 전투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노예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서 혹은 예언을 해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런 일이 여러 날 지속되자, 바울은 그 여자의 몸에 붙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쫓아버렸다.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노예 소녀는 신체적으로도 노예였지만, 영적으로도 노예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몸에 붙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낸 것은 3만 명이 넘는 그리스의 신들과의 최초의 전투이자 승리였다.

둘째, 귀신이 소리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으나 바울 일행의 신분을 노출시킴으로써 전도를 훼방하는 동시에 위해(危害)를 가하려는 것이었다.

셋째, 귀신의 집요한 공격이 주효하여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 태형을 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다. 누가와 디모데는 헬라인이어서 태형과 투옥을 면했던 것 같다. 바울과 실라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전투에서의 아군의 손실에 비교될 수 있다. 이긴 싸움이든 진 싸움이든 싸움에는 항상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싸움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피해도 피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이기고, 정의가 이긴다는 것이다. 이긴 것이 정의이고 이긴 것이 진리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는 언제 이겨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넷째, 바울 일행에게 위기를 몰고 온 귀신의 공격이 꺾이자 노예 소녀는 귀신에게서 놓임을 받았고, 빌립교회의 창립멤버가 되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 것이다.

다섯째,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예언의 영에 사로잡힌 노예 소녀를 만난 것은 우상과 신화의 나라 그리스에 입성했다는 뜻이고, 3만이 넘는 신들과의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노예 소녀에 붙었던 영은 뱀(Python)이었다. 그리스신화에는 예언과 치유와 관련된 왕뱀이야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장소가 세계의 배꼽(움팔로스)이라고 믿었던 델포이었다. 델포이는 주후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고린도에서 멀리 아니한 파르나소스 산 남쪽 기슭에 있었다. 델포이의 직전 지명은 뱀이었다. 신화에 따르면, 이곳에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의 신탁소가 있었고, 가이아는 정자 없는 처녀임심으로 아들 퀴톤, 일명 왕뱀을 낳아 이 신탁소를 책임지게 하였다. 한편 여신 레토는 제우스의 씨를 받아 이란성 쌍둥이인 궁수의 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는데, 아폴론은 출생과 동시에 퀴톤을 활로 쏘서 죽이고 신탁소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퀴톤의 아내인 퀴티아를 사람으로 만들어 신탁소의 제니(여사제)로 삼아 자신이 맡겨놓은 예언(신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델포이의 제니 퀴티아를 통해서 신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가 믿었다. 뱀이 인간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었던 셈이다.

### 사람을 살리는 뱀의 능력

바울과 귀신의 대결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의 거짓 3만 신들과의 대결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델포이 신전 입구 상인방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새겨져 있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신들 앞에서 오만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왕뱀의 영을 몰아낸 바울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세운 것에 비교될 수 있다. 모세와 바울이 행한 일들은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었다. 뱀은 약도 주고 병도 준다는 것이 당대의 생각이었다. 뱀한테서 예언의 능력을 받았던 고린도의 폴뤼이도스는 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다른 뱀이 물어다 준 약초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신화가 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들에게 물려서 죽어갔다. 그때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세워서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뱀뱀을 보면 살게 하였다. 뱀이 병도 주고 약도 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서 뱀이 예언과 치유의 상징인 것에 반해서, 성경에서 뱀은 하나님의 일, 살림의 일, 빛의 일, 질서의 일, 생명의 일에 반대되는 죽임의 일, 어둠의 일, 혼돈의 일, 죽음의 일을 하는 사탄과 마귀로 상징된다. 노예 소녀의 주인들은 왕뱀의

영이 패배함으로써 수입원이 사라진 것을 원통히 여기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무리와 함께 관가로 데려가 소란을 피우며 고소하였다. 이에 빌립보의 상관들이 태형을 집행하는 리ктор(licitor)에게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두게 하였다. 바울은 제1차 선교지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매를 맞았지만, 이방인에게 매를 맞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곤장을 치지만, 이방인들은 매질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로마인들은 죄인들의 두발을 찢어지도록 넓게 벌려 차꼬를 채워 토굴 같은 감옥에 가뒀다.

옥중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야 정신을 수습하였는지,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시작하였다. 죄도 없이 심한 매를 맞고 차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것이 적을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로 사람을 살리는 병법이었다. 기도와 찬송은 지진을 일으켜 옥터를 움직였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차꼬가 저절로 풀리게 하였다. 기도와 찬송은 또 자결하려던 간수의 육체의 목숨을 살려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침례를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다. 간수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빌립보교회의 창립멤버가 되게 하였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태형을 맞고 감옥에 갇힌 위기를 통해서 주어졌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인 동시에 로마시민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마음만 먹었으면, 굳이 겪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쓰지 않았고, 그 결과 간수의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교회가 강가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다. 창립멤버들로는 루디아의 가족, 노예 소녀, 간수 가족으로 이뤄졌다. 그들은 극심한 환란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힘에 넘치도록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였다(고후 8:1-5). 산고가 컸던 만큼 건강한 옥동자를 보았던 것이다.



## 32.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8(행 17:1-15)

### 데살로니가를 향한 진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태장을 맞고 초죽음이 되어 감옥에 갇혔고, 한밤중이 돼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차꼬에 묶인 채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 기도와 찬송은 아픔과 두려움을 잊게 하고,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후일 바울이 형편에 지나도록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감옥에 갇힌 자기를 위해 마음을 써준 빌립보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기쁨이란 말이 들어간 단어가 16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빌립보에서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조차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은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쁨을, 그것도 16번이나, 입에 올린 것이다. 바울은 기쁨을 명예나 권세나 재물에서 찾지 않고, 주 안에서 찾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서 찾았다. 그의 기쁨은 철저히 이타에서 비롯되었다. 이타가 그로 하여금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였고, 모든 위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힌 원통함을 마음에 담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희망을 찾는 데서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였다.

빌립보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바울 일행은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 '암비폴리'(Amphipolis)와 '아폴로니아'(Apollonia)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암비폴리는 마케도니아 동부지방의 수도였다. 빌립보에서 약 53KM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아폴로니아는 암비폴리에서 약 48KM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암비폴리에서 '암비'(amphi)는 양(兩), 두 가지, 원형, 주위란 뜻이다. 안

동 하회마을처럼 강이 도시 양끝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도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시 주위에 몰려 살았기 때문이란 말도 있으며, 해협주변을 가리킨다는 설명도 있다. 아볼로니아는 그 이름으로 볼 때 아폴론을 주신으로 섬긴 도시였을 가능성이 있다.

테살로니가는 아볼로니아에서 약 50KM 떨어진 마케도니아 서부지역 수도였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테살로니가까지는 약 150KM, 도보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테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 테살리(Thessally)의 이름을 딴 도시로써, 2004년 아테네올림픽 3차전에서 한국팀이 말리에 3골 차로 뒤지던 후반에 조재진의 연이은 헤딩슛과 말리의 자책골로 기적 같은 동점 드라마를 연출하며 올림픽 8강 진출의 쾌거를 일궈낸 곳이다. 또 역사적으로는 주후 390년에 주민반란으로 7천여 명이 학살당했던 곳이기도 하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이 사건의 책임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물었고, 끝내는 황제를 굴복시켜 참회케 한 전무후무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도시이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2년 후인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여 비잔티움제국을 꽃피우게 한 사람이었다.

테살로니가는 인구 20만의 항구도시로써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3주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고린도까지 피신한 바울은 최초의 두 서신을 테살로니가교회에 보냈다. 이때가 주후 51-52년경이었다. 신약성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두 서신들을 보면, 이 무렵 바울은 주의 재림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테살로니가교회와 베뢰아교회 설립

테살로니가에는 헬라파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예배에 참석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세 안식일에 걸쳐 구약성경을 가지고 유대교인들과 토론하였는데, 아마도 그 내용은 신약성서에서 볼 수 있는 예표론, 즉 구약의 율법과 예

언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의 실체로, 또 오실 자 메시아로 해석한 해설이었을 것이다. 3절을 보면, 바울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라고 강력히 말하였다. 그 결과 몇몇 유대인들과 많은 수의 문의 개종자 헬라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교회의 창립멤버가 되었다.

상당한 수의 교인들을 빼앗긴 유대교인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였고,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였다.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묵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 일행을 잡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성도들을 시청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였다. 고소내용은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6절) 반역을 꾀한다는 것과 야손이 그들과 야합하였다는 것이었다. 시청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석금을 받고 일단 풀어주었다.

‘야손’이란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콜키스 땅에 있는 금양모피(황금양의 가죽)를 찾기 위해서 아르고 원정대를 이끌었던 영웅의 이름이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에 대한 헬라어 이름이다. 영어로는 ‘제이슨’이라 부른다. ‘야손’이란 이름은 헬라인과 헬라파유대인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야손이 유대인이었는지 혹은 문의 개종자였는지가 명확치 않다.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있어서 빌립보교회의 설립이 가능했던 것처럼, 야손이 있어서 데살로니가교회의 설립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야손은 바울의 친척으로 언급되었고, 가톨릭교회는 야손이 나중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의 주교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리스다고(Aristarchus)와 세군도(Secundus)도 있었다(20:4).

성도들은 그날 밤에 바울 일행을 베뢰아로 떠나보냈다. 베뢰

하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베뢰아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교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였다. 다행히 베뢰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 결과 꽤 많은 유대인들과 적지 아니한 수의 문의 개종자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베뢰아교회의 창립멤버가 되었다. 이들 중에는 부로의 아들 소바더(Sopater)가 있었다(20:4). 소바더는 바울이 야손과 함께 자신의 친척으로 언급한 소시바더(Sosipater)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뢰아까지 찾아와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성도들은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았다.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안내하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 데살로니가 서신들

바울이 진군한 도시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지에 자기 이름의 도시들을 건설한 것과 같다. 알렉산더는 정복한 지역마다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알렉산더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도시들은 그리스문화와 사상을 동방에 전파하는 거점이었다. 알렉산드리아로 이름 붙여진 도시가 70여 개나 되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이다.

데살로니가 서신들은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이자 신약성서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글이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뢰아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정착하여 데살로니가교회에 보낸 것이다.

데살로니가 서신들의 기록목적은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일상생활에 소홀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주의 재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였다. 이 글들은 바울이 선교지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가 바울에게 큰 기쁨과 힘을 주는 고무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였고, 가르침대로 잘 지키고 있었으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높이 평가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살전 2:20)고 극찬하였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재림의 기대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신자가 있었는가하면, 부정한 생활을 끊지 못하는 신자도 있었고,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신자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4:3, 5:16-18)을 전하면서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되, 항상 기뻐하고, 쉼 없이 기도하며, 매사에 감사하며 살라(살전 5:16-8)고 권면하였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전체 47절 가운데 38퍼센트인 18절이 종말에 관한 내용일 정도로 주의 재림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였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주어진 생활 속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바울은 후서에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장 3-4절을 보면, 성도들은 믿음이 일취월장하여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피차 풍성하게 사랑하였으며, 온갖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 전서 1장 3절의 말씀대로, 성도들의 믿음에 역사가 따랐고, 사랑에 수고가 따랐으며, 소망에 인내가 따랐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인내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하였다. 성도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일궈갔다. 그것이 그들이 바울로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들었던 이유였다. 칭찬하기나 감사하기가 쉬워 보이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이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칭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며, 불평과 원망과 책망으로 하기 때문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지 않고, 불신과 미움과 절망으로 하기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고, 쉼 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자!

## 33.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9(행 17:16-34)

##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아레오바고)

베뢰아에서 아테네(아텐)까지는 육지로 12일, 배로 3일 걸리는 32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해준 성도들이 베뢰아가 돌아가서 그곳에 남아 있는 실라와 디모테를 떠나보내고, 또 그들이 아테네로 와서 바울 일행을 만나 합류하기 까지 걸린 기일은 최소 1-2주에서 3-4주가량이었을 것이다. 그 기간에 바울은 아테네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고, 몇 번 회당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고”(16절),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문의 개종자 헬라인들과 장터(아고라)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17절)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다”(18절).

아테네는 철학자 소크라테스(469-399BC)와 플라톤(427-347BC)과 아리스토텔레스(384-322BC)로 대표되는 학문과 예술의 도시였다. 바울이 22절에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평가하였듯이, 종교적인 도시이기도 했다. 23절에서 보듯이, 3만이 넘는 신들을 섬겼던 아테네인들은 ‘알지 못하는 신’(Agnostos Theos)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또 “자주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도 했다(Pseudo-Lucian, *Philopatris*, 9.14). 2세기의 그리스의 여행자 겸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는 아테네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피레에프스 항구로 가는 길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다(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in 6 vols, Loeb Classic Library, Vol I, Book I.1.4).

바울의 헬라인 청취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새기거나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

문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우수한 신'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신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배드려왔던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는 암시를 받았을 것이고, 바울도 그런 뉘앙스로 설교하였을 것이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아테네의 언덕에서 재판관을 받았다고 해서 이 법정을 '아레오파고스'(아레스의 언덕)라고 부른다. 이 언덕에서 아테네의 공회가 열렸다. 그리고 공회판사를 아레오바고 관원이라고 불렀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디오누시오(Dionysius)는 이 법정의 판사였다.

이 언덕에서 동편을 바라보면, 약 150미터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아크로폴리스라 불리는 광장이 보이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파르테논(아테나의 신전)이 있었고, 지금도 그 형태가 잘 보존되고 있다. 또 아레오파고스 언덕 아래에는 시민들의 장터이자 광장이었던 아고라가 있었다. 아크로폴리스가 아테나 신의 거주지였다면, 아레오파고스는 재판정이었고, 연설장이었으며, 귀족들이 토론하고 회의를 여는 공회였다. 반면에 아레오파고스 아래에 있었던 아고라는, 17절에서 "장터"로 언급되었듯이, 시민들의 시장이자 광장이었다. 아고라는 단순히 상거래만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토론을 벌이고 시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던 곳이었다.

## 아테네의 학파들

아테네는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를 자랑했던 도시이다.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테네가 그리스도의 적국이었다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바울이 격분하여 사람들과 벌린 변론을 영적인 전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투는 칼과 창과 방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으로 하는 것이고, 나라를 빼앗고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하

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이 내민 손을 잡아 일으켜 생명을 살리려는 것이다.

스토아철학은 자연을 세계의 정신으로 보는 범신론이자, 제우스까지도 운명에 지배된다고 믿었던 숙명론이다.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유교의 칠정(七情)에서처럼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에 무감정 무관심할 것과 불교에서처럼 욕심을 버려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스토아 철학은 키프로스 사람 제논(주전 330-265년)이 창시하였다. 제논이 아테네의 아고라(시장)에 있는 주랑중 하나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토아'(stoa)란 '주랑' 또는 돌기둥을 뜻하는 말로써 강렬한 햇살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회랑 또는 행각을 말하며, 주로 이런 회랑에서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문답교육이 이뤄졌다. 바울의 출생지 다소에도 스토아 철학이 유명하였다.

에피쿠로스(주전 342-270년) 철학에서는 쾌락이 삶의 최고의 목표였다. 물론 좋은 의미의 쾌락을 말한다. 고통과 애욕과 공포에서 벗어나 평정지계를 누리는 가장 가치 있는 쾌락을 말한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영혼불멸을 부정하였고, 사후보응에 대해서도 부정하였다. 그러나 신의 존재는 인정하였다. 물질은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부정하였고, 신의 통치와 섭리도 부정하였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근대 공리주의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 공리주의는 쾌락의 양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정의이고 선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공리주의는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것이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지상주의, 실용실리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성공, 부, 쾌락이 절대가치가 될 때, 하나님의 뜻, 성경적 가치, 개인의 권리, 인권, 존엄성 등이 무시되는 큰 약점이 있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맥을 잇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

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유지상주의를 펼쳤다. 개인이 타인의 행복, 즉 공동체를 위한 행복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내 몸의 결정권은 내게 있으니, 내가 자살을 하든, 낙태를 하든, 마약을 하든, 매춘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장기를 떼어 팔든, 대리모를 사고팔든 상관하지 말라는 식이었다. 이런 주장은 낙오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모든 수단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성서의 가르침은 참쾌락이란 하늘에만 있고, 부활 후 영생을 누릴 자들에게 주어진다 고 가르친다. 또 고통과 고난이 사람에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며,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족히 비교될 수 없다고 하였다.

### 바울의 설교내용

바울은 앞에서 살펴본 아테네 학자들과 예수님과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펼쳤다(19절). 아테네 사람들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21절)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레오파고스의 바위언덕에 명석을 깔았다(20절). 바울은 이 기회를 살리고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바울의 설교를 청취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새기거나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우수한 신’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신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배드려왔던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는 암시를 받았을 것이고, 바울도 그런 뉘앙스로 설교하였을 것이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천지대군이시며,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대접을 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빛과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관리하

게 하셨다(24-26절).

둘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한 혈통을 가진 형제자매로 만드시고 수명과 거주할 장소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 아니라 살아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27-29절).

셋째,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때이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자(30-31절).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야유하며 복음을 거절하였다(32절).

둘째, 어떤 사람들은 결신을 미루고 보류하였다(32절).

셋째, 아레오파고스 관원인 디오누시오(Dionysius)와 다마리(Damaris)라는 여인 및 다수의 사람들은 믿었다(34절). 결코 적지 아니한 성과였다.

아테네는 철학자 소크라테스(469-399BC)와 플라톤(427-347BC)과 아리스토텔레스(384-322BC)로 대표되는 학문과 지성의 도시였다. 주신(主神)도 지혜의 여신 아테나였다. 그러나 아테네의 실상은 우상의 소굴이었다. 이 일이 있고나서 3년쯤 후에 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말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고전 1:18-24).

아테네 사건이 있고나서 5-6년쯤 후에 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롬 1:22-25).

### 34. 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10(행 18:1-4)

#### 고린도를 향한 진군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테를 기다리던 바울은 그들의 합류가 늦어지자 아테네 남서쪽 80KM 지점에 위치한 아가야 도(道)의 수도 고린도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터키 북중부 흑해연안 본도출신의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부인 로마출신의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였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3절). 이때가 주후 52년 경이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시에 살다가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로마시에서의 유대인추방령에 따라 천막수요가 많은 고린도에 이주하여 정착한지 1-2년밖에 되지 아니한 부부였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 바울 일행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 바울 일행의 고린도 정착에 큰 힘과 의지가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테가 합류하기 전까지 고린도 정착 초기에 얼마동안은 아굴라의 집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자급자족하였고, 늘 하던 방식대로 안식일마다 유대교회당에 나가 말씀을 강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 문의 개종자들에게 전도하였다(4절).

고린도는 자유인이 25만, 노예가 40만, 전체 인구가 65만 명이 나 되는 대도시였다는 주장도 있고, 인구 10여만 명에 노예가 3분의 1정도였다는 주장도 있다. 현대 신학자들은 후자에 동의한다. 고린도는 상업도시였다.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1,000여명의 성창들이 있었다고 한다. 아프로디테에게 바치는 예배는 이들 여사제들과의 성관계를 맺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큰 유혹이 되

있고, 음행을 경고한 고린도전서 5-6장의 바울의 권고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고린도를 넣어서 만든 헬라이어 합성어는 이 도시의 성문란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들이다. 코린띠아조(corinthiazo):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음행을 하다); 코린띠아이 헤타라이(corinthiai hetarai): 고린도의 친구들(창남들); 코린띠아이 코라이(corinthiai corai): 고린도의 아가씨들(창녀들).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사역 배후에는 숨은 인물이 많았다. 바울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할 수 없으리만큼 그의 선교사역과 가르침은 일세기 중엽 지중해 연안의 전 유럽을 발각 뒤집기에 족한 것이었다. 바울은 시리아, 키프로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전 유럽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주옥같은 13편의 서신을 남겼다. 그러나 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혹은 브리스가) 부부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역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룬 많은 업적의 일부는 성취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들 부부 이외에도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마가를 비롯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을 하였지만, 성서에 나타난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부부로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상의 사람이 없을 것 같다.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들 부부에 상반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 중에 터키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고백대로 남에게 부끄러움이 될 만한 신체적 결함이 있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의 신체적인 장애가 이곳 터키에서 받은 박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이 지방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몰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적

이 있었다. 이 지방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갈 4:13-14). 이 말씀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육체의 시험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눈물겹도록 사랑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 바울은 정착하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마땅한 동역자를 찾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후부터는 선교지에 장기 체류가 가능하여졌다. 이 점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 일행의 체류선교의 공헌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가죽 세공업자였다(18:3). 바울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곧 친구가 될 수가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간 체류하였는데, 경제적 안정과 신체적 보호가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를 전진기지로 삼아 온 그리스에 전도하였는데, 그와 함께한 일꾼들은 제자들이었다. 그들에게 배움은 곧 도제식 현장실습이었다.

좋은 일꾼을 만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살다가 주후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추방령에 따라 고린도에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주후 51년경에 바울은 터키 북서부 지역인 흑해연안의 비두니아에서 복음사역을 하고자 하였으나 성령께서 이를 허락지 않으셨고, 오히려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16:9)는 환상을 보고 그리스로 건너간 것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계기였다. 이들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 일행보다 먼저 고린도에 정착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면, 차기 선교지인 에베소와 로마에 각각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선교준비를 한 것은 인위적인 계획이 포함된 시너지효과로 보인다. 그들은 이미 체류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이들 부부는 사업가로서(18:3), 전도자로서(18:26), 동역자로서(롬 16:3), 바울을 목숨 바쳐 섬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롬 16:4), 에베소교회의 담임자로서(딤후 4:19)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이들은 그들의 집을 사업장으로, 선교기지로, 교회로(롬 16:4; 고전 16:19), 선교사합숙소로서 제공하였다.

### 바울의 인간적인 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목숨까지라도 바치고, 갈라디아교회의 성도들이 눈까지라도 빼어 주고자 했던(갈 4:15) 바울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능력의 사람만은 아니었다.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늘 받았던 것도 아니다. 불신자의 핍박은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일부 교인들로부터 당한 모멸과 멸시는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 혹은 “육체의 가시”라는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었다(고후 12:7; 갈 4:13-15; 딤후 3:10-12).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안질이나 간질로 추정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는데, “나를 쳐서”를 간질환자들이 갑자기 땅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고 썼기 때문에 안질을 의심하게 된다. 바울은 대개 대필을 통해서 글을 썼다. 갈라디아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기록한 글이다. 대필의 이유가 바울의 눈병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었다(고후 10:7; 갈 4:13). <바울행전>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터키지역 이고니온의 주민인 바울의 동역자 오네시보로가(딤후 4:19) 이고니온으로 오고 있는 바울을 마중 나간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오네시보로가 본 바울은 “작은 체구, 맞닿은 양미간, 코는 조금 길고, 대머리에 다리는 휘었고, 단단한 체격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고,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성도들의 태도에 있었다. 일부 성도들은 이런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지만, 다른 성도들은 바울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바울의 내면적 신령한 면을 본 성도들이 있는가하면, 육체적 외모만 취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말에 줄한 사람이었다(고후 10:10; 11:6). 바울은 지혜가 많고 말솜씨에 능력이 있었지만, 능변가는 아니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선포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솜씨에 영적인 귀를 열지 아니하고 아불로식의 능변에만 가치를 둔 저질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후 10:10)고 바울을 비방하였다.

바울이 자신의 성공적인 선교사역에 밑거름이 되어준 많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신체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호감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 힘주어 말하고 싶다. 고린도교회의 특성이었던 노예근성은 노예가 많았기 때문이었고, 빌립보교회의 특성이었던 시민근성은 시민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예근성을 버리고 시민근성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전(진군)에 힘을 쏟아야 한다.

## 35.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1(행 18:5-17)

## 고린도교회 설립

바울 일행은 그리스 최남단에 위치한 아가야도의 행정수도 고린도에서 주후 51년경에 처음으로 1년 6개월간의 거점선교에 성공하였다. 안전과 숙식문제가 해결된데 따른 결과였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점마련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고린도는 10만 명 정도의 상업, 체육, 종교, 문화,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선교거점이 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안전에 대해서는, 6절과 12절에서 보듯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9-10절이 암시하듯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 숙식에 대해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만들어 팔고 있었고, 바울도 그 분야의 기술자여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고린도 인근에서는 큰 대회들이 열리고 있었다. 가까운 이스트미아의 포세이돈 신전에서 2년마다, 서쪽 네메아에서 2년마다, 북쪽 델포이에서 4년마다, 남서쪽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열렸다. 가장 큰 대회인 올림피아드를 기준으로 2년째와 4년째 해에 네메아대회와 이스트미아대회가 열리고, 3년째 해에 델포이 대회가 열렸다. 이 때문에 천막수요가 아주 많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후원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와 같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신생교회들이고 가난해서 선교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외로 그들은 혼신을 다해서 바울 일행을 후원하였다. 5절에서 보듯이, 실라와 데모데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보내온 헌금보따리를 풀자, 바울은 당장 일을 그만두고 복음전도에 나섰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 전까지 천막을 제

조하면서, 4절에서 보듯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 유대인들과 헬라인 문의 개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이후로는 생업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였다.

5절의 “붙잡혀”에서 보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붙잡혔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반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6절)하고, 법정에서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12-13절)라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무죄 방면된 반면, 고소자들의 대표인 소스테네는 이방인들로부터 못매를 맞았다. 누구에게 또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간 정착하면서부터 대적과 비방을 일삼는 유대인 선교를 접고, 거처를 회당 옆에 사는 헬라인 문의 개종자 디도 유스도(가이오)의 집으로 옮긴 후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그렇지만, 바울이 직접 침례를 베푼 사람은 유스도와 그리스보 뿐이었다(고전 1:14). 그만큼 그들의 역할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 누가의 정치적 변증

갈리오 총독은 음유시인이었던 원로원의 원로 세네카의 아들이자 네로의 가정교사였던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였다. 본명은 마르쿠스 안나에우스 노바투스(Marcus Annaeus Novatus)였으나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Lucius Junius Gallio)의 양자가 되어 갈리오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주후 51년 말부터 52년 8월 사이에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발표한 포고문을 기록한 델포이 신전의 비문은 갈리오가 주후 51년 혹은 52년 7월 1일에 총독

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죄목은 불법종교를 전파한다는 것이었다. 로마는 속주민들의 종교를 합법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생 종교만큼은 제국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불법으로 다스렸다. 유대인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와 무관한 불법이라고 고소하였다. 만일 총독이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그의 판결은 관례로 남아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행히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묵살하였고, 반 유대적 감정을 가진 이방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갈리오의 면전에서 구타하였다.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믿고 회당장직을 사임한 그리스보의 후임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담겨 있다.

첫째, 이 사건은 9-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증거사례로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사건은 기독교를 변증할 목적으로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사도행전은 로마관리들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선례들을 많이 밝히고 있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근접한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당대의 유대교가 누렸던 공인종교(*religio licita*)의 혜택을 기독교가 받아 마땅하다는 암시를 준다.

셋째, 이 사건은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충실하게 율법을 준수하였고, 예수님은 성서가 장차 오실 자로 예언한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 곧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단절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회당에서 몰아낸 유대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예수님이 당한 박해나 초대교회가 당한 박해는 대부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넷째, 이 사건은 로마당국을 향해서, 로마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확인했고, 선언했으며, 석방하려고 했듯이,

갈리오 총독은 바울의 활동에 대해서 무죄 방면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백부장 고넬료와 서기오 총독과 같은 로마관리들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로마당국자들의 호의적인 사례들의 열거는 예수님과 바울의 정치적 무죄를 밝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해한 것임을 밝히려는데 있었다. 이것은 로마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리는 한편, 적대감을 제거시킴으로써 세계선교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 고린도 서신들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쯤 지난 주후 51년경이었다. 그로부터 5-6년쯤 후인 57년 전반기 중에 고린도 서신들이 쓰였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한 권면과 교인들이 직접 물어온 여러 질문들에 대한 해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핵심주제를 간략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전체 내용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파별문제를 다루고 있고, 5장은 성적인 타락, 6장은 소송문제와 방종, 7장은 결혼과 독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숭배, 11장은 예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 15장은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은 헌금에 관한 내용과 문안인사로 되어 있다.

고린도후서는 교리나 실천적인 내용보다는 바울 자신과 관련된 자전적 서신으로써 눈물과 화해와 변호와 반대와 호소와 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장까지는 오해와 해명의 글로써, 여기서 바울은 사도직의 진실성과 사도직의 본질을 논하고 있다. 8-9장까지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요청하는 글이다. 10-13장까지는 대적자들을 반박하는 글이다.

고린도교회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끼어들었고, 이들은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열광주의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공격은 대체적으로 바울의 외모와 언변과 권위와 교훈에 관련

된 것들이었다. 이들의 영향으로 고린도교회에 바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들 불만은 앞서 보낸 편지에 대한 오해, 복음의 모호성에 대한 불만, 헌금 호소에 대한 냉담한 반응,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여전한 의심, 바울의 행동이 불투명하다는 의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회를 해롭게 한다는 오해, 멀리 있을 때에는 담대하다는 비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비난과 오해에 대한 바울의 대응은 고린도후서에서 눈물과 화해와 변호의 글로 나타나 있다.

떠돌이와 노예였던 당대의 유대인들은 민족의 절박한 희망을 성취시킬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행할 자라고 믿고 있었다. 모세와 같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이다. 반면에 보이는 현상세계를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로 여겼던 헬라인들은 참되고 영원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지혜(영지)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유대인들은 인간을 구원하는 힘이 능력에 있다고 보았고, 헬라인들은 지혜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인간을 구원하는 힘은 능력도 지혜도 아닌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25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선포하였다. 새 언약 백성을 위한 새 땅과 새 나라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약해 복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써 이뤄진다.



## 36.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2(행 18:18-28)

## 소아시아를 향한 진군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간의 정착선교를 마치고 일행은 터키 소아시아도의 종교도시 에베소로 향했다. 복음으로 무장한 강력한 진군이였다. 그것은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위해서 마케도니아에서 다르다넬스해협을 건너 소아시아로 진군했던 것과 같다. 그리스선교를 위해서 잠시 접어야했던 소아시아 선교를 계획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하였다. 고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야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여행에 동행한 것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첫째, 18절과 26절에서 로마인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유대인 아굴라의 이름보다 반복해서 앞에 나오고 있다. 아굴라는 흑해에 가까운 터키 북부 본도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지만,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상류계층의 귀부인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다. 가부장제도의 전통을 깨고 여성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성인 아굴라의 이름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가 총 여섯 번 가운데 네 번이나 된다. 성경에 보면, 동생의 이름이 형들의 이름보다 언제나 앞에 놓여서 형과 동생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셈과 함과 야벳,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삭과 이스마엘 및 모세와 아론이다. 셈은 함과 야벳의 동생이고, 아브라함은 나홀과 하란의 동생이며,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이고,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지만, 이 동생들의 영향력 때문에 형들보다도 그들의 이름이 언제나 앞에 온다.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앞에 쓰인 경우가 많은 것은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아굴라보다 훨씬 컸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단순히 사업가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군으로서 소아시아도의 종교도시 에베소에 진출한 것이었다. 바울 일행의 정착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함께 했어야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이 파송교회인 안디옥교회와 사도들의 교회인 예루살렘교회를 방문하여 선교보고를 하고 재정비하여 돌아올 때까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업을 일구고 교회를 개척하여 선교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바울 일행이 고린도를 떠난 후 에베소로 돌아와 이들 부부와 합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년 정도였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서 2년 남직한 이 기간에 선교기반을 닦고 있었고, 바울 일행이 도착하면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수년 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 일행보다 2년 남직 먼저 고린도에 이주해서 정착하고 있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 있었던 것이다.

셋째,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체류한 것은 2년 3개월간이었다. 바울은 이 기간에 제3차 선교를 성공리에 마치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세웠는데, 로마서 16장 3-4절을 보면, 바울의 다음 선교지인 로마에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보다 먼저 다음 선교지에 가 있는 것을 본다.

### 바울의 서원

바울은 고린도 인근의 항구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나님께 서원한바가 있어서 머리를 길렀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배를 타기 직전에 머리를 밀었다. 어떤 서원이었는가? 나실인의 서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민 6:1-21). 바울은 이 기간에 음주, 식발, 사체(死體)를 멀리 했을 것이다. 기간은 8일에서 한 달 또는 일생동안 할 수 있었으나, 서원의 기간이 고린

도를 떠나기 직전까지였던 점으로 미뤄볼 때, 서원한 이유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복음전도에 방해받지 않으려는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기간이 꽤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원의 마감은 예루살렘성전에서 이뤄졌다. 일시적인 나실인 서원일 경우, 만기 때에 예루살렘성전에서 제사장이 머리털을 밀고 제단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살랐다. 그러나 멀리 사는 나실인은 만기 때 머리털을 밀고 보관하였다가 예루살렘성전 방문 때 번제와 함께 불사르도록 구전인 미쉬나에서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 그 짧은 기간에도 유대교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배로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한 바울은 도보로 1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제2차 선교에 대한 결과보고를 위함이었다. 다른 하나는 겐그레아에서 깎은 머리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기 위함이었다. 수년 후 제3차 선교결과를 예루살렘교회에 보고한 후에도 바울은 교회의 권유를 받아드려 유대인의 율법을 경시하지 않았다는 증표로 다른 사람들의 서원 규제 행사에 동참하여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한 일이 있다. 바울의 이런 일련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반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방인교회들의 승인과 관련이 있다. 바울의 행동은 이방인교회들과 유대인교회들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었다. 결코 타협적인 태도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바울의 화합을 위한 노력의 절정은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친 직후 이방인교회들로부터 거금을 모아 예루살렘교회에 가져간 때였다. 아무튼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돌아갔으며, 22-23절은 바울이 이미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났음을 알려준다.

서원과 관련하여 바울의 평소 신념과 태도를 고린도전서 9장 19-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 전도자 아볼로

신약성경에 전도자 ‘아볼로’의 이름이 11번 나온다. 사도행전에 3번, 디도서에 1번, 나머지 7번은 고린도전서에 나온다. 아볼로의 등장 시기와 장소는 주후 53-4년경 에베소이다. 바울 일행이 떠나온 뒤 고린도에 파송된 전도자였다. 얼마 후 고린도를 떠나온 아볼로는 자기로 인해서 고린도교회에 파별이 형성된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바울의 많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였다(고전 16:12). 전설에 의하면,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교회의 주교가 되었다고 한다.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생의 헬라파유대인이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주전 332년에 세운 지중해연안 항구도시로써 인구 1백만이 거주하던 대도시였다. 훌륭한 도서관이 있었고,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곳에 유대인이 40만 명 정도 거주하였고, 히브리대학도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 구약성경 70인역(LXX)을 만들었다.

알렉산드리아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필로라는 유대교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구약성서를 알레고리로 해석하였다. 알레

고리란 성경의 문자 이면에 감춰진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고 해석하는 영해(靈解)를 말한다. 필로가 남긴 대표적인 알레고리는 그가 쓴 <특별한 법>(De specialibus legibus)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며, 세상은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I,81)는 해석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고 교육을 받았던, 어쩌면 필로의 제자였을지도 모를, 아블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24절) 곧 구약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데 능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측하건데, 아블로는 구약성경을 알레고리하기보다는 모든 신약성서 저자들의 취했던 방법, 즉 구약의 것을 신약의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는 모형론에 능통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눈여겨 볼 것은 아블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유대인회당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고 있었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고 그리스도인의 침례와 기독교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25절). 에베소에 이런 형제들이 다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들이 아마 아블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실 자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교인이었다.

아블로를 개종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일꾼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 이 일은 바울 일행이 제3차 정착선교를 막 시작하려던 때에 생겼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아블로는 형제들의 추천을 받아 고린도에 건너가 사역하였다. 그의 고린도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아블로파가 생길 정도였으며, 이에 바울은 자신은 심고 아블로는 물을 준 사람,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고전 3:6)이라고 설명해야할 정도였다.

아블로의 능통한 수사적 설교에 고린도 교인들이 열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3개의 바울서신서 전체에 사용된 “지혜”란 말의 절반가량이 아블로의 이름이 언급된 고린도전서 1-4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헬라인들은 그들을 이데아세계로 인도해줄 지혜(지식)를 찾던 사람들이었다. 아블로의 알레고리 또는 모형론의 수사능력이 이 부분의 욕구를 채워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아블로는 바울과 동역한 신실한 일꾼

이었다.

## 37.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3(행 19:1-20)

## 에베소교회 설립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해안 셀축에 위치하고 있고, 2천 년 전에는 인구 25만 명이 살았던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으며, 동서양을 잇는 상업,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다.

에베소에는 여신 아데미(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는데, 고대 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 크기가 월드컵축구경기장의 것보다 길이가 24.5미터나 더 긴 129.5미터였고, 폭은 월드컵경기장폭인 68미터에 1미터 부족한 67미터였다. 그리고 6층 높이에 달하는 18.2미터나 대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되었다고 하니 그 웅장함과 크기가 어떠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에베소에는 '아시아관원'이라 불리는 종교담당 공무원이 있을 정도로 종교적인 도시였다. 에베소는 에게 해로부터 6.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배들이 카이스테르 강 하구를 통해 내륙 포구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 지금도 포구에서 동쪽 25,000석 극장까지 이어지는 약 530M의 대리석 도로와 시장이 섰던 도로변의 유적이 남아 있다. 이 극장이 24절 이하에 소개된 시민들의 소동, 즉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던 은색장이 데메드리오가 시민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해코지하고자 했던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는 연극장이었다. 이 극장은 음향 효과가 뛰어나 무대에서 나누는 낮은 목소리조차 제일 위쪽 좌석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사실 때문에 일부 관광객들은 무대와 꼭대기 좌석에 나뉘어 서서 음향을 확인해보곤 한다.

바울은 이곳을 제3차 선교여행의 전진기지로 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및 디모테와 같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주후

55-57년 사이에 2년 3개월 동안 사역하였으며,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전도자를 파송하여 주변 도시들을 복음화 하였다.

에베소 유적들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것 가운데 하나가 전면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셀수스 도서관이다. 셀수스 도서관은 바울이 머물던 때보다 80년쯤 후인 주후 135년에 지어졌지만, 바울이 집회를 열었던 두란노 서원의 모습은 어떠했을가를 상상해 볼만한 유적이다. 셀수스 도서관은 세 개의 문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상단은 지혜, 운명, 지식을 상징하는 정결한 여성상들로 장식되어 있다. 아버지 셀수스를 기념하여 이 도서관을 짓게 한 아퀴라(C. Aquila)는 도서구입비로 2만5천 데나리온을 남겼다고 한다. 에베소는 오늘날에도 2천 년 전의 화려하고 웅장했던 도시의 포장도로와 상하수도시설과 극장과 목욕탕 등의 공공시설들의 유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유명한 에베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이전에 교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몇몇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바울도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 도착했고, 가이사랴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 짧은 기간에 열심히 전도한 곳이지만, 바울이 제3차 선교준비를 갖추서 에베소에 돌아오기까지 처음 2년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교회의 제1대 목회자였으며, 그 후로도 오랫동안 담임을 맡았다. 이 교회는 계시록 2-3장에 소개된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모체였을 것이다.

###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의 개종

사도행전 18-19장에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아볼로와 열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였다. 이들이 누구였는지 궁금해지는데,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아볼로와 이들 열두 사람은 모두가 세례 요한을 메시아

로 추종한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레 요한은 25여 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들이 세레 요한에게 직접 침례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런데도 이들이 세레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 종파에 속한 유대인들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실제로 바울보다 한 세대 후의 인물인 로마의 클레멘트를 저자로 위장한 <발언 혹은 헌사>(Recognitions) 54장과 4세기경에 시리아의 교부 이브라임(Ephraem)은 세레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이단종파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지금도 이라크 남부와 이란 남서부에 사는 수천 명의 만다교(Mandaeism)인들은 세레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고 한다.

둘째, 이들은 세레 요한의 이름으로 정결예식을 행하고, 금식과 고행을 수행의 방법으로 삼았다.

아블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이들 열두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회심과정을 거쳤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세레 요한 대신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침례를 받았고, 바울의 안수를 받고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 과정이 사마리아인들의 것과 같다.

둘째, 2절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와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은 비슷한 시기에 갈라디아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갈 3:2)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갈 3:5)고 물었던 질문과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행 2:38)고 선포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셋째, 바울과 베드로가 말한 성령은 예언과 방언과 같은 은사를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서의 세레 즉 성령님의 내주 동거를 말한 것이다. 이 성령님은 침례 가운데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일으키시며, 약속하신 구원을 보증하고 인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넷째,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와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는 구분되어야 한다. 5절에서 성령님으로서의 세례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6절에서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가 나타난 것이다.

다섯째, 예루살렘교회, 사마리아교회, 가이사랴교회, 에베소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로써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가운데서 구원과 함께 값없이 주어지며, 은사는 성령님의 선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능력을 덧입히기 위해서, 외적인 표적으로써, 필요에 따라, 구원과 상관없이 주어진다.

### 바울의 도전(진군)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진군은 에베소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들이 유대교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 그들의 반발과 핍박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바울은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8·9절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한 반면, 유대인들의 대응이 무척 거셌다고 말한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과 결별하고 별도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한편,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 거기서 “날마다 강론을 하였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천막 만드는 작업에 할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생업보다는 말씀전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마케도니아교회들의 선교후원 때문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동등한 일군이였다.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군이자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군이였다.

셋째, 바울의 활동은 일선에 나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뿐 아니라, 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보낸 후원자들의 활동이었다.

넷째, 선교는 보냄을 받은 자만의 일이 아니라, 보낸 자들의 일이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에베소에서 이룬 업적은 따라서 그들을 보내고 또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업적이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강론하였다. 이 덕분에 10절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한다.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한 강의실로써 학생들에게 수사학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서방사본들에 의하면, 바울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원을 사용하였다.

본문 19장 1-20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에베소 도전(진군)을 성공시켰다는 점이다. 바울과 팀원들의 면려(勉勵)에 후원자들과 하나님의 지원이 더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11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마 12:27)고 물으신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은 마술사 시몬과 바 예수에 이어서 세 번째이다. 이들의 마술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능력에 비교된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도전(진군)에 맞설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는 것과 같다. 결국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었다(17-19절). “은 오만”은 노동자 137명의 1년 치 임금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이와 같이 주

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20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전화위복을 언급한 여섯 개의 중요 문구들 가운데 다섯 번째 문구이다.

## 38.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4(행 19:21-41)

## 땅 끝 선교계획과 에베소에서의 위기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의 정착선교를 마무리할 즈음에 바울은 제4차 땅 끝 선교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다. 첫째는 제2차 때 세워진 그리스교회들을 순방하는 일이요, 둘째는 이방인교회들과 예루살렘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임을 예루살렘에 선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다. 영적인 준비와 물적인 준비가 필요했다. 영적인 준비란 신학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로마서 작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로마서 작성은 바울이 예루살렘교회 앞에서 변호해야 할 것들, 즉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의 신학적 기반인 복음의 성격과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에서의 이스라엘백성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였다. 물적인 준비란 이방인교회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써 가난한 예루살렘교회에 기부하기 위한 넉넉하고 후한 헌금을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1년 전부터 그리스교회들에게 마음먹고 준비하도록 권면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바울은 그 기부금을 거둬야 할 시기가 되었으므로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그리스로 먼저 보냈다(21-22절).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마케도니아로 떠나고 나서 예기치 않은 큰 소동이 에베소에서 발생하였다. “은으로 아테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24절) 돈벌이를 하는 상공인들이 데메드리오의 주동으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유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26절)는 즉

“우상숭배를 하지말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온 아시아에 퍼져 영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폭동자들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28절)를 외치며, 그리스도인들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29절) 달려갔다. 두 시간이 넘게 연극장을 소란케 한 이들은 서기장의 회유를 듣고서야 비로소 해산하였다. 이로써 바울과 에베소교회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에베소인들이 열정적으로 섬겼던 아데미(아르테미스)는 제우스가 레토헤에서 얻은 불륜의 딸이며, 아블로(아폴론)와는 이란성 쌍둥이이다. 로마인들은 이 여신을 다이애나로 불렀다. 이 여신은 그리스에서는 초승달의 신이고, 사냥의 신이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풍요의 신이었다. 가슴에 풍요를 상징하는 24개의 유방을 매달고 있어야하지만, 현존하는 여신상들에서는 유방의 숫자가 제각각이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상들을 보면, 가슴에 매달린 유방 말고도, 머리에는 도시의 신이란 뜻의 성벽이, 머리 뒷면에는 초승달의 신이란 뜻의 달이, 몸에는 사냥의 신이란 뜻의 각종 짐승들이 부조되어 있다. 매년 5월 여신의 축제날이 되면 24명의 흰 옷을 입은 여사제들이 앞에 서고, 고환을 여신에게 바친 내시 사제들이 뒤에서 따르는 축제행렬이 신전에서 출발되어 포구까지 이어졌다. 포구에 이르면, 황소들을 바치는 의식이 이뤄졌는데, 남자 사제들이 24마리의 황소에서 고환을 잘라 여신의 목에 걸어주었고, 무용수들이 춤을 추었으며, 도살된 소들이 제단에 바쳐짐으로써 축제가 무르익었다. 축제 때가 되면 에베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전한다.

### 바울의 초기 서신들

바울은 제2차 정착선교 때 고린도에서 주후 52년경에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다. 전서가 먼저인지, 후서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다. 바울서신의 배열은 기록된 연대순서가 아니

라, 크기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차 정착선교 때 주후 56년경에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와 57년 초에 고린도전서를, 57년 전반기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제3차 선교를 오순절 직후에 마치고, 제2차 때 세운 그리스교회들을 순방하다가 주후 57년 12월경부터 58년 2월경까지 월동을 위해서 3개월간 머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다. 이들 서신들이 신약성서에서 최초로 기록된 문서들이다.

로마서의 기록은 21절에서 보듯이 제4차 땅 끝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포석 때문이었다. 그 몇 가지 상황과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이어지는 땅 끝 선교를 위해서 로마방문의 계획을 알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혹 있을지도 모를 오해를 해결함으로써 필요한 선교지원을 얻기 위함이었다.

둘째, 예루살렘 방문을 앞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중재기도를 부탁하였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등하며, 차별이 없다는 것을 논술함으로써 다가올 예루살렘교회와의 대화를 로마교회 앞에서 예행 연습하였다.

넷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에 의해서 갈라디아교회에 발생한 변절에 대해서 과격하게 반응한 바울은 예루살렘교회와의 악화된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과 호소로 유대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로마서에서 토론하고 있다. 그것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급박한 문제일 뿐 아니라, 갈라디아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제거하는데도 이바지하였다.

다섯째, 로마에서 발생한 강자와 약자에 대한 긴장과 파벌과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근본적인 평등을 의미한다. 바울 선교의 결과로 이방인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앞질렀다. 따라서 로마에서 이방인 다수파는 그들이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소수파에 대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자만에 대

해서 경고하고자 했을 것이다.

여섯째, 유대교적 논쟁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복음에서의 이스라엘의 역할 문제가 그것이다. 로마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인가? 토라와 할례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 같은 유대교의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이 로마서이다. 로마서는 유대교와의 대화이다.

바울 일행의 그리스순방은 교회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예루살렘교회에 가져갈 헌금을 모우기 위한 것이었다. 모금을 통해서 예루살렘교회와 이방인교회를 일치와 평등사상으로 엮으려는 것이었다. 이뿐 아니라, 이방인교회들의 헌금은 예루살렘교회로부터 받은 영적축복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이로써 유대인교회와 이방인교회가 하나의 종말론적인 교회임을 선포하였다.

## 에베소 서신

바울은 제3차 선교를 끝내고 이방인들의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주후 58-60년 사이에 가이사라 옥중에서 2년, 60-63년 사이에 로마의 셋집에서 2년여 남직 미결수로서 갇혔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한 회람서신으로 알려져 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후반부 4장부터 6장은 윤리적인 부분이다. 전반부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누구의 뜻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교회론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에베소서의 백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3:2),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혹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관한 설명이다. 이 경륜 속에는 네 가지 깊은 뜻이 있다.

첫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결정을 말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자유와 확신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1:4-5).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주신다(1:7).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구원의 뜻을 알게 하신다(1:9).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신다(1:11).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주신다(1:13).

둘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결정을 말한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3:9), 즉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다고 말한다. 이방인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들이었으며(2:1-3),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좇고, 육체의 욕망과 생각들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3:6)고 하였다.

셋째, 하나님은 이 복음의 신비를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다(3:3).

넷째,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3:10)이라고 하였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빛과 생명의 복음, 민족성별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천국복음을 전하는 곳이요, 그 목적의 실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 39.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5(행 20:1-12)

## 에베소에서의 환란

사도행전에서는 에베소에서의 환란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누가가 에베소 정착사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팀에 합류했을 경우에 “우리가”라는 단어를 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암시하곤 하였다. 사례들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는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갈 때 함께하였다(16:10-11)

둘째, 누가는 빌립교회가 설립되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다(16:13,15-17). 혹자는 누가가 이곳에 남아 빌립교회를 섬겼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셋째, 누가는 언급이 끊겼다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와 그리스순방까지 모두 마치고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합류하였다(20:5-6).

넷째, 누가는 이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하였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옥살이를 한 직후 네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될 때 로마까지 같은 배로 바울과 동행하였다(21:17; 27:1; 28:16). 누가도 바울과 함께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환란에 관해서는 바울 자신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몇 가지 진술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하였는

데, 이 말씀은 전쟁에 패하여 노예로 사로잡힌 자들이 차꼬에 묶인 채 개선행렬 끄트머리에 서서 아레나를 가득 메운 군중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비유로 말한 것이다.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자신의 처절한 싸움이 마치 검투사가 아레나에서 맹수를 무찌른 것같다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뜻이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겪었던 적들과의 처절한 싸움을 비유로 말한 것이다.

셋째, 고린도후서 1장 8-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말씀은 에베소에서 실제로 겪은 고난을 설명한 것이다. 아레나에서 실제로 이뤄지던 당대의 사건들, 즉 개선식에 끌려나와 조롱거리가 된 전쟁노예들,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맹수와 싸우는 검투사에 대한 비유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었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넷째, 고린도전서 16장 8-9절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는 말씀은 에베소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 그리스교회들 순방

바울은 주후 57년 중반에 에베소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교회들의 순방에 나섰다.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이들 교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 함이었고, 둘째는 이들 교회들이 가난한 예루살렘교회에 기부할 헌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였다. 이를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교회들을 순방하겠다는 바울의 계획은 이미 고린도교회에 통보되였다.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고린도후서 1장 15-16절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예루살렘교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전 16:1-9).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고후 1:15-16).

고린도전서 16장과 후서 1장의 내용으로 볼 때, 고린도전후서는 에베소에서의 제3차 정착선교를 마무리할 무렵에 쓰였다. 16장 8-9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한 말씀은 고린도전서가 주후 57년 초에 기록되었을 말해 준다. 오순절 절기는 보통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에 닿기 때문이다. 바울은 57년 여름 전까지 에베소에서의 정착선교를 마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그해 11월말쯤에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것이며, 고린도에서 57년 12월경부터 58년 2월경까지 3개월간 과동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바울은 해동과 더불어 고린도를 떠나 3월말부터 4월초 사이에 닿는 유월절 명절을 빌립 보에서 보냈기 때문이다(행 20:6). 이렇게 볼 때 고린도후서는

전서를 전달받은 고린도교회의 부정적인 반응이 표출된 직후부터 57년 전반기 중에 쓰인 여러 개의 편지들을 모은 것일 수 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3개월간 과동하는 동안에 저술되었다. 바울은 주후 58년 3월 중에 고린도를 출발해서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냈고,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어 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 투옥되었을 때,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그 때가 주후 60년이였다. 같은 해에 바울은 네로에게 재판을 신청하였고, 로마로 이송되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간 머문 때를 주후 51-52년 사이로 보는 것은 이 시기에 갈리오가 고린도에 총독으로 부임하였기 때문이며, 바울이 로마에 이송될 당시를 주후 60년으로 보는 이유는 베스도가 같은 해에 유대총독으로 부임하였기 때문이다.

### 일요일 예배안 내용

2절의 “헬라”는 아가야도의 명칭이다. 그곳의 수도는 고린도였다. 해동이 되자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케도니아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3절). 이때 소아시아 드로아에 먼저 가서 기다린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4절에 실렸다.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테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은 예루살렘까지 헌금을 운반할 각 지역교회들의 사절들이었다. 그들의 이름 앞에 지역명이 나온 이유가 그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들은 예루살렘교회 앞에서 이방인교회들의 현황을 보고할 각 지역교회들의 대표들이었다. 바울 일행은 유월절이 지난 후 누가와 더불어 빌립보에서 배로 출발하여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먼저 도착한 지역대표들과 합류하였고,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냈다(6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누가는 드로아에서 제2차 선교 때 바울 일행을 만나

함께 마케도니아로 건너갔고, 빌립보교회가 설립되는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후 언급이 끊겼다가 바울과 헤어진 지 6-7년 만에 빌립보에서 재회하여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동행하였다.

예루살렘에 갈 일행은 가이사랴행 배를 기다리며 한 주간을 드로아에서 지냈다. 여기서 누가는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그것은 드로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하려고 일요일에 모였다는 것이다. 주일예배와 내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다. 이때가 주후 58년 4월경이고, 예루살렘교회 창립 28주년을 5주 정도 앞둔 때였다. 이들이 모인 시간은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해진 후, 즉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이자 유대인들에게는 일요일의 시작이었다. 바울의 강론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주의 만찬식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날이 새기까지 강론이 이어졌다. 창에 걸터앉았던 청년 유두고가 졸았던 것은 종일 노동으로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켜놓은 등불들이 내뿜는 일산화탄소가 창쪽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3층에서 떨어졌는데도 다행히 무사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임이 주는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7절의 “안식 후 첫날” 혹은 “주간의 첫날”은 요일명이 없었던 유대인식 표현으로써 일요일을 말한다. 교회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 혹은 이를 줄여서 주일이라고 불렀다. 드로아에서의 집회는 초기 교회가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곧 주일에 모여 예배드렸고, 예배의 내용으로 주의 만찬을 거행했다는 증거이다. 이보다 앞서 기록된 고린도전서 16장 1-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예배의 내용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이 일이 있고서 50년쯤 후인 112년경에 플리니(Pliny the Younger)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터키 북서부 비두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한 날(주일) 새벽에 모여 연도 형식의 찬송을 부르고 서약(십계명)하였으며, 흠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 “보통의 흠 없는 음식에 참여했다”고 보고하였다.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고, 기독교집회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모여 1부 말씀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저녁에 다시 모여 2부 주의 만찬 예배와 헌금을 드렸던 것이다.

## 40.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6(행 20:13-38)

## 주일에배의 중요성

유대인들은 땅과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거나 군비를 증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이 성서를 기록한 신앙인들만의 것이었는지, 정치인까지도 그런 것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성서에서 신앙과 정치 모든 면에서 모범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강조된 것을 보면, 군사력을 천대시한 것은 결코 아닌 듯싶다.

유대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계명은 안식일 준수이다. 제4계명인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우상숭배 관련 1-3계명은 물론이고, 다른 계명들도 잘 지켜내는 것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랍비들은 유대인이 안식일 계명을 어길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지키게 하였다.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이 정도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해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는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완강한 집착과 교회의 승인권과 옳음과 그름의 판결권을 가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강력한 영향력이 주후 70년까지 지속된 상황에서 50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킨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특별한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승천사건과 오순절 날 성령강림사건이었다.

첫째,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 즉 교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그 날을 기념할 필요가 있었다.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곧 “주 첫날”이라고 불렀고, ‘주님의 날’ 또는 줄여서 ‘주

일'이라고 불렀다.

둘째, 주후 30년 5월 28일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었고, 이 날은 일요일이었다.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요일에 시작되었다.

셋째, 옛 언약 백성의 옛 땅과 옛 나라 곧 문자적 이스라엘의 언약의 내용은 율법이었지만,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 곧 영적 이스라엘의 언약의 내용은 복음이었다. 율법은 이 복음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후 50년대의 교회들(행 20:7; 고전 16:2)은 주일예배를 드렸다. 90년대의 교회들도 주일예배를 드렸다. 계시록이 “주의 날”(1:10)을 언급했고, <디다케> 및 이그나티오스와 바나바도 그들이 쓴 서신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면서 주일예배를 권장하였다. 2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112년경에 플리니(Pliny the Younger)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터키 북서부 비두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한 날(주일) 새벽에 모여 연도형식의 찬송을 불렀고 서약(십계명)하였으며, 흠뻑 젖은 저녁에 다시 모여 “보통의 흠 없는 음식에 참여하였다.” 주후 150년경에 순교자 저스틴은 교회들이 주일날 모여 사도들의 회상록과 저술들을 낭독하였고, 형제들의 회상(당회장)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일어서서 다함께 기도하였으며, 물을 섞은 포도주와 빵을 봉헌한 후 성만찬 기도와 분병례와 헌금과 구제가 있었으며, 집사들은 예배에 참석치 못한 교우들에게 성찬을 배달하여 참여토록 하였다고 <변증서>에 기록하였다.

### 장로직에 관해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고별설교를 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로 자신이 겹손과 눈물로 시련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었고(18-21절), 둘째로 자신이 범사에 모본을 보인 것처럼 양

때의 감독과 목양에 최선을 다 할 것과 위험에 대비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었다(28-35). 28절에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온 양떼 가운데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을 남겼는데, 장로의 기능이 감독과 목양이란 점을 밝힌 것이다. 감독자와 목양자는 목사와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이므로 밀레도에 집결한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은 불박이 목사들이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목회자의 호칭은 장로(elder)에서 사제(presbyter)로 다시 목사(pastor)로 바뀌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신약성서에서 장로들은 회중이 선출한 목양권과 감독권을 갖는 불박이 목회자들이었다(20:28, 딤후 5:17, 약 5:14). 그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했다(딤후 3:2, 12, 딤후 1:6). 선교지에서 그들을 장립한 것은 바울, 바나바, 디도와 같은 떠돌이 전도자들이었다(14:23, 딤후 1:5).

둘째, 디모데의 경우에서 보듯이, 떠돌이 전도자들은 장로회로부터 안수를 받았다(딤후 4:14. 행 13:3 참고).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를 세웠으나, 대체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바울처럼 결혼을 포기한 자들이 있었다(고전 7:8).

셋째, 역사적으로 가톨릭교회의 경우 장로는 부제(집사, 사제 서품 1년 전에 서품), 사제(장로, 대학교육7년+병역/봉사3년=10년 후 서품), 주교(감독, 교구장), 대주교(대교구장), 추기경, 교황으로 계급화 되었다. 장로가 사제로 바뀐 것은 가톨릭미사가 제사에배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개신교에서 사제개념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마르틴 루터의 만인사제설(벰전 2:9)과 존 녹스가 평신도 장로제를 도입하여 장로교회를 만든 때부터였다.

다섯째, 개신교에서 장로와 목사의 역할 또는 기능을 놓고 논쟁이 시작된 것은 1840년대 미국의 변방교회들에서였다. 이때 신학과 목회훈련을 받고 회중에 초빙되어 정착한 유급 전담 목

회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가톨릭과 같은 전통교회들은 신학과 사목훈련을 받은 자들을 사제(장로)로 서품하여 지역교회에 목회자로 파송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와 같은 논쟁이 없다.

여섯째, 초빙되어 정착한 유급 전담 목회자가 장로인가 혹은 장로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하는 전도자인가라는 논의가 1890년대에 미국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목회자는 장로들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엄격한 감독아래서 교회를 섬기는 주재(駐在) 전도자라는 주장과 목회자는 교회의 주도적인 장로요, 여러 장로들과 동등하지만 첫째(당회장)라는 주장이 맞섰다. 미국의 경우, 교단에 따라서는 장로를 목사보다 우위에 혹은 목사를 장로보다 우위에 두기도 하며, 그 중간에 두기도 한다. 목회자 호칭은 장로가 우위인 경우 전도자(evangelist), 목사가 우위인 경우 목사(pastor), 그 중간인 경우 목회자(minister), 설교자(preacher), 전도자, 드물게 목사로 불린다.

###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서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져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눅 9:51) 십자가의 길인 예루살렘에 오르셨듯이, 바울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랐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절인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르셨고, 바울은 그리스도 나라의 건국일인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랐다(19:21-21:17). “예수께서 ....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눅 9:51)하신 것처럼, 바울은 22-24절에서 예루살렘에 오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바울은 그 길을 목숨 걸고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할 길로 여겼다는 것,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예언한 아가보 선지자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만류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21:13)며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준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만류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마 16:21-24)고 하신 말씀에 잇대어져 있다. 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21:14)고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하신 기도에 잇대어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그 길을 피해가라는 지시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지시오,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 곧 복음의 일을 생각하라는 지시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령해서 미래에 생길 일을 미리 아는 예지의 능력보다는 미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또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과 바울이 오름의 행진을 했던 지상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비록 그곳에 오르는 길이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간힘과 매 맞음의 길, 죽음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맞춰 외롭게 오르신듯이, 또 바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순절에 맞춰 올랐듯이, 성도는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 길 끝에 최후승리가 있고, 최후영광이 있으며, 최후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 41.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7(행 21:1-40)

## 거룩한 입맞춤

20장에서 바울 일행은 4월 중하순에 에게해 북부서안의 드로아를 떠나 남부서안의 앓소, 미들레네, 기오, 사모를 지나 밀레도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여 고별설교를 하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인사를 나눴다.

입맞춤 인사는 고대근동과 그리스-로마세계의 문화였다. 구약성서에서는 이삭 때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친인척과 친구 사이에(창 27:26-27, 출 18:7, 삼상 20:41), 상봉과 작별 때(창 31:28, 룻 1:9, 왕상 19:20),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삼상 10:1, 시편 2:12) 입맞춤 인사를 하였다. 신약성서에서는 탕자와 그의 부친이 상봉 때 입맞춤 인사를 하였다(눅 15:20).

입맞춤 인사를 예배의식에 도입한 것이 주의 만찬 때 성도들이 나누는 거룩한 입맞춤이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로마서 16장 16절에 나온다. 이들 서신들은 모두 50년대의 저술들이다. 베드로도 전서 5장 14절에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였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 뺨과 뺨을 맞대는 인사였는지, 입술과 입술을 맞대는 뽀뽀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구원과 일치를 상징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상징하는 성소취장을 갈라놓음으로써 민족의 담, 성별의 담, 신분의 담, 계급의 담을 허물고, 민족성별, 신분계급의 차별 없이 누구나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히 4:16) 또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히 10:19)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히 10:20)에 근거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룩한 입맞춤은 민족의 담을 헐어버렸다. 정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방인과 입을 맞췄기 때문이다.

둘째, 거룩한 입맞춤은 성별의 담을 헐어버렸다. 성애적인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입맞춤을 거룩한 것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주의 만찬의식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피와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박해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자매들이 나눈 거룩한 입맞춤은 이방인들이 바쿠스축제에서 나눈 성애적인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셋째, 거룩한 입맞춤은 신분의 담을 헐어버렸다. 주인과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을 맞췄고, 양반과 상놈이 형제자매로서 입을 맞췄기 때문이다. 노예가 주인의 형제님과 자매님이 되고, 상놈이 양반의 형제님과 자매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거룩한 입맞춤은 계급의 담을 헐어버렸다. 황제도 신하도 백성도 노예도 모두가 하나님의 동등한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에 대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였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몬 1:16).

### 예루살렘에로의 오름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고스, 로도를 거쳐 터키 남부서안의 바다라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베니게(레바논)항 배로 갈아타고 두로(Tyre)에 도착하였다(1-3절). 두로에서 일주일간 머물렀는데, 그곳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유하였다. 떠나는 날 두로의 그리스도인들과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작별한 후 배를 타고 돌레마이(Ptolemais)를 거쳐 가이사라에 도착하였다. ‘돌레마이’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주전 285-246년), 가이사라는 로마황제를 기념하여 각각 붙여진 도시명이다.

바울 일행은 항해의 종착지인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8절). 개역성서는 빌립을 집사로 번역하였지만, 원본과 상관없는 추측성 번역이다. 사도 빌립과 구분하기 위해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으로 불렸다.

‘전도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전도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빌립에게 있어서 ‘전도자’는 교회의 직분(엡 4:11)을 말한 것이다. 빌립, 디모데(딤후 4:5), 디도(딤후 1:5-9), 바나바(행 4:35-37), 아볼로, 마가, 실라, 가이오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성서에서 말하는 전도자는 한국에서의 전도사보다 상위개념이다. 초대교회 당시 전도자는 사도, 선지자, 교사와 같은 떠돌이 전도자를 말하였다.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을 주업으로 하는 떠돌이 전도자들은 지역교회에서 감독과 목양을 주업으로 하는 불박이 목회자인 장로들과 역할과 기능면에서 구별되었다. 오늘날에도 장로를 목사보다 상위에 두는 교회들은 목회자를 전도자(evangelist)라 부르며, 목사를 장로보다 상위에 두는 교회들은 목회자를 목사(pastor)라고 부른다. 그 중간에 있는 교회들은 목회자(minister), 설교자(preacher), 전도자, 드물지만 목사라고 부른다.

빌립의 네 딸들은 처녀 예언자들이었다. 가이사라에 며칠 머무는 동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지만, 바울은 듣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서는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머물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을 말한다. 사도와 교사와 더불어 선지자는 떠돌이 전도자였다. 장로를 지역교회의 불박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사도, 선지자, 교사는 떠돌이 전도자였다. 주후 90년경에 <디다케>는 이들 떠돌이 전도자들이 방문을 하면 영접을 하되, 하루 이상 머물지 말게 할 것이며, 3일을 머물면 거짓 선지자로 보라고 하였다. 또 이들이 떠날 때에 다음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음식이외에 돈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로 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르친 것을 행치 않는 자도 거짓 선지자로 보라고 하였다. 떠돌이 전도자들은 1세기에만 일시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2세기부터는 교회들이 장로(사제와 주교)들의 사목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장로와 주교(감독)는 본래 동일한 직분이었으나 2세기 초부터는 주교(감독)가 개신교의 담임 목사개념이 되었다.

### 사도들의 고난의 행진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선교보고를 하였고, 이방인교회들이 보낸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사도들을 만났다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 이즈음 사도들은 떠돌이 전도자로서 예루살렘을 일시적으로 떠나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도들은 야고보가 헤롯 아그립바1세에게 참수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었던 주후 44년에 박해를 피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 베드로가 탈옥 직후 예루살렘을 떠났고(12:17), 67년에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한 마태도 45년경에 예수님의 어록을 적은 <로기아>를 남기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러나 사도들은 주후 51년경에 안디옥교회에서 야기된 율법과 복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의 모임을 개최하였다(15장).

전설에 의하면, 사도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제비뽑기로 지역을 나눠 흩어졌다고 한다. 이때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이주하였고, 노년에 밧모 섬에 유배되었다가 95년에 석방되어 계시록을 남기고 이듬해에 사망하였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파묵칼레)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맛디아는 에티오피아에서 각각 순교하였다. 바돌로매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하였고, 그도 역시 복음서를 남겼다. 안드레와 열심당원 시몬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21절은 예루살렘교회가 세워진지 28년이 지난 주후 58년경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없이 많았으나 여전히 “율법에 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울이 반 모세, 반 율법, 반 유대주의자란 악평을 듣고 있었다고 전한다. 교회가 설립된 지 28년이 흘렀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인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여론을 반등시켜볼 생각으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실인 서원을 끝내고 정결예식을 치러야할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함께 정결예식을 행하고 모두의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었다. 바울 자신도 서원을 끝내고 머리를 깎아 보관하였지만, 아직 정결예식을 치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결예식을 치러야했다. 26절은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고 전한다.

일주일의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아시아에서 온 헬라파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돌해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나가 때려죽이려고 하였다. 그들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본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인 그를 성전에게까지 데리고 들어온 것으로 오해하였다(27-29절).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면 사형에 처해졌다. 성내에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

고 천부장이 군인들과 함께 달려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인 로마군인들 때문에 난폭한 유대인들의 손에서 목숨을 건졌다.

## 42.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8(행 22:1-21)

## 개종에 대한 바울의 진술

바울은 자신의 출생과 성장, 회심의 과정, 이방인 전도사명 등을 유대인들의 생활언어인 아람어로 설명하였다(1-23절). 3절에서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고 말하였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리새인의 아들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시민권자로 출생하였다(23:3,26, 22:28). 다소는 주전 64년 이후 로마의 자유시가 되었다. 다소는 헬라철학의 명소로써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곳이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공부하였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다. 3절에서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고 말하였다. 유대인의 교육은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졌다. 6살 때부터 모세오경, 쓰기,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10살에는 미쉬나(Mishna)를 배웠다. 미쉬나는 바울 당시 구전의 형태였다. 미쉬나는 농사법(Zeraim), 안식일 및 절기법(Moed), 결혼 및 이혼법(Nashim), 일반 형법(Nezikin), 희생제물법(Kodashim), 레위인의 성결법(Tohovoth)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주후 500경에 미쉬나와 미쉬나를 주석한 게마라(Gemara)를 모은 책이며, 유대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율법과 전통과 지혜가 담겨있다.

유대인 소년은 12살 때 성인식을 준비한다. 요셉과 마리아도 열두 살이 된 예수님을 명절에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간 것은 성인식 준비와 무관하지 않다. 바울의 부모도 바울이 12살이 되

자 그를 데리고 유월절이나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를 이 연령 때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추측컨대 바울의 부모는 이 예루살렘방문 때 바울을 가말리엘 학교에 입학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점으로 보아 청소년 시절 8-10년간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다소에 돌아갔다가 예루살렘교회가 설립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 같다.

4절에서 바울은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메섹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울은 주후 34년경 헬라파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스테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스테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이단자로 확신하여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스테반 순교이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영장을 지참하고 도보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다메섹 인근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개종하게 되었다. 이때가 주후 34년경이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2km 정도 떨어진 고대 시리아의 수도였다.

### 예수님과의 만남

바울은 다메섹 인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6-13절과 17-21절(표준 새번역)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

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 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테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개종함으로써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한테서 직접 받은 계시라고 주장하였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하였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3-25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의 전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서 주께 받아서 전한 것 이외의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였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하였다. 이 모든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에 근거한 것들이다. 이 체험에 바울이 설교와 저술로써 가르친 내용의 사도적 권위가 있다. 이것은 다른 12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운 것을 교회에 전한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이다.

### 바울의 회심체험

바울은 14-16절에서 이렇게 진술하였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여기서 “죄 씻음(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첫째, 침례를 통해서 죄 씻음(사함)을 받는다고 말한다. 22장 16절,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2장 38절,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둘째,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씻음(사함)을 받는다고 말한다. 10장 43절,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13장 38절,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셋째,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사함)을 받는다고 말한다. 3장 19절,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5장 31절,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넷째, 성령 안에서 죄 씻음(사함)을 받는다고 말한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디도서 3장 5절,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구절들을 볼 때, 침례만으로, 믿음만으로, 회개만으로 혹은 성령만으로 죄 씻음(사함)을 받는다는 식으로 어느 한 가지만을 가지고 죄 씻음(사함)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사도 행전에는 회심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8번의 사건이 실려 있다. 이 8번의 회심사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 씻음(사함)과 구원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한다. 듣고, 믿고, 침례 받고는 8번의 회심사건 모두에(2:1-41, 8:5-13, 26-40, 9:1-18, 10:1-48, 16:12-15, 25-34, 18:8), 회개는 3번(2:1-41, 9:1-18, 16:25-34), 신앙 고백은 1번(8:37)의 회심사건에 담겨 있다.

2장 38절의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를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로 번역하지 말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로 번역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다. 이는 ‘오직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침례교단의 몇 분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자들, 사전편찬자들, 성서 번역가들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로 번역하고 있고, 이제까지 번역된 모든 영어 성경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로 번역되어 있다. 만일 ‘오직 믿음’만을 고집한다면, ‘오직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오직 믿음’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

다. 만일 '오직 믿음'만을 고집한다면, '듣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고'의 회심과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오직'이란 단 하나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 43.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9(행 22:22-30)

## 로마제국의 시민권

유대-로마전쟁 때를 빼고는 유대지방에 로마군단이 주둔한 사례는 없었다. 유대총독부가 주재한 가이사라에 “이달리아대”가 주둔하였는데, 병력은 2개 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개 대대는 가이사라에 남고, 다른 1개 대대는 예루살렘에 주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대(Cohort)병력은 600-800명이었고, 천부장이 맡았다. 천부장은 선출된 시민 중에서 맡았기 때문에 병사출신인 백부장과 달리 직업군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으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여 소란의 원인을 알아보라고 명령하였고 백부장은 부하를 시켜 바울을 기둥에 묶게 하였다. 로마인의 채찍은 쇠붙이나 뿔조각이 매달려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면 죽거나 폐인이 될 정도로 무서웠다. 타키투스(Tacitus)는 10명중 7명은 죽고 나머지 세 명은 들것에 실려 나간 후 평생 절름발이가 된다고 기록하였다.

25절에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로마시민을 유죄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라고 항의하였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태장을 묵묵히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기 직전에 서야 자신이 로마시민권자임을 밝혀 상관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적이 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로마시민권자의 권리를 쓰지 않았던 것은 복음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 태장을 받고 감옥에 갇힘으로써 바울과 실라는 실제로 교회설립의 기회를 얻었다.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얻는 전략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전략이 통했던 것은 마하트마 간디와 마르틴 루터 킹2세의 비폭력시민저항운동이었다. 시민들이 처참하게 매를 맞고 피 흘리며 쓰러짐으로써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았고, 미국

의 흑인들은 인권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달랐다. 교회는 28년 전에 세워졌고, 믿는 자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굳이 부당한 채찍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로마시민권자임을 밝혔다. 바울이 로마시민권자인 것을 안 천부장은 빌립보의 상관들처럼 불안에 떨었다(29절).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시민권자였다. 바울의 조부가 폼페이 장군휘하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시민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8절에서 보듯이, 시민권은 돈으로도 살 수 있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인 메사리나의 총애를 받던 자들이 시민권을 팔았다. 23장 26절에서 보듯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였다. 글라우디오(클라우디우스)는 로마식이고 루시아는 헬라식인데, 이것은 루시아가 헬라인으로서 클라우디우스 치하에서 로마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로마제국의 전체인구 6천만 명 가운데, 시민권자의 수는 15퍼센트를 차지한 노예숫자 9백만 명보다 더 적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고 특권도 많았다. 권위의 상징인 긴 토가를 걸칠 수 있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었으며, 상업에 제약이 없었다. 시민권자와 결혼할 수 있었고, 고문과 구금을 함부로 당하지 않았으며, 재판의 권리가 있었다. 또 노역과 세금을 면제받았고, 오락행사의 무료관람과 무료배급도 받곤 하였다. 이 특권이 유지되던 때에 로마는 강한 군대를 유지하였다. 로마시민권을 빌미로 속주민들 중에서 양질의 젊은이들을 모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주후 212년 카라칼라 황제가 발표한 ‘안토니누스 칙령’(Constitutio Antoniana)을 로마제국의 붕괴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 칙령은 로마시민과 속주민과의 차별을 없애고, 제국내의 모든 자유민에게 동등하게 로마

시민권을 준다는 공포였다. 이 칙령은 로마건국 일천주년을 35년 남겨둔 상태에서 나온 엄청난 변화였다.

이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시민권은 더 이상 특권이 아니었다. 이 칙령의 공포로 인해서 노예를 제외한 제국내의 모든 자유인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마치 유대인들만을 선민으로 여기던 옛 시대의 특권을 새천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민의 특권을 준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주변국들의 시민권취득개념은 각기 달랐다. 먼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남자의 경우 할례를 받아야 하고, 남녀 모두 개종침례를 받아야 하며, 613개의 계명과 율타리 법들을 지킬 것을 서약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조건은 종족이나 언어나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오직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기독교복음이다.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에서는 양가 부모가 모두 아테네 시민이 아니면, 비록 그들이 그리스 태생이고, 아테네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였을지라도, 아테네 시민권을 주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케도니아 출생의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는 17세 이후 플라톤의 제자로 20년간 아테네에 머물면서 학문분야에 공을 세웠으나 시민권을 얻지 못하였다. 아테네인이 생각하는 시민권 개념이 혈통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한편 로마는 건국(753BC) 초기부터 전쟁에 이겨도 스파르타처럼 패자를 농노로 삼아 호되게 부려먹지 않았다. 오히려 유력자들에게는 로마시민권을 주고, 심지어 원로원 의석까지 주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도 다 이들 패자 출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생각한 시민권개념은 혈통이 아니라, 뜻이나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분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로마시민권이었다. 그러던 것이 카라칼라 황

제 때에 와서는 시민권이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범한 것이 되었던 것이다. 로마시민권을 갖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었고, 로마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노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던 것이 주후 212년 카라칼라 황제의 ‘안토니누스 칙령’으로 누구나 로마제국의 시민이면, 로마인이든, 속주민이든 상관없이 시민권을 갖게 되니까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게 돼서 좋긴 했는데, 시민권의 가치가 바닥을 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로마제국의 쇠퇴를 불러오게 되었다.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기독교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양반이나 상놈의 구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은 좋은 일인데, 자칫 값싼 은혜로 전락하여 복음의 가치가 바닥을 치는 결과를 가져와 기독교의 쇠퇴를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 인구는 세계 곳곳에서 줄고 있다.

### 새 언약 백성의 시민권

성서는 ‘땅’과 ‘나라’이야기이다. 따라서 시민권은 땅과 나라에 관련된 또 다른 주제이다. 속주민에게 있어서 제국의 시민권은 신분보장은 물론이고 신분상승의 기회까지 제공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긍심이 대단하였다. 비록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들의 나라는 사라진지 오래며, 그들은 수백 년째 속주민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열방의 족속들을, 심지어 자신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점령국들조차도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의 간택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로 간주할 만큼의 자부심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하고든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의 후손이었다.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은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천사를 놓아준,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것

다’는 뜻으로 얻은 이름이다. 결국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부심을 갖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여기 타향에 살아도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노예이지만 내년에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는 희망을 노래하게 만드는, 그래서 해마다 해방의 떡을 먹고 자유의 포도주를 마시게 만드는 동력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시민권은 영적으로 하늘 가나안땅에서 누리는 참 안식의 표요(히 4장), 이 땅에서의 삶을 종국적이고 영원한 삶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 ‘장차올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바로 이 시민권의 약속과 보장을 말한다. 따라서 바울은 ‘장차올 좋은 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였다(엡 1:21).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는 말씀이 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성령님은 ‘장차올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의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설명되었다. 광야사막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확실하게 인도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히6:9), ‘좋은 소망’(히7:19), ‘더 좋은 언약’(히7:22), ‘더 좋은 약속’(히8:6), ‘장차 나타날 좋은 것’(히10:1)이라고 말하였다. 유대인들도 ‘더 좋은 것을 사모’하였지만, 그것은 지상의 것이었지, 영원한 하늘의 것이 아니었다. 반면에 하나님은 미리 세우신 ‘더 좋은 계획’에 따라(히11:40)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자들을 위한 ‘한 도시’ 곧 하늘 가나안땅에 새 예루살렘을 마련해 놓으셨다(히11:16).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시

민권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 3:2)고 하였고, 히브리서 저자는 “더 나은 분향”, 곧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자고 하였다(히 11:16).

## 44.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10(행 23:1-35)

## 공회에서의 진술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이튿날 공회(Sanhedrin)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 진술토록 하였다. 바울이 공회원들을 주목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고 말을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진술을 가로막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2절).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재임기간(AD47-58)에 제사장들에게 쥐야할 십일조를 주지 않고 모은 재산을 로마고관들에게 뇌물로 바친 사악한 인물이었다. 주후 66년에 유대-로마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열심당원들은 그의 집을 불태웠고, 헤롯궁전의 도수관 속에 숨어 있던 그와 그의 형제를 찾아내 죽였다.

진술 첫마디부터 막히자, 바울은 자신을 차분히 변호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교리적 불일치를 이용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났다. 공회원들은 대부분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는 물론이고, 성경의 나머지 글들과 구전과 율타리 법에까지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였다. 헬레니즘시대의 영향으로 예정과 자유의지, 영혼불멸, 몸의 부활, 영혼, 천사, 마귀의 존재, 사후상벌, 성서영감, 죽은 자의 미래, 인간의 평등을 믿었고, 원리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 치중하여 민중 속에 파고들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모든 정파와 종파들은 소멸되었지만, 요하난 벤자카이와 그의 후계자 가말리엘 2세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바리새파는 살아남아 오늘날의 유대교로 받

전되었다. 그들이 살려낸 유대교의 불씨가 조국 땅이 사라진 과거 1878년간 유대인들의 정신적 영적 문화적 종교적 구심점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를 비롯해서 구성원 대부분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다. 집권세력이었고, 헬라주의자들이었다. 토라(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여 문자적으로 읽었다. 따라서 오경에 실린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제사의식,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반면, 오경에 없는 내세, 부활, 영적세계, 천사와 마귀 등의 존재는 믿지 않았다. 또 이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다. 특히 예루살렘교회 창립 초기에 사도들이 이들의 탄압을 받았다. 이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공회원들은 종교인이자 동시에 정치인들이었다. 그리고 공회는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유일한 통치기구였고,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법정이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공회(산헤드린)는 해산되었다.

이런 정황에서 바울은 6절에서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자 공회원들끼리 “큰 분쟁이 생겼고” 바울은 군인들의 보호아래 군영으로 돌아갔다(10절).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11절). 절체절명의 위기가 큰 기회로 바뀔 것이라는 위로였다.

### 단검단원들의 살해모의

날이 새자 바울을 암살하려고 40여명의 유대인 자객들이 모의에 가담하였다(12-15절). 바울이 갇힌 로마 군영(안토니아 요새)에서 산헤드린까지는 짧은 거리였지만, 매복하기 좋은 곳이어서 암살이 자주 발생하였다. 유대인 자객들은 ‘시카’(sica)라 불리는 단검을 소지하고 있어서 로마인들은 이들 단검단원들을 ‘시카리

이(Sicarii)라고 불렀고, 신약성서는 열심당원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로마에 대항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테러를 일삼기도 하였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와 같은 시몬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 단검단원들(dagger men)의 테러행위는 주전 40년에 로마의 유대인 지배에 대항하여 시작되었다. 주후 50년경에 게릴라 전법에 의한 격렬한 저항이 시작되어 결국 66년에는 유대-로마전쟁으로 확산되었다. 이들 단검단원들이 바울을 죽이려했던 때는 주후 50년과 66년의 중간인 주후 58년 초 여름이었다. 바울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천부장은 바울이 혹시 단검단원의 우두머리가 아닌가하고 의심을 했었다(21:38). 이제 는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철저히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16절에 바울의 조카가 등장한다. 바울이 이때 50대 초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는 30세쯤 된 청년이었을 것이다. 그도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단검단원들의 살해모의를 알아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그 정도 연령의 바리새파 청년이라면, 그에게도 이 모의에 참여하라는 권유가 있었거나 모의에 참여한 친구가 있어서 그 같은 움직임에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그는 비밀리에 영문으로 들어가 바울을 면회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바울은 로마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면회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천부장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Felix)에게 편지를 썼다. 로마당국은 유대인들의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지배자 로마를 상징하는 군사를 예루살렘에서 100킬로미터나 떨어진 가이사라에 주둔시켰기 때문에 가이사라의 헤롯 궁에 로마총독부와 로마군 기지가 있었다. 로마군 병사가 예루살렘으로 출동을 해야 할 경우에도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군기는 가이사라의 기지에 놓아두고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빌라도가 유대총독직에서 해임된 가

장 큰 이유는 이 법을 어기고 군기를 앞세운 부대를 예루살렘에 입성시켰기 때문이었다. 로마가 민족주의가 강한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취한 일련의 행동들이었다.

총독 벨릭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집에 그의 형제 팔라스(Pallas)와 함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해방 노예였다. 팔라스가 클라우디우스와 절친했었다고 한다.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는 벨릭스가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근성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는 세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한 여인은 안토니아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고, 또 한 여인은 헤롯 아그립바 I세의 딸 드루실라(Drusilla)였다. 드루실라는 15세 때 에메사(Emesa)의 왕 아지주스(Azizus)와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16세 때 벨릭스와 결혼하였다.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되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20여세였다.

### 바울의 가이사라 호송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보내졌다. 천부장은 단검단원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두 명의 백부장을 불러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호송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을 준비시켰다. 또 단검단원들이 테러를 일으키기 전에 신속히 바울과 군사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하기 때문에 당일 밤 9시에 출발하라고 명령하였다. 천부장이 준비시킨 병력은 예루살렘에 남게 될 병력보다 더 많았다. 이는 만일 예루살렘의 로마병영이 단검단원들의 습격을 받는다면, 위협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이 26-30절이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 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사람의 율법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군인들은 지시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중에 안디바드리(Antipatris)로 향하였다. 안디바드리는 주전 9년에 헤롯 대왕이 재건하여 자기 아버지 안티파트로스 2세의 이름을 붙인 성읍이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5km, 가이사라의 남쪽 45km 지점에 위치하여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를 오가는 군사들이나 여행객들이 묵어갈 수 있는 사론평원의 성읍이었다.

안디바드리에서 보병과 창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들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였다. 기병들이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총독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 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라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건에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한테서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29절)는 것이다.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무죄 방면하였듯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한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및 왕 헤롯 아그립바 2세도 바울을 정죄하지 못하였다.

둘째, 절체절명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4년간의 미결수생활은 일중독에 빠져있던 바울에게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주게 되고, 계획했던 로마 방문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직면해서도 물러서지 않고, 영웅적으로 도전하고 진군하여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란 것이다.

## 45.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1(행 24:1-27)

##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

바울은 고린도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체포되어 총 네 차례의 심문을 받았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직후 공회원들 앞에서 한번, 유대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 2년간 갇혀 있으면서 벨릭스 총독과 그의 후임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립바 2세 왕에게 각각 한 번씩 심문을 받았다. 예수님도 갈릴리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 체포되어 공회에서 한번, 빌라도 총독에게 두 번, 헤롯 안디바 왕에게 한번, 총 네 번의 심문을 받으셨다. 공교롭게도 바울과 예수님은 각각 사역하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체포되어 공회에서 1회, 총독에게 2회, 왕에게 1회 총 네 차례씩 심문을 받았다. 이것은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져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첫째,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험한 길을 따라 걸었다. 예수님처럼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였고, 그 길이 험한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였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불굴의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주해야 한다.

둘째, 예수님처럼 바울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고, 불리한 재판을 받았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민중선동죄, 반역죄, 성전모독죄, 조세(租稅)거부죄, 메시아참칭(僭稱)죄와 같은 억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호인도 없었으며, 법적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법적용과 잘못된 판결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죄도 없는 자신을 2년이나 가둬놓고 석방시키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로마시민의 자격으로 네로 황제에게 상소하였다.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술책과 바울에게 돈을 바라는 욕심 때문에 구류시켜놓고 있었다.

지난 2천 년간 유대인들이 겪었던 엄청난 불행이 예수님과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배척한데서 기인됐다는 것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주장이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 “제4편 문명의 쇠퇴”에서 이렇게 기술하였다.

일시적인 자아를 이상화하는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는 신약 성경에 폭로된 유대인의 과오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백성은 일신교의 종교사상에 도달함으로써, 그 주위에 사는 시리아 사회의 다른 민족들보다 단연 뛰어나게 되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정신적 보물을 강하게 의식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당연하였으나, 그 정신적 성장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단계이기는 하였지만, 하나의 과도적인 단계에 불과한 것을 이상화하는 과오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확실히 무상(無上)의 정신적 통찰력을 타고난 민족이었지만,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진리를 발견한 후에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절반진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 천부의 재능을 어리석게도 땅에 숨겨둠으로써 그것을 활용할 줄 몰랐던 그들은 신이 나사렛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제공한 한층 더 큰 보물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 바울에게 덮어씌워진 죄목

바울이 가이사랴에 호송된 지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되었다. 먼저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5-8절을 보면,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염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병을 퍼트리는 염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더돌로는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는 소요죄였다. 바울은 온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이다. 로마제국은 소요사건에 대해만큼은 신속하고도 잔인하게 처리했다. 총독 벨릭스는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여러 소요 사건의 주동자들과 추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잔인한 사람이었다. 소요죄는 반란음모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죄였다. 따라서 더돌로는 이 점을 이용하여 종교적으로 불만이 있던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했던 것이다.

둘째,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당(Notzrim)이라 불렀다. 나사렛이란 예수님의 출신지를 가리킨 말로써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제국이 인정한 합법종교는 유대교뿐이었다. 이스라엘에 거짓메시아들이 종종 출몰하였는데, 이 거짓메시아는 제국의 질서와 안녕을 해칠 뿐 아니라, 심중팔구 반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써는 단호하게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 5장에서 언급된 드다란 사람과 갈릴리 사람 유다가 각각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21장에서 언급된 사천 명의 자객을 광야로 끌고 나가 반란을 일으킨 이집트출신도 있었다. 바울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라면 중죄인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더돌로가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셋째, 성전모독죄였다. 성전모독죄는 로마가 허용한 유대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로마총독의 제가 없이도 즉결처벌 할 수 있

었으므로 성전에서 체포된 바울을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로 송치한 것은 부당한 처사임을 주장한 것이다. 공인 사본에는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에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총독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라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더둘로는 바울이 로마법상으로 보나 유대법상으로 보나 반드시 처형되어야 할 염병과 같은 존재요, 중죄인임을 고소하였다. 더둘로가 바울을 염병에 비교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을 누룩에 비교하셨는데, 복음의 엄청난 전파력 때문에 반대자들이 천국복음의 능력을 염병과 같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천국복음의 전파력은 기독교가 392년 로마제국의 국교가 됨으로써 입증되었다.

### 바울의 변호

복음의 전파력은 조선에서도 입증되었다. 1800년 정조대왕이 죽자 복인 벽파의 무리가 흥낙안을 앞세워 교회를 박멸하고자 할 때에 붙인 죄목들은 비인간성과 비국민성 그리고 체제도전이였다. 기독교인들은 죽기를 무릅쓰고 임금의 명령이나 국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제사를 배척함으로 유교적 질서를 거부하는 무군무부(無君無父)의 무리요, 비밀집회를 통해서 나라 안전을 위협하며, 천국신앙으로 사회개혁을 꾀하고,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며, 양반과 상놈의 신분타파로 반상체제를 위협하는 국가의 원수 집단이며, 인륜과 충의를 저버린 짐승의 무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씨까지도 제거해 버리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들이 보기에 도 널리 번져버린 염병을 제거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전파력이 강한 복음의 씨앗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었다.

더둘로의 거짓 증거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

다.

첫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예루살렘 방문목적이 정치적인데 있지 않고 종교적인데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또 열이틀 중에 나흘간은 붙잡혀 있었고, 칠일간은 성전에서 정결예식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선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둘째, 아무도 자신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종교적으로도 흠 잡힐 것 하나 없는 사람으로서 체포 후 공회원들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에 삶에 잇대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통에 충실하였고,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 한 율법과 회당예배와 구약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하였다.

넷째, 예루살렘 방문 목적 가운데는 가난한 동족의 구제와 성전에 예물을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언급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을 돈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다섯째,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썼다”(16절)고 진술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참으로 담대하게도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약간의 기회만 주어져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던 반면, 총독 벨릭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들을 머뭇거리고 결단을 미룸으로써 크고 중요한 복들을 놓치고 말았다. 벨릭스는 회개와 결단의 기회를 연기함으로써 크고 위대한 영생의 복을 차버렸고,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석방을 무기한 지연시켰다. 그는 영생의 복을 얻는 대신에 몇 푼의 돈을 바울로부터 받을까 해서 석방을 지연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하기보다는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 그나마 다행했던 것은 벨릭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긴 것처럼, 로마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넘길 수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수일 후에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청하여 복음을 들었으나 결단의 시기를 미룸으로써 생애 가장 큰 실수를 범하였다.

## 46.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2(행 25:1-27)

## 바울의 구금기간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이 내려오면 판결을 하겠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속개하지 않았다. 벨릭스가 바울을 2년이 지나도록 억류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비난과 혹 있을지도 모를 폭동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었고, 둘째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까하는 것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벨릭스는 해방노예로서,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의 증언대로,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근성이 있었던 자였다. 벨릭스는 가끔씩 바울을 불러 설교를 들곤 했지만, 뇌물을 바라는 속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나 돈을 주면 석방시켜주겠다는 암시를 준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율리아(Julia)법은 돈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것을 금하였다. 이를 위반하면 관직에서 쫓겨나 추방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였다.

바울은 주후 58-60년까지 2년간 가이사라 감옥에 미결수상태로 구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2년의 기간은 일중독에 빠진 자신을 돌아보고 누적된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위기에 찾아온 기회였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구금의 위기를 로마로 가는 기회로 삼았다. 그에게 위기와 기회는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배후에 숨겨진 보물 같은 기회를 찾아내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 이것이 바울을 전무후무한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비결이었다.

바울은 주후 60-62년까지 로마의 셋집에서도 미결수상태로 구금되었다. 그가 구금된 기간은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합계 4년이였다. 이 기간이 꽤 길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시민권자요 미결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지인

들의 도움을 받는데 별 방해가 없었다. 따라서 바울은 이 4년간 제한적이었지만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또 바울은 이 4년간 많은 서신을 썼을 것으로 추측되나 아쉽게도 남아 있는 옥중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뿐이다. 그리고 이 서신들이 가이사랴에서 쓰였는지, 로마에서 쓰였는지, 혹은 그 이전에 에베소감옥에서 쓰였는지는 아무도 단정지을 수 없다. 다른 한편 누가에게도 바울이 구금된 4년의 기간은 훌륭한 기회였다. 누가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목격자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벨릭스의 후임자인 보르기오 베스도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에 비해서 성실하고 유능했으며, 비교적 선량한 총독으로서 공정한 통치에 힘썼고, 강도들을 제거하는 일에도 힘썼다고 전한다.

벨릭스가 유대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은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대략 8년간이었다. 그가 소환된 이유는 가이사랴에서 발생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분쟁 때문이었다고 한다. 유대인이 많이 사는 도시들에서 헬라인과의 분쟁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로마의 관리들이 헬라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컸다.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표를 파견하여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이로 인해서 벨릭스의 소환이 이뤄졌다. 그의 소환과 새 총독의 부임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갈 돌과구가 생겼다.

###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

벨릭스가 파면되고 주후 60년경에 보르기오 베스도(Porcus Festus)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달리 유대인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집착하는 바울의 처형을 정치적

인 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신임이었고 임기를 잘 마치려면 유대인들의 협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베스도가 자기들의 약점을 파악하기 전에 또 자기들의 협조가 필요한 임기 초에 바울을 처형하려고 총력을 기우렸다. 따라서 그들은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하루를 쉬고 삼일째 되는 날에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처형을 도와달라고 집요하게 졸랐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단검단원들을 길에 매복시켰다가 습격하여 바울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8-10일 정도를 머문 후에 유대인들의 유력자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바울을 불러 즉시 재판을 열었다. 벨릭스 때와 똑같이 유대인들은 중대한 죄목들을 나열하며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재판을 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속보이는 음모와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하는 베스도의 어리석음 때문에 부득이 네로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벨릭스의 불의한 처신 때문에 이미 2년을 감옥에서 허송하였다. 유대인들이 저토록 집요하게 나오는 이상 또 베스도까지 어떤 불공정한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파비(Phabi)의 아들 이스마엘이었다. 헤롯 아그립바 2세가 벨릭스 통치 말기에 이스마엘로 하여금 아나니아를 이어 대제사장직을 승계시켰기 때문이다. 누가가 대제사장을 복수로 지칭한 것은 주전 586년 유다왕국의 멸망이후 대제사장직은 더 이상 종신직이 아니라,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자주 바뀐 권력자의 시녀에 불과하였으나 백성은 전임과 후임 모두를 대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공민권에 대한 율리우스의 법’은 관원들이 로마시민을 죽이

고 채찍질하고 쇠고랑을 채우거나 로마시민에게 상소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하거나 로마시민이 정해진 시간 내에 상소제기를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이 법에 따라서 바울은, 황제의 대리자인 총독의 하급심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로마시민권자의 권리로써 상급심에 호소하여 로마로 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속주민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베스도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자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낼 수가 없게 되었다. 베스도는 로마의 공명정대함을 해칠까 두려워서 바울에게 유죄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고, 또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서 그를 풀어줄 수도 없었다. 그는 그의 법률 고문들과 협의한 후 바울이 상소한 대로 로마로 호송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 헤롯 아그립마 2세 앞에서의 재판

며칠이 지난 뒤 아그립마 2세가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헤롯 궁에서 여러 날 머무는 동안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꺼내놓았다. 베스도는, 아그립마와 버니게가 유대인의 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그립마 왕도 바울을 심문하고 싶어 했으므로 또 재판이 열렸다. 베스도는 왕에게 24-26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더 이상 살려 두면 안 된다고 빗발치게 고발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일을 황제께 보고할 분명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황제께 써 보낼 어떤 단서를 얻을까 해서 그를 왕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후 아그립바 2세도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듯이,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 갈리오,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왕 아그립바 2세, 천부장 루시아, 그 누구도 유대인들의 고발과 고소에 대해 바울한테서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23:29)를 찾지 못하였고, “사형을 받을 만한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았다”(25:25)고 판단하였다.

헤롯 아그립바 2세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다. 주후 44년에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죽자, 17세의 나이로는 문제 많은 유대지방을 다스릴 수 없다는 이유로 후계자로 지명되지 못하다가 칼시스의 왕인 삼촌 헤롯이 주후 48년에 죽자, 그의 작은 왕국을 물려받았다. 주후 52년에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임명할 권리와 또 매년 대속죄일에 입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관하는 권리도 부여 받았다. 53년에는 이 작은 왕국을 내어주고 대신 빌립의 분봉과 루사니아의 분봉을 포함하는 더 큰 영토를 받았다. 이 영토는 3년 후 네로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들과 고을들을 덧붙여 줌으로서 더욱 확장되었다.

버니게(Bernice)는 아그립바 2세보다 한 살 아래인 누이동생이었다. 버니게는 칼시스의 헤롯인 삼촌의 아내였는데, 당시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녀의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다. 버니게는 드루실라보다 인물이 못하여 늘 드루실라를 괴롭혔다고 전한다. 드루실라가 아지주스를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버니게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한다. 버니게는 주후 66년에 발발한 유대-로마전쟁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서까지 총독 플로루스(Florus)의 유대인 학살을 막으려고 힘썼으나 허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극렬분자들은 그녀와 아그립바의 궁궐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후로 그녀는 로마를 지지하게 되었고, 전쟁 말에는 나중에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의 주의를 끌게 되었으며, 주후 75년 아그립바와 함께 로마에 갔을 때 79년에 황제가 된 티투스의 정부가 되어 그와 함께 살았다. 티투스는 그녀와 결혼

하려고 했지만, 원로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 47.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3(행 26:1-32)

## 바울의 부활신앙

바울은 베스도의 주선으로 아그립바 2세 앞에 서게 되었다. 이때 아그립바 2세의 나이는 33살이었다. 그의 몸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유대인의 풍속과 쟁점들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밖의 유력한 인사들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 수려한 언어로 그가 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유대인들은 바울이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온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인정할 것이다.

둘째, 바울이 고발당한 것은 유대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다. 바울의 소망은 부활을 말한다(24:14-15).

셋째,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당연하게 여겼다.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까지 박해의 손길을 뻗혔다.

넷째, 그랬던 바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은 자신이 박해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웃나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강렬한 빛을 받아 모두 거꾸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서 돌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고, 주님께서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 줄 일의 증

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14-18절)라고 말씀하셨다.

다섯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즉시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나라들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 복음전파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다.

여섯째, 바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무론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 밖에는 말한 것이 없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실 분이시라는 것이었다.

바울이 체포되어 최종적으로 왕 아그립바 2세 앞에 서기까지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선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에서(22:7-8), 공회에서(23:6), 총독 벨릭스 앞에서(24:14-15), 총독 베스도 앞에서(25:19) 그리고 왕 아그립바 2세 앞에서 일관되게 선포한 것은 부활이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었다.

## 바울의 열정

바울은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을 전하는 끈질긴 모습을 보였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심문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을 복음증거의 기회로 삼았다. 이미 네로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은 왕 아그립바 2세 앞에 서는 불편함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기회를 지체

높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하였는데, 이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왕 아그립바 2세에게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다.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못 믿느냐는 것이었다. 바울은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라고 물었다. 이어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하였다. 한 때 바울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믿지 못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실을 9-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었습니다. 한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빼뚫어진 것이었지만, 율법에 대한 열정, 유대교에 대한 열정,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대단했었다는 점이다. 이 열정은 거짓이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개인의 출세와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지 않았을 것이다. 빼뚫어지고 왜곡된 것이었지만, 잘못 알고 행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열정을 바로 잡으시고 천국복음전파를 위한 큰 그릇으로 쓰셨다. 그래서 순수한 열정이 중요하다. 열정이 순수하면 그 방법과 결과가 나뉘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고침 받고 더욱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데다가 과오까지 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한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소망 중에 하지 못한 일들은 작은 결과만 나타나도 크게 공치사를 하게 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분을 품게 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행한 일들은 공치사하지 않는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행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게 여기면서 머리를 숙인다. 바울의 열정이, 비록 빼뺏어지고 왜곡된 것이었지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행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주셨던 것이다.

### 바울의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음을 14-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서 돌친 채찍을 밧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 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게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부

르신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 목적은 흑암에 사는 자들의 눈을 열어 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신앙공동체에 가입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신 성도들에게는 이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왕 아그립바 2세에게 감히 말하기를,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29절)라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바울의 증거에 대한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24절)로 나타났다. 또 아그립바 왕의 반응은,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28절)로 나타났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해준다. 짧든지 길든지 말할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을 설득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려했던 바울, 그런 바울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칠 수는 없는 것인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입에서 예수 믿어야 산다는 말을 토해낼 수는 없는 것인지, 순간순간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바울은 자신의 변호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바울을 심문했던 왕 아그립바 2세와 버니게 또 총독 베스도에게,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간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31-32절)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는데 급급해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자기 사명에 충실했을 때, 바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흠하다는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바울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자신에게 말

겨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을 때, 바울을 죽이려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조차도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가 무흠해야 전망이 밝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 48.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4(행 27:1-26)

##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바울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역설적이지만 환난 중에서 이뤄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준다. 바울은 첫 선교를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키프로스) 섬과 터키 남 갈라디아 지역에서 했고, 두 번째 선교를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도 고린도에서 했으며, 세 번째 선교를 터키 소아시아주 에베소에서 행하였다. 바울이 행한 제1.2.3차 선교지역은 모두 헬라어문화권인 동방지역이었다. 세 번째 선교를 마치고 세운 네 번째 선교지역은 라틴어문화권인 서방지역 로마와 스페인이었다. 그런데 27장은, 비록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미결수의 몸이었지만, 계획하고 기도했던 서방선교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준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에서 2년 조금 넘게, 이탈리아 로마에서 대략 2년간 도합 4년간의 미결수 신분 옥살이를 했지만, 나름대로 한정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바울에게 충분한 쉼과 학문적 성찰과 자기발전의 기회가 주어졌으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난과 역경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기도와 계획이 이뤄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다.

이로써 우리는 막힘의 위기 속에 트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바울은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줍니다.”(고전 10:13)고 말했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고후 4:17)고 말했다.

위기(crisis)란 말은 한자로 위태할 위(危)자와 틀 기(機)자의 두 문자로 이루어져있는데, ‘위’(危)자는 위험을 뜻하고 ‘기’(機)자는 기회를 뜻한다. 그래서 위기란 위기도 되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Anold Toynbee)는 인류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위기가 너무 커도 망하고 위기가 없어도 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적당한 위기는 인류문화와 문명을 흥하게 하는 도전(challenge)이라고 했다. 여기서 ‘적당한 위기’란 위기에 반응(response)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강한 위기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다른 사람은 약한 위기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전혀 없어도 망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위기는 인간의 발전을 위한 쓴 약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도 망하고, 위기가 없어도 망한다는 말은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막아주지 않고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위기를 예측한 바울

바울의 로마여행은 수인의 몸으로 끌려가는 호송길이기보다는 차라리 제4차 전도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여행길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다.

1절에서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한 황제 대대(the Augustan Cohort)에 소속된 백인대장으로써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사람이다.

2절에서 '아드라뫼데노(Adramyttium)배'는 소아시아 북쪽 아드라뫼데노에서 온 상선으로써 바울과 그의 일행이 승선한 배였다. 이 상선은 터키와 수리아의 연안을 항해하는 무역선이었다. 율리오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적당한 연안에서 로마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탈 계획이었다.

이 배에 바울의 동역자들인 누가와 아리스다가 동승하였다. 누가는 안디옥(혹은 드로아) 출신으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갔고, 빌립교회가 설립되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으며,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와 그리스순방까지 모두 마치고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다시 합류하였다. 이후 누가는 바울과 짝 함께하였다. 아리스다는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아데미 여신의 신봉자들이 에베소에서 난동을 일으켰을 때, 가이오와 함께 붙잡혀 극장에 끌려갔던 그리스도인이다(19:29). 아리스다는 누가와 함께 바울시중과 동역을 위해서 자비부담으로 바울과 동행하였을 것이다. 아리스다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와 그리스순방까지 모두 마치고 많은 기부금을 가지고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데살로니가교회 대표로서 동행했던 인물로서(20:4)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 총독부로 이송되어 2년 넘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누가와 함께 팔레스타인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측된다.

9절의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들의 신년절기인 티쉬리(Tishri)월 1일부터 대속죄일(Yom Kippur)인 10일까지 열흘간 회개하여 죄를 씻고, 용서받고,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한 해를 복되게 보내기를 바라는 기간을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날 24시간 금식한다. 이 절기는 우리나라의 추석명절이 낀 음력 8월 1-10일 혹은 2-3년마다 한 번씩 음력 9월 1-10일에 닿는다. 주후 60년에 대속죄일은 양력 9월 23일이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9월 14일경부터

11월 11일 무렵까지가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였고, 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가 항해할 수 없는 시기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언급은 항해하기에 위험한 9월말이었다는 뜻이다, 이 무렵 배는 크레타 섬 남쪽 미항(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해 있었으나 겨울을 지낼만한 곳이 못되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출발한 것은 9월초 무렵으로 추측된다. 배가 동방에서 서방으로 향하기 때문에 남동풍이 불어야 항해가 순조롭게 된다. 그러나 9월 중하순부터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불던 계절풍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배가 로마가 있는 북서쪽으로 향하지 않고, 남서쪽 즉 북아프리카 쪽으로 밀리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큰 위험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 위기에서 빛난 바울

바울일행은 터키 남단의 무라항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 옮겨 댕지만, 배는 이미 북동풍의 영향을 받아 여러 날 지체된 상태에서 남쪽으로 밀려 크레타 섬 남쪽 미항에 가까스로 정박했다. 이때 바울은 더 이상 가지 말고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야 안전이 보장된다고 충고했지만, 섬 서쪽으로 옮겨 뵈닉스에서 겨울을 나자는 선장과 선주의 주장에 밀려 항해는 지속되었다. 때마침 남풍이 불어와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를 시작하였지만, 14절에서 보듯이, 출발한 지 얼마 못되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부는 ‘유라굴로’(Euraquilo) 광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유로’(euro)는 헬라어로 동풍이란 뜻이고, ‘구로’(aquilo)는 라틴어로 북풍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배는 해안을 끼고 돌지 못하고 해안에서 남서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손을 전혀 쓸 수 없게 되었고, 선원들은 화물과 장비마저 바다에 버렸다. 폭풍은 거센데, 낮밤가리지 않

고 여러 날 동안 칠흑같이 어두웠다. 만일 순항이었다면, 에메랄드 빛 지중해를 수놓은 일출과 석양, 밤물결에 흔들리며 나날이 작아져가는 붉은 달과 총총한 별 그리고 별을 껴안고 지는 그믐달까지 보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갈 즈음에 바울이 21-26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위대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첫째,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도 남을 탓하지 않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백부장이 임무수행을 우선하고, 선장과 선주가 경제적인 손실을 염려하는 동안 바울은 인명손실을 걱정하며 항해중단을 요구했었다.

셋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였지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위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였다.

넷째, 바울은 모두가 삶의 희망을 포기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도권을 쥐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상황을 통제하였다.

다섯째, 바울은 극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죽음에 직면하여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권면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눅 18:27). 바울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믿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 49.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5(행 27:27-44)

## 살림의 일을 행한 바울

크레타 섬의 미항을 떠나 비교적 짧은 거리인 뵈닉스로 향해 가던 배는 강한 북동풍에 의해서 14일간 840km 떨어진 멜리데(몰타) 섬 해안 근처에까지 떠밀려갔다. 주후 60년은 9월 28일이 초막절 보름날이었고, 배가 미항에 도착했을 때가 9월 23일 대속죄일이 막 지난 때였으므로 14일이 지나 배가 몰타 섬 해안 근처에 다다른 때는 아마 10월 중순, 티쉬리월 그믐쯤이었을 것이다(우리나라 음력 8월 말일).

이 난국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은 바울이었다. 바울은 상황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었고, 죽음 앞에서조차 생명을 논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으며, 폭풍 속에서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뜬 자였다. 바울은 극한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의 해변을 말할 수 있었으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설교했던 살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였다.

배가 몰타 섬 근처 “열다섯 길,” 즉 27미터 깊이의 물에 이르렀을 때 선원들은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서 닻을 내려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한 후에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선원들이 배 앞쪽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려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를 눈치 챈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선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군사들이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버렸고, 구명보트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배와 승객들의 목숨을 책임진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276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삶에 대

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은 무려 14일간이나 음식을 먹지 못해 탈진해 있었다.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겨두었던 밀을 바다에 내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우리들도 때로는 살기 위해서 움켜잡았던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 버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려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깨닫고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아무 것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동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살리기 위해서 276명 전원을 살려주셨다.

우리가 살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잘못된 판단과 생각,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잘못 선택한 일들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처럼, 심하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선한 뜻대로만 움직여 주질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과 시련을 면키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 새 언약 백성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써 상황을 주도하여 빛과 질서와 생명의 일을 해야 한다.

### 살림의 생각을 했던 바울

날이 밝자, 육지가 보였다. 그들은 닻줄을 끊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해안에 접근하였다. 그런데 그만 배가 모래톱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배의 고물은 파도에 깨어졌다.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두려워하여 죽이려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죄수들

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백부장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에 있던 물건들을 의지해서 육지에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 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다.

폭풍을 만난 좁은 배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려한 선원들이 있었고, 고정관념에 매어서 죄수들을 죽이려한 군사들이 있었으며,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살림의 일을 한 바울이 있었다.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들어난다. 성경에서 불같은 연단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지푸라기인지가 다 들어난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전까지 감춰져있던 속성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다 들어난다. 14일간 폭풍과 흑암에서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이 죽음의 용광로에서 각자의 인격과 인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육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육감으로 알아챈 선원들은 함께 고생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하였다. 선원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을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배를 조정해야할 선원들이었다. 그들이 떠나버리면 아무도 무사할 수 없다.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풍량이 멎는다 해도 배를 움직일 선원이 없다면 얼마나 암담한 일이겠는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좋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필요하고, 백부장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선원이 없이는 배를 움직일 수 없다.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백부장과 군사들은 크고 작은 일들의 책임을 진 실세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죄수들을 처형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들의 이런 답답함이 어디에 기인했다고 보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고정관념, 틀에 매인 생각 때문이었다. 그들은 앞을 내다보지를 못했고, 현실의 상황에만 급급하여 보다 소중한 가치 있는 생각들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울은 시종 하나님의 종으로써 뿐 아니라, 상식과 순리에 있어서조차 그들보다 앞선 생각을 하였다. 그가 비록 수인의 몸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었으며, 사람의 목숨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지도자였다. 망망대해에서 폭풍만난 배를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지휘하고 움직였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이었다. 이런 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울의 지도력과 영적인 힘의 근원은 다름 아닌 살림의 생각과 살림의 일에서 나왔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

### 생명의 주를 믿었던 바울

살림의 일과 살림의 생각을 했던 바울,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로 인해서 276명이 목숨을 건졌다. 절망에 지친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하였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었던 바울의 행동, 그 어려운 정황 속에서조차 상황판단을 바르게 하였고, 모든 정황을 통솔해 나갔으며, 절망의 늪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던 바울의 믿음이 276명의 목숨을 살렸다. 감옥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갖는 자포자기와 좌절의식이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한테서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모든 자들을 능가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취한 행동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바람이 워낙 세서 어찌해 볼 수 없었으므로 바람에 배를 내맡겼다(15절). 그러다가 바람막이가 되어준 가우다 섬을 지날 때에, 즉 기회가 주어졌을 때, 끌고

다니던 구명정을 바다에서 끌어올려 갑판에 단단히 묶는 일을 했다(16-17절). 그리고 배가 북아프리카 쪽으로 밀려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갯바닥을 끌도록 만든 일종의 제동장치인 닻을 내리고, 닻을 내려서 갑판에 묶는 일을 하였다(17절). 둘째 날에는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고, 삼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보조기구들, 특히 돛대를 내버렸다(18-19절).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살아남기 위해, 소중한 물건들을 버리는 행동에 동참하였다. 이것은 한 때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지던 것들조차도 위기탈출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내림과 버림은 승선한 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될 가망성은 여전히 희박하였다(20절). 그 후로도 열흘이 넘게 광풍은 불어 닥쳤고, 14일 동안 불어 닥친 성난 바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배까지 파도에 부셔졌으며, 목숨이외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들은 힘을 합해서 모든 것을 내리고 버렸고, 마침내 곡물까지 버린 후에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살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울의 믿음이었다. 사실 배 안에 있던 276명 가운데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희망의 끈을 놓고 있었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살렸다. 버릴 것은 버리더라도 믿음만은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풍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릴 것과 보존할 것을 구분하게 해주었다. 만일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한 달뿐이라면, 그 짧은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좋을 일들의 구분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는 뜻이다. 폭풍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는 먹고 입고 쓰는데 유용했던 물건이라도 전혀 무가치하게 여겨질 것이다. 오히려 평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구명조끼와 같은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선택될 것이다. 믿음의 경우도 이와 같다. 믿음은 일상에 필요한 생필품처럼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 그다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폭풍이 인생에 불어 닥쳐 난타를 당할 때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은 지켜야할 무한 가치가 된다.

## 50.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6(행 28:1-29)

## 몰타 주민에게 복이 된 바울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한 섬에 내렸는데, 알고 보니, ‘멜리데’라 불린 오늘날의 몰타공화국이었다. 이 ‘몰타’는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100KM, 북아프리카로부터는 약 34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고도였다. 길이가 36KM, 폭 17KM의 ‘피난처’란 뜻을 가진 작은 섬이다. 오늘날 몰타 인구는 39만 명 정도이고, 그중 98퍼센트가 가톨릭신자들이다. 언어는 몰타어와 영어를 사용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64년까지 영국이 지배했던 곳여서 영어가 공용어로 쓰인다. 기후는 온화하지만, 여름엔 뜨겁고 건조하다가 겨울에 비가 온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한다.

바울 일행은 이 섬에서 3개월간 과동하였다. 섬사람들은 친절했고 호의적이어서 바울 일행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분들이었다.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숙식문제가 섬사람들 덕분에 해결되었다. 그러나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 섬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었다. 주민의 98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인 것에서 보듯이, 그들은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천국복음을 듣게 되었고, 병 고침도 받았다. 주거니 받거니, 가는 정 오는 정이 풍성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섬사람들은 죽다가 산 276명의 사람들에게 물자를 공급하였고,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복과 신령한 복으로 덕을 끼쳤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헬라인들은 가난한 유대인들을 물질로 도왔던 경우와 다를 게 없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영적인 도움을 주고, 영적인 도움을 받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

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성경에 소개된 대부분의 기적이나 능력 행함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증거적으로 또는 표적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란 사실과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신약성서는 능력 행함을 기적의 근원으로, 이적 또는 이사(놀람)를 기적의 결과로, 표적을 기적의 목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표적이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란 사실과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서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아니한 것이나,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Publius)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고친 것이나 섬사람들의 병을 고친 것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타난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병 고침이나 능력 행함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능력 행함은 복음전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물론 병으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구원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의 해방보다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해방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바울 일행이 직면했던 위기와 역경은 몰타 주민들에게는 복이 되었다. 위기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살림의 일, 빛의 일, 생명의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 로마에 도착한 바울

그리스신화에 '디오스쿠로이'(Dioskouroi)라 불리는 쌍둥이 형제가 나온다. 이들은 제우스의 아들들이다. 이들 형제의 이름이 카스토르(Castor)와 폴룩스(Pollux)인데, 로마시대의 사람들은 이 두 소년을 묶어서 '게미니'(Gemini) 즉 쌍둥이라고 불렀다. '게

미니'는 영어발음으로 '제머나이' 혹은 '제머니'라 불리고, 우리 말로는 '제미니'라고 불린다. 196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유인 위성 계획 '제미니 플랜'에 이 이름이 붙은 것은 인공위성에 태울 사람의 수가 2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쌍둥이 형제는 뱃사람들로부터 순풍을 비는 제물을 받고, 그 대신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뱃사람들의 수호신이였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그들을 쌍둥이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적고 있다. 이 쌍둥이 형제는 보통 투구를 쓴 채 창을 쥐고 말을 탄 2명의 젊은이로 표현되며, 초기의 로마 동전에 그들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몰타에서 3개월간 겨울을 보낸 후 바울일행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 배의 기호가 앞서 설명한 '디오스쿠로이' 즉 선원들의 수호신 쌍둥이 형제였던 것이다. 뱃머리에 '디오스쿠로이'란 글자나 초상이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바울 일행은 이 배를 타고 시실리의 수라구사(Syracuse)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이태리 본토 최남단에 위치한 레기온(Rhegium)에 이르렀고, 다시 레기온에서 남풍에 의지하여 340km 떨어진 보디올(Puteoli)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은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곳 보디올에서 7일 동안이나 성도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었는데 백부장의 배려가 컸던 것 같다. 보디올에서 7일을 머문 후 바울 일행은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 만 2년 전에 보낸 로마서를 읽었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무려 68km나 떨어진 압비오 광장(Forum of Appius)과 세 개의 숙소란 뜻을 가진 트레이스 타베르네(Tree Taverns)까지 마중을 나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15절)고 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엄청난 고통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큰 법이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처럼, 고난이 크

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큰 법이다. 로마방문을 계획했었지만, 2년이 조금 넘도록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고, 네로황제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죄수의 몸으로 이끌려왔지만, 자신의 뜻대로 배를 움직일 수 없었고, 따라서 14일간이나 밤낮 죽음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하였다. 또 얼마나 오랫동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지내야할지도 모른 상태이고, 처음 방문하는 로마에 대한 기대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했을 바울을 보겠다고, 일면식도 없는 성도들이 또 누구로부터 소식을 들었는지, 일백칠십 리 길을 멀다않고 마중 나왔을 때, 바울은 그들을 본 순간 그 듯한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면서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이슬처럼 맺혔을 것이다.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일면식도 없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에 찼을 것이다.

###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16절 이하는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해서부터 무죄로 풀려날 시점까지의 기록이다. 총16절밖에 안 되지만 무려 2년 동안의 일을 적은 글이다. 바울은 미결수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연금 상태로 지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안에서의 자유는 허용 받았던 것 같다. 바울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한 셋집에서 파견된 병사 한명과 함께 지냈다. 학자들은 병사와 바울의 손이 쇠사슬에 함께 묶여 있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그런 설명이 없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런 연금 상태로 2년 정도를 지내다가 풀려났다고 본다. 유명한 고고학자였던 렘세이는 고소자들이 로마에 와서 고소내용을 진술해야 할 법정기간이 1년 6개월이었고, 석방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6개월 정도라고 보았다. 그런데 바울을 기소했던 유대인들은 비용과 시간도 그렇고 또 이 사건을 네로 황제 앞에까지 가져가는 것이 자신들의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로마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로마법은 꽤소한 고소자들을 매우 거칠게 다뤘으며, 특히 남을 무단히 괴롭히고자 한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무고죄는 그 형벌이 상당히 무겁다. 함부로 남을 고소하게 되면 자칫 무고죄에 걸려 수년간 철장신세를 질 수도 있다. 아무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로 총 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 경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계획했던 선교여행도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그에게 결코 무익한 시간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나이가 이미 당시 보통사람들의 기대수명을 넘긴 50대 중반이었고, 잠시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충분한 재충전이 필요한 때였다. 제1,2,3차 선교여행 때의 바울개인의 정황이 고린도후서 11장 23-28절에 밝혀져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중에 기록한 글이다. 이후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 유대총독부 감옥에서 2년간 옥살이를 하였고, 로마로 가던 중에 바다에서 14일간이나 폭풍 중에 표류하였다. 그리고 로마의 셋집에서 2년간 연금 당하였는데, 이 또한 바다여행으로 상할 때로 상한 몸을 추스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었다.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함께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간접사역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며,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이었다.

## 51.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7(행 28:30-31)

## 사도행전의 기록목적

바울은 유력한 유대인들을 셋집에 초대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변호할 뿐 아니라, 집회를 열어 복음을 전하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강론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20절)과 자신의 신학사상(22절)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23절). 그야말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썼다(딤후 4:2).

초대받았던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 당대에 교회가 처한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앎이라”고 한 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박해상황을 언급한 말이다.

사도행전은 마침내 바울이 숙원인 로마에 입성했다는 사실로 끝을 맺고 있다. 이로써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퍼지게 될 기반이 마련되고,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가 크게 발전될 것을 전망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사도행전에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닥쳐와도, 총칼의 위협과 탄압이 있어도, 지진과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복음의 행진은 지속된다는 역사가의 위대한 정신이 녹아져 있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역사> 38-48쪽에서, 역사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골라진 사실들에 대한 뜻풀이라고 했고, 그 뜻풀이에 역사는 생명을 갖는다고 했다. 역사가의 능력은 해석하는 힘에 있다고 하면서 잘된

역사책은 정신을 밝혀주는 글이요, 잘하는 역사독법(歷史讀法)도 정신을 읽어내는 해석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역사가로서 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밝혀주려고 했는가?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첫째, 초대교회의 기원, 전파, 그리고 발전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둘째, 그리스-로마세계를 향한 복음전도가 그 목적이다.

셋째, 지연된 재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Conzelmann).

넷째, 바울을 언짢게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다(Brandon).

다섯째, 박해자인 로마당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H. Sahlin, B. S. Easton).

여섯째, 박해자인 유대인을 향한 변증서이다(Hengel).

이런 설명이 부분적으로는 모두 옳지만, 그보다는 교회의 설립과 발전과정에서 드러난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박해까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자.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를 세워나가자.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과 정신에 잇대어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삶과 정신에 잇대어 살아가자”라고 설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듯싶다.

### 사도행전이 제시한 과제

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교회시대로 이해하였고, 성령시대로 이해하였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이끌어 중생의 거듭남(칭의)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축복을 미리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게 하며, 그리스도인

을 새 나라에로 이끌어 구원(성화)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역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끌어 온 역사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역사조차 성령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란 것이다.

따라서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신속히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전개될 새 땅과 새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더 이상 사단이 지배하는 절망의 나라로 달음질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희망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비록 배척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비록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가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충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앞서간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인 20장 22-2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제시한 과제는 이렇다. 바울이 예수님을 좇아 그 분이 가신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좇아 밟았던 것처럼, 스테반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테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

고, 성령 충만하여, 순례자의 길을 어렵다고 멈추지 말고,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멈추지 말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기까지,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완주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적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깔끔하게 끝마무리를 하지 않고 열어 놓은 것은 사도들의 행전을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써내려 가야한다는 암시였다.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를 향한 진군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역대기하서가 사도행전처럼 끝마무리가 되지 않고 열려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과 성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지속되어야한다.

###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전망은, 누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였듯이, 무흠하셨던 예수님, 무흠했던 바울, 무흠한 그리스도의 교회,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의 차별이 없고 값이 없고 은혜로 받는 구원의 복음, 구제와 섬김,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에 있다. 오늘날 새 언약 백성의 땅과 나라는 갈수록 작아지고 약해지고 있다. 어떤 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영토가 줄어들었다면, 그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무흠하고 강했던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가 어찌다 이 모양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하지 않겠는가?

박해와 탄압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었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었던가? 박해와 탄압과 위기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도록”(6:7) 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 수가 더 많아지게”(9:31) 하며, “하나님의 말

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게”(12:24) 하고,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16:5) 하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지”(19:20) 않았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28:31) 않았는가?

2,000년 전 기독교복음이 전래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로마인의 정신세계는 신화가 지배하였다. 중요한 사물의 이름들이 거의 다 신(神)의 이름으로 불릴 만큼 많았던 신들, 대표적인 신들에게 봉헌된 신전(神殿)들, 그리고 그들의 신심(信心)이 표현된 문화예술작품들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리스-로마 사람들의 98퍼센트가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리스는 동방교회, 로마는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란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바울은 제1차와 제3차 선교여행 때 오늘날의 키프로스, 터키 서부 전역에 걸쳐서 교회들을 세웠다. 제2차 선교여행 때는 그리스 전역에 걸쳐서 교회들을 세웠다. 그리고 제4차 선교여행 때, 이때는 죄수로서 네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간 처지였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았다. 나중에 로마교회는 서방교회로 일컬어지는 가톨릭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스는 동방교회로 알려진 그리스정교회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1,500년대에는 서방교회인 가톨릭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분리되어져 나왔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초기 300년간 불법종교였고, 로마의 신들에게 충성을 바친 황제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란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합법종교로 만들었으며,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제국의 국교로 삼았다. 이런 믿음의 원동력과 무함한 순결성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여

기에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의 비전과 전망이 있다.

## 후기: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

###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4:16, 11:1)고 권면하였다. 그 가운데 한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11:1)고 하였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쓸 때 누가는 빌립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누가가 나중에 이 서신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설교는 바울로부터 자주 들었을 듯싶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 철저히 잇대어져 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바울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 잇대어 상세히 소개하였다.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예루살렘 시온예로의 오름으로 설명하였다. 이 오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길이었을 뿐 아니라, 배척과 박해가 따르는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였다. 그런 만큼 예수님은 이 길을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완주하셨다고 설명하였다. 기독교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 셀 수 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6:7),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 수가 더 많아지고”(9:31),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고”(12:24),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고”(16:5),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며”(19:20)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

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28:31)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로의 오름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을 본받아 그분의 삶에 잇대어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또 다른 특징을 순결과 무함으로 설명하였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순결하셨고, 적대자들은 그분에게서 죽일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눅 23:22, 행 13:28).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잇대어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순결하였고, 적대자들은 그들한테서 죽일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행 25:25, 28:18).

누가는 순결과 무함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한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를 향한 도전(진군)이 셀 수 없이 많은 위기들을 기회들로 바꾼 능력이었다고 말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기도는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밤낮으로 성도와 함께 계시며 의사처럼 고치시고, 교사처럼 가르치시며, 변호사처럼 보호하시고, 안내자처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끌어내어 셀 수 없이 많은 위기들을 기회들로 바꾼 힘의 근원이었다고 말한다. 오늘날 새 언약 백성의 새 땅과 새 나라는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갈수록 위축되고 작아지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